의암 주논개 탄신 427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장수지역과 임진·정유 왜란

(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지역과 임진·정유 왜란

(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논개영정

▲ 전주원씨부인 정려

▲ 의암 주논개 생장향 수명비

▲ 수열비

간 행 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회장
장 명 수

장수문화원에서는 의암 주논개 탄신 422주년을 맞이하여 '논개의 생애와 충절정신'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제 창립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에서 주관, 의암 주논개 탄신 427주년을 기념하여 '장수지역과 임진·정유왜란'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는 의암 주논개의 충절정신을 재조명하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책자는 이번에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이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주논개가 우리에게 보여준 충절정신이 무엇이며, 그 충절정신이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가의 방향 모색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주 원씨와 해주 오씨 부인이 보여준 충절과 절의란 논개의 충절정신을 그대로 계승 실천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지역 장수가 옛날부터 충절을 실천한

고장이라는 것도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밝혀졌다.

아무튼 본 책자가 주논개의 충절정신을 계승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이번 학술 세미나에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주옥같은 논문을 집필해주신 오병무 교수님, 김학권 교수님, 유종국 교수님, 전경목 학예사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차 례 ●

간 행 사 .. 장명수(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회장) 3

충절정신이란 7

『쇄미록』을 통해서 본 임진왜란 전후 장수현의 상황 29

임진왜란시 조선 여인들의 절의정신 77

임진·정유왜란과 장수 여인들의 충절 153

충절정신이란?

김 학 권
(원광대학교 철학과 교수)

1. 생명의 고귀함
2. 인간의 본질
3. 유가의 충절
4. 충절의 표상

1. 생명의 고귀함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를 제 2의 산업 혁명의 시대 혹은 기술적 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제 2의 산업 혁명을 통해 경제적 생산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생산 방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방식이 거의 전체적으로 자동화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과학 기술의 혁신에 의한 폭발적인 생산의 증대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큰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동시에 자아(自我)를 상실한 채 단순 생존의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에는 자살(自殺)과 약탈(掠奪), 그리고 집단 테러와 전쟁 등 생명 경시로 인한 인류 사회의 파괴 현상이 점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데서부터 삶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요, 내 자신의 실재(實在)는 나의 생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存在), 곧 나의 생명(生命)은 나에게서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귀중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殺身成仁).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생명의 고귀함을 깊이 자각한데서 깨닫게 된 생

명 정신의 승화이므로 처음부터 생명을 외면하고 경시한 데서는 진정한 인간의 정신적 가치나 의미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물음을 던질 줄 아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옛날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어렵고,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중에서도 세상의 이치(理致)와 삶의 도리(道理)를 깨닫고 이를 행하는 각자(覺者)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도 이 세상에 오기 어려운 인간의 생명도 얼마 안되어 죽어야만 한다. 몇 억만 겁의 한 인연(因緣)으로 오게 된 생명이 마치 불티처럼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져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번간 생명은 몇 억겁의 미래에 다시 온다는 기약(期約)도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유한(有限)함을 절감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저주(咀呪)하거나 학대(虐待)할 수 없는 경건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2. 인간의 본질

인간(人間)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사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존재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활동에는 생존(生存)과 성장(成長) 따위의 일정한 목적(目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동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그 목적들은 자연에 의하여 맹목적(盲目的)으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무의식적(無意識的)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의 세계는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주체적(主體的)으로 선택하고 구상(構想)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생물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인간이 목적 의식(目的意識)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평가(評價)라는 심리 작용(心理作用)을 필연적(必然的)으로 갖게 한다. 사람이 평가라는 심리 작용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價値)의 세계를 의식하게 하였으며, 이 가치 세계에 대한 의식이 이성(理性)의 확립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활 영역을 무한히 확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존엄(尊嚴)한 존재임의 근거를 이 이성에 두고자 한다. 인간이

이성을 소유한 까닭에 자기를 인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자주적(自主的)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主體)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력(權力)이나 유혹(誘惑)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의연히 일어서는 용기(勇氣)와 자존심(自尊心)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인간에게서 윤리 도덕과 질서의 관념을 인격성(人格性)으로 요청한 것도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분별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을 물건이나 자연물처럼 취급하여 획일적(劃一的)인 법칙(法則)에다 귀속(歸屬)시킬 수 없는 것 또한 각자 개인이 가진 감정(感情)과 의지(意志)의 특이성(特異性) 때문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사물보다 우월한 것이며 나라는 개체(個體)는 다른 개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에 각자 개체의 존엄성(尊嚴性)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 위에서 인간은 각자의 개인을 인격적 주체(人格的主體)로 대우한다. 인격적 주체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道德的主體)이다. 밖으로부터의 자극(刺戟)에 의해서 기계적(機械的)으로 운동하는 무생물(無生物)이나 본능(本能)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반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스스로가 정한 목적과 스스로 내린 판단(判斷)을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한

다.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기 내부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인간을 우리는 존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거대한 우주에 비해 보잘것없이 작은 존재이며, 인간의 힘 또한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특히 우리는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적(有限的)인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같은 운명(運命)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 깊은 동정(同情)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빈부(貧富)나 지위(地位)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부유(富裕)함도 없고, 높은 지위나 커다란 권세(權勢)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소신(所信)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이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權利)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견지에서 인간을 살펴본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아주 열악한 미완성(未完成)의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출생 이후의 양육(養育)과 교육(敎育)을 통해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 과정 중에 사회화되면서 비로소 한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社會性)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本質的)인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부모의 자녀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태어나 부모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그 국가 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성장한다. 이처럼 인간이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개체로서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회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사회를 떠난 인간은 관념적(觀念的)으로는 상상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現實的)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참으로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만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다른 인간들과의 유대(紐帶)를 통하여 상호 안정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정신적(精神的)으로 나는 항상 너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며, 이것은 또한 인간이 국가 사회 안에서만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은 한편으로는 개인으

로서 자신의 신념(信念)에 따라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엄한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사회적인 존재인 것이다.

3. 유가의 충절

유가(儒家)의 인간관도 이와 같이 개인의 존엄성의 자각(自覺) 위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유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 천지 만물을 경영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문 세계(人文世界)를 창조하는 데에 두었다. 이 때의 인간은 자연인(自然人)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품부(稟賦)받은 덕성(德性)을 잘 보존하고 확충(擴充)해서 이상적 인격으로서의 성인(聖人)을 체현(體現)하는 도덕인(道德人)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천지 만물을 경영하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천치 만물의 이치와 인간 세상사의 도리를 궁구(窮究)하여 천지의 대덕(大德)과 만물의 정의

(情誼)에 합하도록 총명 예지(聰明叡智)를 다하여야 한다. 천지 만물은 본래 인문 세계 건설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과 남을 완성시키는 도덕적 수행은 물론 천지가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덕성의 대행까지도 감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인문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 천지 만물 모두가 그들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는 본래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들 자신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삼재가 힘을 합쳐야만 인문 세계의 창조는 가능한 것이다. 즉 "하늘은 사시(四時)를 관장하고, 땅은 만물을 길러내며, 사람은 만물을 관리한다. 이를 일러 능참(能參)이라 한다(天有其時, 地有其財, 人有其治, 夫是之謂能參)"고 한 것처럼 삼재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 때문에 인문 세계 창조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보상성(相補相成)은 필연적이다.

유가의 우주에 대한 이해의 특징은 우주가 언제 무엇에 의해 어떻게 온 것인가를 궁구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세계는 어떤 법칙으로 어떻게 생성되고 운행되느냐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유일자(唯一者) 또는 절대자(絶對者)는 인정되지 않기에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만으로

전지전능(全知全能)할 수 없다. 통상 최고 개념(最高槪念)이라고 할 수 있는 천(天)도 지(地)의 상반된 보조 기능 없이는 만물을 생성할 수 없다. 만물도 그 근원(根源)을 천지에 두고 있으나 천지와 따로 떨어져 있거나 천지에 완전히 종속(從屬)되어 생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크게 보면 온 천지는 천지를 위시한 만물의 각기 다른 작용과 기능의 화합으로 생성 운행(生成運行)되고 있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전체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호작용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 아래로는 천지와, 그리고 좌우로는 만물과 공능(功能)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위에 있는 것이 된다. 인간의 삶도 이처럼 천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의 수양, 한 가정(家庭)의 살림, 사회 국가의 영위(營爲), 천하 질서의 유지(維持)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각기 다른 수많은 다른 존재로부터 보완(補完)을 받아 하나의 단위를 형성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가의 인간 이해는 비록 계층간(階層間)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공능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들이 창진(創進)한 인문 세계에서의 인간적 향유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흔히 민본(民本)이니 위민(爲民)이니 하는 말의 뜻도 이런 의미에서 인문 세계 창진의 기본 요

소가 되며, 또한 이렇게 이룩된 문화는 그 기본 단위인 일반 개인에게 먼저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즉 유가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인문 세계의 창조(創造) 역시 모든 개인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인문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개인적 존엄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충(忠)의 덕(德)이다.

충(忠)은 그 글자의 구성으로 볼 때 중(中)과 심(心)의 합성어로서 중심(中心)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중심이란 욕심(慾心)이나 사심(私心)을 버린 공심(公心)을 말한다. 중국 한(漢) 나라 마융(馬融)의 저작(著作)으로 알려진 『충경(忠經)』에서는 "'충(忠)'이란 '중(中)'으로서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것이다. 천(天)은 무사(無私)함으로 사시(四時)를 운행하고, 지(地)는 am사(無私)함으로 만물을 생성하며, 인(人)은 무사(無私)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면서도 곧고 바름을 잃지 않는다. 충(忠)이란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함을 일컫는 말로서 국가의 근본이 되니 어찌 이에 힘쓰지 않겠는가?(『忠經』「天地神明章」: 忠者, 中也, 至公無

---

1) 金忠烈, 奇高峯의 經世思想,(高峯思想의 현대적 조명) 한국동양철학회, 유가학회주최, 1990, 11, 2. 49-51쪽 참조.

私. 天無私, 四時行. 地無私, 萬物生. 人無私, 大亨貞. 忠也者, 一其心之謂矣, 爲國之本, 何莫繇)"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심(一心)으로서의 충(忠)이란 인간이 천지의 무사(無私)함과 같은 공심(公心)을 주체적(主體的)으로 체득(體得)하여 한결같이 유지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는, 즉 신의(信義)를 담보하는 도덕적 자각(道德的自覺)이다. 다시 말하면 충(忠)이란 자신 속에 천지로부터 품부(稟賦)받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 내재(內在)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주체적인 도덕적 자각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대자관계(對自關係)의 덕목(德目)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자적(對自的) 도덕 자각은 사실 타자(他者)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각이므로 기실 대타관계(對他關係)의 덕목으로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한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 생명이 계속 연결되어 무한 생명을 이루어 간다. 알고 보면 영원(永遠)이란 것도 유한 존재들이 회합되어 이루어지는 지속에 불과한 것이다. 유한한 존재들이 이어져 영원을 이룬다고 볼 때 하나 하나의 유한 생명이 차지하는 시공상(時空上)의 기능은 바로 영원 생명과 맞먹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한한 생명들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영원 생명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고귀함의 자각은 필시 같은 인간으로서 상호간에 동정과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도리에 따라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도리에 따라 아버지를 공경(恭敬)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나의 처지를 미루어 남을 헤아려 살피는 인(仁)의 마음이 당위(當爲)로서 요청됨을 누누이 강조한다. 공자에 의하면 "인(仁)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論語』「顔淵」: 樊遲問仁, 子曰, 愛人)"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물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유한 생명들이 각기 무한 생명에로의 시간적 연속을 꾀하고 있는 역사적 존재(歷史的存在)라는 자각의 바탕 위에서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는 이타적(利他的) 사랑인 것이다. 그러기에 공자는 인의 뜻을 묻는 제자의 질문에 "인(仁)이란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論語』「顔淵」: 仲弓問仁, 子曰, 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고 하였고, 또한 "인자(仁者)는 자기가 서려고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사람이다.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슷한 경우를 취하여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이것이야말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論語』「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矣)"고 말했다. 공자에게 있어 인(仁)의 실천이란 남을 위한 배려에 있다.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으면 남도 이루어지도록 돕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인(仁)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의 평생의 도(道)는 오직 하나의 길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공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증자(曾子)가 답하기를 "선생님의 도(道)는 오직 충서(忠恕)일 뿐이었습니다(『論語』「里仁」: 子曰,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대답하였던 바, 공자의 인(仁)이란 바로 이 충서(忠恕)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즉 공자의 충서(忠恕)의 도(道)란 천지로부터 품부받은 정직하고 성실한 공심(公心)으로서의 충(忠)과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려 살피는 서(恕)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공자께서 평생토록 강조한 인(仁)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던 것이다.

후기의 유자들은 이 충서의 도를 계승하여 혈구(絜矩)의 도(道)로서 발전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를 척도로 삼

아 남을 헤아려 살피는 동정(同情)의 도리(道理)로 삼고 있다. 『대학(大學)』의 다음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윗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아랫사람에게 행하여 부리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윗사람을 섬길 경우에 쓰지 말 것이다. 그리고 앞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뒷사람을 앞에서 인도할 때에 쓰지 말 것이며, 뒷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앞사람을 좇을 경우에 쓰지 말.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왼쪽 사람에게 주고받지도 말 것이며, 왼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오른쪽 사람에게 주고받지도 말 것이다. 이것을 혈구(絜矩)의 도(道)라 한다(『大學』: 所惡於上, 毋以便下,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 이는 인(仁)의 소극적인 서(恕)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중용(中庸)』에서는 "충서(忠恕)의 도(道)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멀리 떨어진 심원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고, 자기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며, 자기의 신하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며, 자기의 아우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을 섬기며, 벗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벗들에게 베풀어 주라.(『中庸』: 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所求乎子以事父, 所求乎臣以事君, 所求乎弟以事兄, 所求乎朋友先施之.)"고 말한다. 이는 인(仁)의 적극적인 충(忠)의 측면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대학』에서든, 『중용』에서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혈구지도(絜矩之道)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있으며 결코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사회 속의 개인은 이 충서(忠恕)의 도(道)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충서(忠恕)의 실천에는 의(義)의 의미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서(忠恕)의 도(道)는 도덕적 자각을 가진 인간 생활의 시작임과 동시에 완성인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인(仁)의 적극적인 실천 방법인 忠 속에 이미 소극적 의미로서의 서(恕)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이 충(忠)의 정신이야말로 인간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근본적인 덕목이라 할 것이다. 이 충(忠)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덕목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충(忠)의 덕(德)이 군주 정치(君主政治)의 도구적 이념(道具的理念)으로 전락되어 봉건 군주제(封建君主制) 확립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대통일 제국을 수립한 한대(漢代) 이후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후

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충(忠)의 덕(德)에 대하여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服從)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용』의 서두에서 밝힌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의 언명(言明)은 사람은 누구나 남을 사랑하는 인(仁)의 본성을 이미 천명(天命)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이 인(仁)한 본성은 충서(忠恕)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통해 사회 속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를 떠나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찾게 되는 것이기에 충의 덕도 결국 사회 국가 속에서 그 의미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의 역사는 항상 국가 사회를 삶의 기반으로 하면서 진행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가 변한다 하더라도 국가 사회는 엄연히 존립할 것이고 국가 사회가 존립하는 이상 이 충(忠)의 정신(精神)은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 덕목으로서 영원히 요청될 것이다.

4. 충절(忠節)의 표상(表象)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충(忠)이란 삼가 공경함이며,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는 것(『說文解字』: 忠, 敬也. 盡心曰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충(忠)의 본래적 의미가 '삼가 공경하며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마음'임을 나타내는, 즉 개인적 덕목을 지칭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그런데 『충경』에서는 "무릇 충(忠)이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 가정에서 드러나고, 국가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그 행은 한결같다. 그러기에 자신에 대하여 한결같이 함은 충의 시작이요. 그 가정에 한결같이 함은 충의 중간이요, 그 국가에 한결같이 함은 충의 마지막이다(『忠經』「天地神明章」: 夫忠, 興於身, 著於家, 成於國, 其行一焉. 是故, 一於其身, 忠之始也, 一於其家, 忠之中也, 一於其國, 忠之終也.)"라고 말하여 충(忠)의 사회적 공능(功能)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충(忠)의 설명은 사실 절대 군주제 사회에서는 당연한 요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상관에 대한 충성(忠誠)의 도덕 규범으로 굳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忠의 도덕 규범이 한 사회에서 하나의 보편적 사회 규범으로 수용되었다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

서는 그러한 사회 규범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미덕(美德)이 아닐 수 없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신이 해야할 도리를 한결같이 행하면서 남을 헤아려 보살피는, 충(忠)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군자(君子)의 삶이 아니겠는가? 봉건사회에서의 이러한 이상적인 군자의 삶의 태도는 "곧고, 반듯하여, 크다. 그러기에 배우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여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直方大, 不習无不利)"라고 한 『주역(周易)』 곤괘(坤卦) 효사(爻辭)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곤괘(坤卦) 제 2효(第二爻)의 효사(爻辭)이다. 곧고(直) 반듯한 것(方)은 지(地)의 성(性)이다. 지(地)는 이 곧고 반듯한 성(性)을 얻어 만물을 광생(廣生)한다. 그러기에 크다고 한 것이다. 2효(二爻)는 하경괘(下經卦)의 중효(中爻)이다. 그리고 음효(陰爻)로서 음위(陰位)를 얻고 있으므로 지(地)가 그 올바른 성(性)을 득(得)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 인사(人事)에 비유하여 인간의 도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군자(君子)는 공경(恭敬)으로 내면(마음)을 곧게 하고, 의리(義理)로서 외면(행실)을 반듯하게 한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의 내용이다. 군자는 마음이 곧고 행실이 반듯한 사람이기에 유덕(有德)하여 항상 외롭지 않는 위대한 인격자이다. 지(地)는

음도(陰道)로서 신도(臣道)이며 부도(婦道)이다. 음(陰)은 양(陽)을 따르고 신(臣)은 군(君)을 따르고 부(婦)는 부(夫)를 따르는 것이기에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직(正直)의 도(道)로써 행하면 길리(吉利)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一國)의 충신으로서, 의(義)로운 선비로서, 그리고 유덕(有德)한 지아비로서 오직 군자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간 남편 최경회(崔慶會) 장군을 충절(忠節)의 부덕(婦德)으로 종사하여 수많은 묵객(墨客) 지사(志士)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외롭지 않는 역사의 인물로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하는 논개(論介)의 일생이야말로 '경이직내(敬以直內)하고, 의이방외(義以方外)'한 군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유한한 삶을 영원한 가치 세계에서 무한으로 확대하여 계속해서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생(妓生)을 가장하고 적장(賊將)을 끌어들여 푸른 강물에 함께 투신(投身)함으로써 순절(殉節)하기까지 자신의 온갖 자존(自尊)의 생각(念)을 다 버렸으나 그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충의(忠義)로운 사람으로 역사 속에 자신을 드높이 세우게 되었고(成己),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오히려 죽지 않고 역사 속에 다시 부활하여 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족의 혼을 드높인 충절(忠節)의 표

상(表象)으로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논개야말로 죽되 죽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 승리의 삶을 산 의인(義人)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쇄미록』을 통해서 본 임진왜란 전후 장수현의 상황

전 경 목
(전북대 학예사)

1. 머리말
2. 『쇄미록』에 대한 소개
3. 왜란 직전 군사 활동과 백성의 동향
4. 왜란 직후 전라도 관군과 의병의 대응
5. 왜란 후 장수현의 대응 상황
6. 결론

1. 머 리 말

조선 선조 25년(1592)에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일으킨 조일전쟁(朝日戰爭)을 통상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

고 일컫는데 당시에 장수현(長水縣)은 다행히 일본군의 진격로에서 비켜나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인근 고을 예컨대 진안현(鎭安縣)이나 용담현(龍潭縣) 등에 비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1]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같은 해 3월에 군대를 개편하였는데 그 중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지휘하던 제 1대(隊)는 선봉대 역할을 하여 4월 14일에 조선에 상륙하여 곧바로 부산진(釜山鎭)과 동래부(東萊府)를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양산(梁山)과 밀양(密陽)을 공격하였으며 대구(大邱)와 상주(尙州)를 거쳐 조령(鳥嶺)으로 진격하였다. 가등청정(加藤淸正)이 통솔하던 제 2대는 같은 달 19일에 부산진에 상륙하여 경주(慶州)와 영천(永川) 등을 함락시키고 용궁(龍宮)과 문경(聞慶)을 거쳐 소서행장의 군대와 합류하여 탄금대(彈琴

---

1)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기왕에 여러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그 중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李烱錫, 『壬辰戰亂史』,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金潤坤, 「郭再祐의 義兵活動」, 『역사학보』 33, 1967.

宋正炫, 「壬辰倭亂과 湖南義兵」, 『역사학연구』 4, 1972.

「壬辰倭亂에 있어서 湖南義兵」, 『역사학연구』 11, 1983.

河泰奎, 『轉換期 湖南地域史 硏究』, 1997.

충남대백제문화연구소, 『壬辰倭亂과 梨峙大捷』, 1999.

이희권, 「임진왜란과 전라인의 구국 항쟁」, 『역사로 보는 전라도』, 2001.

臺)에서 신립(申砬)의 군대를 격파하고 충주(忠州)로 진격하였다. 흑전장정(黑田長政)이 이끄는 제 3대는 김해(金海)와 거창(居昌)을 거쳐 영동(永同)을 경유, 곧바로 청주(淸州)로 진격하였다. 이와 같이 파죽지세로 진격한 일본군은 마침내 5월 3일 서울을 함락시켰는데 장수현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군의 진격로에서 천만다행히 비켜나 있었다.

한편 서울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서울에 입성(入城) 직후부터 조선을 분할 통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이유는 조선 전 지역을 명(明)의 침공(侵攻)을 위한 보급기지화하고 부산(釜山)과 의주(義州)를 잇는 간선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라도를 분할 통치할 군대로는 소조천륭경(小早川隆景)이 이끄는 제 6대가 선정되었다. 소조천(小早川)은 군사를 이끌고 곧 남하하여 청주(淸州)를 도착한 후 전주부 입성을 최종 목표로 하여 부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지례(智禮)의 부항령(釜項嶺)을 넘어 무주(茂朱)와 진안(鎭安)을 지나 웅치(熊峙; 곰티재)로 진격토록 하였으며 다른 한 부대는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영동(永同)과 양산(梁山)을 경유하여 금산(錦山)의 이치(梨峙; 배재)를 공격토록 했다. 이와 같이 전주 입성을 향한 일본군의 진격로에서도 장수현은 불행 중 다행히 비켜나

있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장수현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戰況)을 기록한 여러 서적들 예컨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난중일기(亂中雜錄)』등과 같은 사서(史書)를 살펴보면 조일전쟁(朝日戰爭) 초기에는 장수현과 관련된 기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 초기에 장수현에서 일본군에 대한 군사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군이 의령(宜寧)에서 출발하여 함양(咸陽)과 안의(安義) 등을 경유한 후 육십령(六十嶺) 고개를 넘어 장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감사 이광(李洸)은 이계정(李繼鄭)을 육십령 고개에 파견하여 일본군의 진격을 막도록 하였다. 또 금산에 주둔한 일본군이 무주(茂朱)를 함락시킨 후 장수로 진격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주와 장수의 경계에 관군을 파견하여 일본군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주 입성을 위해 일본군이 웅치(熊峙)와 이치(梨峙)에서 조선의 관군이나 의병들과 격렬하게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서(史書)에는 웅치와 이치 전투에 대한 사실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데 비해 장수현의 동향이나 전황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진왜란 발발 당시 장수현의

여러 상황과 백성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오희문(吳希文 ; 1539~1613)이 쓴 『쇄미록(鎖尾錄)』을 살펴보면 전쟁 발발 당시 장수현의 상황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오희문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달 전인 선조 24년(1591) 11월에 서울을 떠나 전라도와 경상도에 살던 친척들을 찾아보고 또 도망하거나 호적에 누락된 채로 삼남 지역에 살던 자신의 노비들을 추쇄(推刷)하고 이들로부터 신공(身貢)을 받기 위해 남행(南行)을 결행하였다. 그가 남행을 하게 된 데에는 마침 그의 처남(妻男)인 이빈(李贇)이 장수현의 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것도 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 영동과 전라도 영암(靈巖)에 살던 내외 친척들을 두루 방문하고 장수현으로 돌아온 오희문은 때마침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바람에 가족이 살던 서울로 가지 못하고 이곳 장수에 머물면서 피난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이때 일종의 피난일기인 『쇄미록』을 썼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이 『쇄미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발발 전후 장수현의 관군과 의병들의 활동 상황과 일반 백성들의 동향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2. 『쇄미록』에 대한 소개

『쇄미록』은 오희문이 선조 24년(1591)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왕 34년(1601) 2월 27일까지 쓴 만 9년 3개월간의 일기로서 모두 7책으로 이루어져 있다.[2] 책의 표지에는 각각 일기를 쓴 해의 간지에 따라 일기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기명과 수록 기간 및 분량 등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2) 『鎖尾錄』과 吳希文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제와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신석호, 「해제」, 『쇄미록』, 국사편찬위원회, 1962.

徐炳沛, 「<쇄미록> 해제」, 『계간 서지학보』 8, 1992.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65, 1996.

李成妊, 「조선중기 吳希文家의 商行爲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8, 1999.

「조선중기 양반의 경제생활과 재부관」, 『한국사시민강좌』 29, 2001.

<표 1> 『쇄미록』의 체제와 구성

책수	日記名	기간	분량
1	壬辰南行日錄 壬辰日錄	辛卯(1591) 11월 ~ 壬辰(1592) 6월 壬辰(1592) 7월 ~ 같은 해 12월	121장
2	癸巳日錄	癸巳(1593) 1월 ~ 같은 해 12월	113장
3	甲午日錄	甲午(1594) 1월 ~ 같은 해 12월	121장
4	乙未日錄 丙申日錄 丁酉日錄	乙未(1595) 1월 ~ 같은 해 12월 丙申(1596) 1월 ~ 같은 해 12월 丁酉(1597) 1월	194장
5	丁酉日錄	丁酉(1597) 2월 ~ 같은 해 8월	63장
6	丁酉日錄 戊戌日錄	丁酉(1597) 9월 ~ 같은 해 12월 戊戌(1598) 1월 ~ 같은 해 12월	86장
7	己亥日錄 庚子日錄 辛丑日錄	己亥(1599) 1월 ~ 같은 해 12월 庚子(1600) 1월 ~ 같은 해 12월 辛丑(1601) 1월 ~ 같은 해 2월 27일	117장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책의 수록 기간과 분량이 각기 다르다. 대체로 1책부터 3책까지는 각 책마다 거의 1년 동안 쓴 일기로 되어 있는 데 반해 4책은 2년 1개월 동안, 5책은 7개월 동안, 6책은 1년 4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책은 2년 2개월 동안 쓴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쇄미록』을 앞에서 피난일기라고 소개하였으나 제 1책의 앞머리에 있는 「임진남행일록(壬辰南行日錄)」은 엄격하게 말하여 일기가 아니다. 구체적인 작성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은 이 일록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묘년 즉 선조 24년(1591) 11월 27일부터 이듬해인 같은 왕 25년(1592) 6월 28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요약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록들은 모두 거의 하루하루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들이다. 다만 계사년 즉 같은 왕 26년(1593) 1월 14일부터 같은 해 3월말까지 45일간은 그가 전염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위 와병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앞의 「임진남행일록」처럼 훗날 축약하여 기록하였다.

이 『쇄미록』은 오희문이나 그의 가족들이 전라도 장수와 충청도 홍주(洪州), 임천(林川), 아산(牙山) 및 강원도 평강(平康) 등지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쓴 일기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個人史)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당시 오희문은 장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장수와 그 인근 고을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전쟁 중 여러 곳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그나 그의 가족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전쟁 중의 사회상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처남과 사위 및 아들 등을 비롯한 그의 친지들이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그들

을 방문하며 보고 느꼈던 지방제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 일기의 사이사이나 책의 끝에 그가 얻어 볼 수 있었던 각종 공문(公文)이나 통문(通文) 등이 소개되어 있다. 예컨대 「임진남행일록」 뒤에 <선조(宣祖) 교서(敎書)>, <영동인 통문(永同人 通文)>, <전라도 전 동래부사고경명 격(全羅道前東萊府使高敬命檄)> 등이 전사(轉寫)되어 있는데 이 공문이나 통문들 중에는 다른 책에는 실려있지 않은 중요한 사료(史料)들도 있다. 따라서 이 『쇄미록』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을 비롯하여 그 시대의 사회상과 지방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3. 왜란 직전의 군사 활동과 백성의 동향

일반적으로 조선이 일본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으며 그렇게 된 원인은 김성일(金誠一)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선조는 일본과 수교(修交)를 위해 먼저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하여 일본의 실정(實情)과 대륙 침략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저의(底意)를 정탐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1590년에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을

각기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을 하였다. 이들은 1년 동안 일본 내의 여러 곳을 살펴보고 또 풍신수길 등 많은 인물들을 만난 뒤에 귀국하였다. 그런데 귀국 후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황윤길과 김성일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兵船)을 제작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필경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한 데 반하여 김성일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조정의 여러 신하들의 의견도 당(黨)에 따라 크게 나뉘어 격론을 벌였으나 마침내 김성일의 견해를 좇아 전쟁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으며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에게 참패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通說)이다.

그러나 비록 당시의 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나 군사 활동은 여전히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희문이 장수에 도착한 이듬해 3월 17일에 망운정(望雲亭)이라는 정자(亭子)에 올라 군사들의 진법 훈련(陣法 訓練)을 관람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정자의 이름은 명종대(明宗代)에 이 곳에 수령으로 부임한 소수(蘇遂)가 어버이를 생각하여 붙였다고 하는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오희문은 당시의 현감인 이빈 등과 함께 이 곳에 올라 군사들의 진법 훈련을 관망하였던 것이다.[3]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군사 훈련이나 군사 활동을 소홀히 했을 때에는 순사(巡使)나 병사(兵使)로부터 해당 수령이나 담당 관리들이 처벌을 받았다. 오희문은 임진년 3월 22일에 영암(靈巖)에 살던 누이 집을 방문하러 가던 길에 장흥부(長興府)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장흥부사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 고을인 해남군수(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이 찾아 왔다. 변응정이 그를 찾아온 까닭은 변응정이 그의 인척(姻戚)이었으며 또 그의 아들인 오윤겸(吳允謙)의 어릴 때 친구였기 때문에 그가 이 곳에 들렸다는 전갈을 듣고 인사차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변응정은 이 때 순찰소(巡察所)에서 곤장 15대를 맞고 오는 길이었다. 수령인 그가 곤장을 맞은 것은 군무(軍務)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었다.[4] 순찰소는 순찰사가 자기의 관할 지역을 순시할 때 임시로 머물던 곳으로 당시의 순찰사 이광(李洸)은 장흥부와 인근 고을을 순시하던 중이었는데 변응정이 군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

---

3) 是月(3월-인용자 註)十七日 擧衙登望雲亭 觀習陣…亭內蘇公遂氏作宰 因思親而名焉云

4) 翌朝(3월 23일 아침-인용자 註) 邀我對飯 海南倅邊公應井 適自巡察所被杖十五度而來 因軍務之故也… 邊也乃余姻戚… 亦允謙少年友也

고서 즉시 그를 불러 이와 같이 처벌하였던 것이다.[5]

한편 순찰사가 장흥부와 인근 고을을 순시 중이었기 때문에 장흥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온 고을이 부산한 모습이었다. 오희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 고을[장흥부]은 남쪽 지방의 큰 고을이다. 순찰사(巡察使)의 순시(巡視)가 임박하자, (이 고을에서도) 성(城)을 수리하고 호(壕)를 파며 군사를 조련(調練)시키고 병기(兵器)를 수리한다. (아울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많이) 모아놓고 관사(官舍)를 수리하며 (또)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순찰사의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고 노력한다.[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특별한 대책을 비록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나 군사 활동은 계속하고 있었다. 각 고을에서는 군사들에게 진법 훈련을 시켰으며 성곽(城郭)을 수리하고 병기를 정비하는 등 군사 훈련이나 군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잘못이 있었을 때에는 일반 군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지휘하던 수령들조차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

5) 다만 이 때 잘못했다는 군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가리키는 지는 관련 자료가 없어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6) 此府(長興府를 가리킴-인용자 註)南中巨邑 巡察當臨巡到 修城鑿池 鍊兵利器 聚饍畜旨 飾屋鮮皿 欲免彼怒

그러나 순찰사의 순시는 예로부터 많은 폐단을 낳았는데 임진왜란 직전에는 이러한 폐단이 더욱 심해져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 같다. 성곽을 수리하고 병기를 고치는 등 여러 군무(軍務)를 순찰사 순시에 맞추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철에도 징집되었으며 그 결과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못해서 살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연히 징집을 고달프게 여기고[7]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이를 기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심 이반(民心離叛) 현상은 전라도 뿐 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것이 사실은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에게 참패를 당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사실은 『쇄미록』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 우선 경상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이 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흩어져 (그를) 막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그 도(道 ; 영남을 가리킴-인용자 註)의 방백(方伯)인 김수(金晬)가 지난 해 초부터 농민들을 많이 징집하여 지키지도 못할 성(城)을 쌓았는데 올 봄에 이르러서도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자연히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김매야 하는 때를 놓치자 (이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

7) 凡百之具 一時竝擧 民甚苦之

였다. 이들은 심지어 "굽은 성[曲城]을 높이 싼들 누가 능히 적을 막으리오. 성(城)은 성(城)이 아니며 백성이 곧 성(城)이라네" 라는 가요(歌謠)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좌도(左道)의 병사 신길(兵使 申砧)은 군대의 위엄을 세우고자 하여 큰 곤장을 물에 불려(서 가지고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군사들에게) 엄한 형벌을 내려 매를 맞다 죽은 군사가 몹시 많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를) 분하게 여기고 원망한 마음을 가져 (속으로) 모두 적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왜적이 쳐들어오는) 환란이 일어났지만 (백성들 중의) 한 사람도 의기(義氣)를 내어 적을 토벌, 군부(君父)의 수치(羞恥)를 씻어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숲 속으로 도망하여 한 순간의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였다.[8]

경상도 순찰사가 성곽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동원하여 농사철이 되어도 돌려보내지 않고 또 병사가 위엄을 세운다는 핑계 아래 불린 곤장으로 백성들을 때려죽이는 일이 속출하자 백성들은 자연히 조정을 원망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동요를 만들어 부르고 심지어는 일본군이 쳐들어오기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여 하루아침에 경상도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고 파죽

8) 民心渙散 莫能禦之者 其道方伯金晬(原註) 自去年初 多驅南畝之民築不守之城 至於今春 尙未畢役 耕芸失時 怨苦盈路 至作歌謠曰 曲城高築 誰能守敵 城非城也 百姓爲城 左道兵使申砧(原註) 欲立軍威 大杖烹水 到處嚴刑 斃於捶下者甚多 人懷憤寃 皆思敵至 而一朝禍起 無一人奮義討賊 以雪君父之恥 逃竄林藪 欲保晷刻之命

지세로 진격하여 부산에 상륙한 지 보름 여만에 서울까지 함락시켰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심 이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심이 크게 이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한 후 백성을 징발하거나 혹은 의병을 모집할 때에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다음의 사료(史料)는 민심의 이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 (민심이 이반한 것은) 비단 영남 한 지역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지역(전라도를 가리킴-인용자 註)의 인심 역시 그러하여 징발(徵發)된 군사들은 (집합 장소에) 모이기도 전에 미리부터 도망하여 흩어질 생각부터 하였다. (그들은) 거짓말에 (쉽게) 선동되었으며 (그래서 일본군을 물리쳐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었다. (백성들은 적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집안 살림을 땅에 묻거나 혹은 딴 곳으로 옮겨 (만일) 적이 (자기의 고을에) 들어오기만 하면 (싸우지도 않고 곧바로) 도망해 버리려고 대비하였다. (심지어) 이름이 병적(兵籍)에 올라있는 백성들조차 (징발에 응하지 않고) 혹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적이 오면 남들보다) 먼저 달아나고 혹 (징발에 응했더라도 출정) 도중에 도망쳐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완산통판(完山通判) 이성임(李聖任)이 우주창(牛朱倉)에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흩어졌으며, 전 첨사(前 僉使) 백광언(白光彦)이 금구현(金溝縣)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는데 이들 또한 모두 도망해 버렸다고 하니 슬픈 일이다. 인심이 이러하니 비록 제갈공명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들 어찌 능히 수습하겠는가.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9]

---

9) 非但嶺南一路如此 此道人心亦然 徵兵未至 先懷潰散之心 訛言煽動

합천(陜川), 초계(草溪), 고성(固城), 진주(晋州) 등지에서는 육적(陸賊)의 빈번하게 출현하여 심지어 환한 대낮에도 관가(官家)의 창고에서 (물건을) 도적질해 간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왜적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망하여 흩어졌던 (우리의) 군졸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떼로 모여 도적질을 한 것에 불과하다.[10]

왜적이 우리 나라에 침략한 이후로 영남사람 중에 그들에게 투신(投身)하여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혹은 왜적과 붕당(朋黨)을 맺어 일본말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마을로 몰려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왜적이 온 줄 알고 놀라서) 도망치는데 (이 틈을 타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무리들도 역시 많다고 한다.[11]

이와 같이 그 동안 과중한 군역이나 인력 동원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임진왜란이 발발된 이후 군졸로 징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징발되어 전투에 참여하였더라도 기회만을 엿보다가 틈이 나면 언제든지 도망쳤다. 그런데 이들은 도망한 후에 살 길이 없

人無固志 預使家藏或埋或徙 以待賊至而走避 名在兵籍者 或在家而先走 或半塗而還逃 且聞完山通判李聖任 駐兵牛朱倉 而一朝潰散 前僉使白光彦 統軍金溝縣 而亦皆逃去 嗟呼 人心如此 雖使孔明復起 安能收拾 良可痛哉

10) 陜川草溪固城晋州等地 陸賊熾發 至於官倉 白晝偸取 此不過散亡軍卒 不堪飢餓 群聚爲盜也

11) 聞倭賊入境之後 嶺南之人 投入向導者甚多 或結爲朋儻(黨의 誤-인용자 註) 作爲倭聲 亂入閭里 人皆逃散 掠奪財産者 亦多云云

자 오히려 도적으로 변하여 관가의 창고를 털어 물품을 탈취해 가기도 했으며 마을에 들어가 약탈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에는 일본군의 향도(嚮導)가 되어 침략에 앞장서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록 임진왜란 발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나 당시에 민심이 얼마나 이반(離叛)되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또 이러한 민심 이반으로 말미암아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일본군과의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치루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4. 왜란 직후 전라도의 관군과 의병의 대응

임진왜란 발발 소식 즉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해 부산진과 동래부가 함락했다는 소식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이틀 후인 4월 16일에 전해졌다. 이 날 오전에는 부산 앞 바다에 왜선(倭船) 수백 척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그리고 오후에는 동래와 부산이 모두 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하고서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건이 조선 전역으로 급속히 그리고 또 근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왕이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까지 피난해야 할 정도의 역사적 대 사건으로까지 기록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갑작스런 일본의 침략에 놀라기는 했지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동래와 부산이 맥없이 함락한 것도 기껏해야 그곳의 수령들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성(城)을 굳건히 지키지 못한 실책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다.[12]

그러나 몇 일 후인 4월 19일부터는 상황이 아주 급박해져서 전투에 대한 소식도 하루에도 세 차례나 장수현으로 날아들었다. 훌륭한 장수와 잘 훈련된 군졸들도 일본군이 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스스로 무너져서 아주 큰 고을이나 비록 작으나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군현(郡縣)조차 하루도 못되어 침략을 당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은 곧바로 서울을 향해 진격을 하였는데 이들이 진격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신립(申砬)과 이일(李鎰) 등을 급히 파견하여 조령(鳥嶺)에서 이들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그 결과 일본군은 커다란 저항없이 충청도와 경기

---

12) 四月(인용자 보충)十六日 □□傳道倭船數百隻 現形於釜山 夕聞釜山東萊皆見陷 不勝驚愕 意爲城主之不堅守也

도로 진격하였다. 그러자 왕은 할 수 없이 서울을 떠나 서북 방향으로 피난길에 올랐다.[13]

이와 같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들끓어도 장수현은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 우선 일본군이 고을 안으로 침입한 적이 없었으며 그래서 고을 주민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예전과 같이 하였다. 오희문도 이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평상시와 같이 밥상을 마주 대하고선 문득 피난길에 모진 고생을 할 어머니와 가족들을 머리 속에 떠올라 목을 놓고 울다 끝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14]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족이 생각나 잠 못 이루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15]

그러나 장수현에서도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비교적 평온한 생활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 경상도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이 일본군의 잔혹한 침략상을 전하면서 민심이 흉

---

13) 四月(인용자 補充) 十九日… 自此後嶺南之報變 日夕三至 猛將猩卒 聞風而先潰 大府堅城 不日而失守… 直向京城 踰山越江 如入無人 申砬(原註)李鎰(原註)兩將 朝廷之所恃而爲固 授鉞來禦 中道見敗 鳥嶺失險 賊入中原 大駕西巡 都城不守

14) 此縣 時無警急之事 朝夕之供如古 每對案 深念老母妻子之事 何地何山 糊口飢餓 相與爲哭 哽咽痛泣 淚自橫流 何忍何心擧匙下咽

15) 身在安居之地 寢食如故 而使老母妻子姊妹 獨逢此患 雖欲與老母妻子弟妹 共宿草野 共食草根 其可得乎 言之至此 長慟欲絶

흉해졌으며 또 서울을 함락시킨 일본군이 5월 초에 조선을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크게 동요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곧 전라도로 밀려닥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전라 감영(全羅 監營)으로부터 근왕(勤王)할 병사를 모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서서히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감돌았으며 전쟁을 대비하느라 분위기가 어수선했다.[16]

한편 국왕이 서울을 버리고 평안도로 피난을 가고 뒤이어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다. 유팽노(柳彭老)와 양대박(梁大樸) 등이 순창과 남원에서 각기 거의(擧義)하여 각지에 격문(檄文)을 돌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을 호소하였다.[17] 마침 장수에도 영동(永同)과 고부(古阜)에서 보낸 격문(檄文)이 도착하였다. 영동의 유림들은 5월 17일에 영동의 사청(射廳) 근처에서 모여 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일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고부의 유생 김현(金晛) 등은 5월 27일에 전주의 삼례역(參禮驛) 앞에서 모여

---

16) 今月(五月-인용자 註)十六日 主兄領義兵行到鎭安 七八人逃還… 列郡之兵 逃散者極多… 其後散卒 稍集防禦 由大路而直上 巡察自龍安渡江 由忠淸內路而上 皆此月二十日 自本道離發云

17) 하태규, 「湖南義兵의 潭陽會盟과 錦山戰鬪」, 『轉換期 湖南地域史研究」, 211~245쪽 참조.

거의하자고 통고하였다.[18]

그러나 불행하게 장수현에서는 이 격문에 응하여 영동의 사청이나 전주의 삼례역 모임에 참여토록 권장하거나 혹은 직접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19]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의병 참여를 기피하는 모습이었으나 곧 얼마 안되어 의병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서 장수현에서도 의병에 자원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고[20] 또 관아에서도 이들 의병들에게 군량과 무기 등을 지원해 주었다.[21]

6월 초순에 근왕을 위해 달려갔던 전라도의 병사들이 용인(龍仁) 근처에서 일본군과 만나 싸웠으나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미리 요새(要塞)를 점거하고 진지를

---

18) 이 격문은『쇄미록』19~20쪽에 수록되어 있다.

19) 永同之義士 結侶同志 奮起復讎 作文告諭 欲與諸烈士擧事 去十七日會議于其地射廳云 古阜之烈夫 亦作文通諭列郡 亦與一道義士 擧義討賊 今二十七日聚于完山參禮前云… 此縣(長川縣-原註)僻在峽中人民鮮少 十室之邑 尙有忠信 兩邑檄文多到此 無一人興起者 良可嘆也

20) 湖城監(李柱를 가리킴-인용자 註) 以王室末裔 亦自奮忠 承元帥指揮 月初(六月初-인용자 註)下來完山 已令自募忠義衛 應募者亦多此縣忠義 應募者亦六七人矣(26쪽)

물론 이때 호성감 이주의 모병(募兵)에 지원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충의위는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1) 此縣(長水縣-인용자 註)軍粮二駄 長片箭各五部 鐵丸百介 送至義兵(인용자 補充)軍所(30쪽)

구축하였으며 앞뒤로 마름쇠[鹿角]나 방패(防牌)와 같은 것들을 늘여 놓은 채 진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일본군이 자신들의 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분할 점거하기 위해 내려오는 군사들과 합류한 후 전투를 개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의 병사들은 험한 지세(地勢)로 말미암아 진군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방어사(防禦使) 곽영(郭嶸)이 앞으로 나가기를 재촉하자 여러 장수들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도보로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일본군 서너 명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어들고 달려나와 우리의 장수들을 단숨에 베이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조선의 군대는 선봉장(先鋒將) 백광언(白光彦)과 고부군수(古阜郡守) 이수인(李元仁) 등과 같은 걸출한 장수를 잃어 전력에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22] 다음 날 일본군은 서울에서 내려온 부대와 합류하여 방어사가 있던 진을 포위 공격하여 마침내 무너뜨리고 말았다. 조선의 병사는 각종 무기와 군량 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순찰사 이광은 겨우 목숨만

---

22) 六月(인용자 補充) 初五日 龍仁行院後 賊據險結屋 前列鹿角 又設防牌 入屋不出 我軍地險不能進 防禦使郭嶸(原註)傳令促進 諸將不得已 皆下馬步進 賊三四人 拔劍突出 亂擊如麻 死者相枕 前鋒將白光彦 古阜郡守李元仁 咸說縣監鄭淵 助防將李之詩 一時被刃而死 諸軍皆散 李白兩將 才勇出衆 人皆恃此爲固 而爲防禦使所迫 至於敗死 衆皆奮起(23쪽)

구하였다.[23] 한마디로 대 참패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사는 이와 같은 패배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순찰사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은 곧바로 수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여러 장수들을 임명하여 전주를 출발, 여산(礪山)을 거쳐 진을 친 후 군사들이 더욱 많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서울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었다.[24] 또 목숨만 구해 돌아온 순찰사 이광은 정병(精兵)을 선발하여 군산창(群山倉) 앞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국왕이 있는 행재소(行在所)로 가려는 계획 아래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군사를 차출토록 지시하였다.[25]

한편 관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거듭하여 참패를 당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영남의 곽재우(郭再祐)와 같은 의병장들은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었다. 곽재우는 날랜 군사 4명을 거느리고 3척의 적선(賊船)을 물리쳤으며 또 군사 13명만을 거느리고 가서 적

---

23) 初六日 又進戰 賊自京路建旗下來者甚衆 圍防禦使陣… 人皆驚亂諸將一時潰散… 我兵棄軍裝 或脫衣而走… 死者無數 巡察李洸(原註)…僅以身免(23쪽)

24) 兵使崔遠 聞巡察兵敗 已調數萬兵 分定諸將 今(六月-인용자 註)二十日 自完山發行 已到礪山 待其軍聚 直向京城云(26쪽)

25) 六月(인용자 補充) 十六日朝 巡察李洸(原註)調兵關來到 更抄精兵自群山倉前乘船 直到行在所云(26쪽)

선 11척을 격파하였다.[26] 또 영동(永同)의 전직 관료 몇몇은 황간(黃澗)에 거점을 두고 있던 적의 기병(騎兵) 30여 명이 마을에 들어와 집들을 불태우자 활을 쏘며 추격하여 이들을 모두 쫓아 버렸다고 한다.[27] 또 경상도의 의병장인 전 좌랑(前 佐郞) 김면(金沔)은 거창(居昌)의 병사 600여 명을 거느리고 서울로부터 내려오던 일본군과 성주(星州) 무계진(武溪津)에서 싸워 적선 2척을 포획했는데 그 중 한 척에는 서울의 궁중에서 탈취한 각종 보물과 임금의 어진(御眞) 및 각종 글씨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28]

의병들이 이와 같이 혁혁한 전과를 올리자 사람들은 관군보다는 의병에 대해 더욱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희문도 의병들에 대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일기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 (그래도) 믿고 조금이라도 안심할 것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병(義兵)의 움직임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여러 고을의 군사가 (의병을 돕지 않고) 모두 서로 바라보기만

---

26) 聞嶺南儒生郭再祐者 獨奮其勇 自率猛士四人 逐其賊船三隻 其後又率十三人 擊走十一隻云(14쪽)
27) 聞黃澗入據之賊 三十餘騎 來犯永同 先焚閭閻 呼聲亂入 品官兩員官人數人 追逐亂射 則盡皆散去(14쪽)
28) 慶尙義兵將前佐郞金沔 率居昌兵六百餘人 邀擊自京下來之賊於星州武溪津 捕獲二船… 一船之內 皆載宮中寶物 至於御諱所書之物多得云(27쪽)

하여 (의병이 견디다 못해 그의) 절반이 도망쳐 흩어졌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는 국가를 구하는) 큰 일을 어떻게 능히 해 낼 수 있겠는가? (관리들이) 평일에 녹봉(祿俸)을 받아먹을 때에는 각각 스스로 (관리됨을) 자랑하여 모두 충성된 마음을 (일부러) 드러내고자 노력하더니, 위태로운 일을 당한 오늘날에는 임금이 치욕(恥辱)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연장할 것만 생각하여 수백 년이 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편안히 있을 곳을 알지 못한다.[29]

물론 의병장 대부분이 유생(儒生)이나 문관(文官) 출신이어서 군무(軍務)에 종사한 일이 없으며 무기나 각종 장비도 열악하고 수적으로도 관군에 비해 열세(劣勢)였다.[30] 그러나 관군은 강제로 차출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장수와 군졸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았으며 그래서 적과 싸우다 장수 한 명이 물러나면 군졸들은 바로 무너져 흩어져 버렸다. 이에 비해 의병들은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장수가 쓰러진다고 하여도 군졸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곤 했다. 그래서

29) 所恃而粗安者 今此義兵之擧 而但聞列邑之軍 皆懷顧望 爲半逃散云 大事何能得濟 食祿平時 各自矜飾 皆効願忠之心 臨危今日 罔念君父之羞 先懷延命之所 數百年宗社 未知稅駕之地(8쪽)

30) 義兵將皆儒者 不閑(關의 誤-인용자 註)軍旅 機械亦齟齬 成功未可必也 然前日大軍之敗 軍情不一 各心其心 故一見賊而先潰 令(今의 誤-인용자 註)此義兵 皆自赴募 不待人强 衆心齊一 雖小可敵矣(30쪽)

당시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관군보다는 의병에게 훨씬 더 믿음이 있었다.31)

5. 왜란 후 장수현의 대응 상황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발발 이후 장수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피난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군이 침략하자 장수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피난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군을 조령에서 방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장수현에 전해지자 이곳 백성들은 피난에 대해 점차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피난을 할 경우 당장 먹고 살 식량이 비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장수 관내에 들어오기 직전에야 피난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장수현의 백성들은 일본군이 장수 관내로 쳐들어오기 직전인 6월 26일에 피난을 하였다. 이 때 남녀가 세간을 등에 짊어지거나 머리에 지고 산중으로 피

---

31) 巡察之儐師 皆由於兵多 將拙不能御衆 使人心不服 衆情不一 故一人退步 諸軍幷散 今此高而順敬命(原註)之兵 初非威勒 皆自赴義 衆心齊一 各自奮勵 必成大功 跂足以待(26쪽)

난하는 바람에 마을은 텅텅 비어 적막한데 오히려 피난민들이 머물던 산중은 시끌벅적하였다고 한다.[32]

그러나 백성들은 일본군의 침략에 임박해서 피난을 하였지만 관아의 아속(衙屬)들은 피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하였다. 일본군이 부산에 착륙한 후 경상도의 여러 고을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조령을 넘어 서울을 향해 진격한다는 소식을 접한 아속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었다. 특히 4월 말경에 경상도에서 넘어온 피난민들로부터 일본군의 잔혹상을 전해들은 아속들은 피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점차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관청의 여러 집기와 물품 중 긴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관아(官衙)에 그리고 의복과 같은 것들은 나중에 현사(縣司)의 판하(板下)에 묻었다.[33]

이어서 아속들은 장차 피난할 장소도 물색하였는데 그곳은 현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석천사(釋天寺)였다. 석천사를 피난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이 사찰은 현(縣)과

---

32) 六月(인용자 補充)廿六日曉頭… 遠近民生 男負女戴 逃入山中 閭里一空 山林反爲非寂(30쪽)

33) 일본군이 7월 1일에 용담과 무주현을 함락시키고 곧바로 장수현으로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관에 있던 나머지 물건들을 다시 땅에 묻었다.

七月初一日… 賊已陷龍潭茂朱云 今明當到此縣(長水縣을 일컬음-인용자 註) 凡事預爲措備 官中之物 亦爲埋土耳(34쪽)

의 거리가 반식경(半食頃)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곳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고개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말을 타고는 가지 못하고 오로지 도보로 가야만 했다. 따라서 일본군이 이 곳까지 쳐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래서 장수 관내에서는 피난처로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고개에 올라섰을 경우에는 그 아래가 모두 한 눈에 내려다 보여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사찰 뒤의 골짜기가 매우 깊어서 적이 만일 쳐들어오면 이 골짜기로 깊이 들어간다면 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희문은 미리 사람들을 시켜서 골짜기에 숨을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무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임시로 지붕을 이어 놓도록 하였다.[34]

현감을 따라 장수현에 와서 내아(內衙)에 머물던 현감의 가족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석천사로 피난하였다. 현감의 서모(庶母)와 현감의 아들 등은 오희문과 함

34) 星州牧李德說繼室 乃金太淑季女也 去四月念後 避亂入山… 賊兵四散追捕 僅得逃來… 太淑仲子陪來 而詳言賊勢之熾張… 自聞此後 人心凶凶 衙屬亦有遠避計 先埋不關之物於衙中 後埋衣服於縣司板下… 釋天寺 乃衛(衙의 誤-인용자 註)屬欲避之所也… 距縣半息(食의 誤-인용자 註) 而有大嶺 踰嶺之時 勢不騎越 僅可步陟 嶺甚高峻故也 避亂之地 此境內 無如此寺 而但上嶺 則俯見無礙 是一欠也 然寺後有深洞 賊若犯境 則有更避深入之計 故先使李應一宗胤 審視可隱之處 因樹爲屋 臨時蓋覆之界(12~13쪽)

께 5월 초에 이 곳으로 피난하였다.[35] 다만 오희문은 계속해서 석천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 관아로 나와 이 곳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가 이 때 인근의 여러 고을에서 장수현에 도착한 공문과 의병장들이 보낸 통문을 보았던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36] 또 장수현감과 관아에서 대면(對面)하고 또 수작(酬酌)을 하고 잠을 잤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37]

현감의 부인은 5월 초에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하지 않고 적이 고을의 접경에 이를 때까지 내아(內衙)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적이 고을에 침입하기도 전에 미리 내아를 비워놓고 피난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온 고을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할까 염려해서였다.[38] 현감의 부인이 피난을 한 것은 그의 가족들이 피난한 지 거의 두 달이 지난 6월 26일이었으며 이때 아속(衙屬)들과 함께 석천사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

35) 妻庶母 月初(五月初-인용자 註) 率英眞 先歸釋天寺(13쪽)

36) 宣祖의 敎書, 永同人 通文, 全州儒生通告左道列邑文, 古阜儒生檄文, 慶尙道儒生郭再祐書, 全羅道前東萊府使高敬命檄, 封世子詔, 逆賊鄭汝立緣坐疏放赦, 都巡察李洸檄文, 安陰居忠義衛鄭惟榮校書正字朴明榑等通文이 모두 이 기간 동안에 장수현에 도착하였으며 오희문은 현감 이빈의 도움으로 이들 공문과 통문을 모두 볼 수 있었다.

37) 是日(6월 16일-인용자 註)昏 與主兄李贇(原註)對坐衙軒 各說亂移之事… 因酌秋露一杯 又各飮一杯 至於四五盃 因致半醉(27쪽)

38) 嫂主則聞賊犯近而欲避 若衙內先避 則必一縣恐動 徐觀處之之計耳

그런데 7월 1일에 일본군이 장수의 인근 고을인 용담현과 무주현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39] 석천사에 피난하였던 현감의 친척과 아속들은 다음 날 서둘러서 사찰 뒤 골짜기에 마련된 임시 피난소로 자리를 옮겼다.[40] 그러나 이 곳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더욱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옛날에 암자가 있었는데 이전에 아속들이 석천사의 중들과 함께 피난처의 하나로 선정하고서 표시를 해놓은 곳이었다.[41] 이와 같이 거듭 깊은 골짜기로 피난처를 옮긴 것은 용담과 무주를 함락시킨 일본군의 사기가 탱천하여 깊은 사찰까지 낱낱이 뒤져 피난민들을 수색해 낼 가능성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시 피난처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7월 초순임에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옷을 입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추웠으며 게다가 비까지 자주 내렸다. 당장 여름 옷만을 가지고 피난한 오희문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장마철과 같이 비까지 자주

---

39) 七月初一日… 賊已陷龍潭茂朱云 今明當到此縣(長水縣을 일컬음-인용자 註)(34쪽)

40) 七月(인용자 補充) 初二日…衙屬更入寺後深谷(34쪽)

41) 七月(인용자 補充) 初三日… 食後 又與衙屬裝束 更入深谷 山愈高峻 而險側無路… 有岩斗起… 其下冷泉竇出 古有佛菴… 前日應一與宗胤 率僧輩 探歷諸處 無愈於此 斫木立標 故來尋此處(36쪽)

내렸다. 바위 앞 계단 위에 지붕과 바닥을 초목으로 얽어서 만든 임시 피난처는 적은 비에도 견디지 못하여 천장에서 비가 줄줄 세었다. 바닥도 자연히 젖어서 습기가 위아래에서 스며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42] 오희문은 이러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마비되어 쇠덩이와 같이 굳어졌으며[43] 거의 한 달이 지난 8월 초순에는 하혈(下血)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냉하고 습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44] 그런데 이와 같이 날씨가 습하고 쌀쌀한데도 피난처에는 모기들이 많아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다.[45] 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가뭄이 들어 바위틈에 있던 샘물이 자주 말랐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쌀을 지고 물 있는 곳까지 몇 리를 걸어가 밥을 지어 와야 했다.[46] 오희문과 아속들은 이와 같이 하루하루가 괴로운 피난생활을 9월 21일까지 하고서 그 다음 날 하산했다. 일수로 치면 86일 간을 깊은 산 속에서 피난생활을 하였던 것이다.[47]

---

42) 去夜宿岩下 山高洞邃 至於夜半 冷氣砭肌 不可忍焉… 岩前階上 結屋一間 盖以草木 藉以草木 以爲休息之所… 頃之山雨驟至 上漏下濕 艱得而渡(37쪽)

43) 終日蹲坐溪邊石上 腰下極冷如鐵(39쪽)

44) 八月初一日… 自余入山 今將月餘… 今日始見下血 未知某日始出也 此必由於久處冷濕之地也(49쪽)

45) 日夕蚊蚋叢集 是不可支(35쪽)

46) 七月(인용자 補充) 十五日… 近因天旱 巖泉將竭 朝夕負米炊飯於數里外(42쪽)

47) 衙屬今日下山還衙 自六月廿六日上寺 今日始還衙舍 計其日數 則八

다음으로 일본군이 침략하자 장수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6월 중순이 되자 일본군이 전라도에 침입하기 위해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경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장수에 머물던 관군과 의병은 이들 접경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병사를 배치하여 순찰과 방어 임무를 강화하였다. 6월 중순부터 장수현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황(戰況)을 알기 쉽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일본군이 경상도 안음(安陰) 등지에서 육십령(六十嶺)을 넘어 장수현으로 진격한 후 곧바로 전주로 입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전 수사(前 水使) 이계정(李繼鄭)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오자 6월 13일에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하여 육십령에서 일본군을 막도록 했다.[48] 그런데 사실 이 곳에는 이미 전 첨사(前 僉使) 남응길(南應吉)이 와서 매복을 하고 있었으나 혹시 그가 이곳을 지키지 못할까 염려하여 무신 고관(武臣 高官) 출신인 이계정

十六矣(97쪽)

48) 육십령은 장수읍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신라시대부터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 혼자서 넘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행인들이 이 고개 밑에 이르러 60명이 차면 그때 바야흐로 넘었기 때문에 육십령이라고 불리웠다 한다.(1928년간, 『長水誌』 권1, 「山川」 참조)

으로 교체하였던 것이다. 이계정은 군관(軍官) 16명과 장수와 임실 및 진안 등지에서 차출한 1,000여 명의 군사들을 나누어 세 곳의 요해처(要害處)에서 지키고 있었다.[49]

<표 2> 임진년 6월 장수현과 인근 고을의 전황

날 짜	인근고을의 상황	장수현의 상황	비고
06/13		전 수사(前 水使) 이계정(李繼鄭)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 육십령(六十嶺)에서 적을 방어토록 함.	26쪽
06/16	적이 지례현(智禮縣) 함락. 적이 무주의 무풍창(茂豊倉) 부항(釜項) 침범.		28쪽
06/19		현감 이빈이 순찰사 부름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진안과의 경계인 덕안원(德安院)에 도착.	28쪽
06/22	무주 율현(栗峴)에 적의 척후병이 나타남.		30쪽
06/23	적이 금산(錦山) 함락.		30쪽
06/26		아속(衙屬)이 석천암(釋天菴)으로 피난.	30쪽
06/30		현감이 육십령 방어와 관련하여 현의 경계를 순시.	34쪽

금산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7월 초에 연이어 용담과 무주를 함락시켰으며 그 후 진안을 거쳐 전주로 향하였다. 7

---

49) 六月十三日 前水使李繼鄭起服 定爲助防將 來鎭此縣東六十峴 峴乃安陰地界 而恐賊踰此而來犯也 前者伏兵將前僉使南應吉來禦 而恐其不支 以秩高武臣來助 軍官十六員 此縣軍及任實鎭安軍並一千餘名分守三處 以遏橫衝(26쪽)

월의 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은데 장수현의 인근 세 고을 즉 용담과 무주 및 진안이 함락한 이후 장수현에서는 자연히 진안과 무주에서 장수에 이르는 길목인 중대령(中臺嶺)과 싸리재[柮峴]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하였다. 이에 따라 장수현감과 당시 이 고을에 와 있던 구례현감은 7월 10일에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중대령과 싸리재에 나가 매복을 하고 적을 기다렸다.[50] 이후 이들은 전황(戰況)에 따라 송치(松峙)와 나치(羅峙) 또는 천잠리(天蠶里) 등지로 진을 옮기며 일본군을 막았는데 이 곳들은 모두 진안과 무주 및 용담에서 장수에 이르는 길목이거나 혹은 이 길목에 있던 요해처였다.[51]

<표 3> 임진년 7월 장수현과 인근 고을의 전황

날 짜	인근고을의 상황	장수현의 상황	비고
07/01	용담·무주 함락.	관의 물품 등을 땅에 묻음.	34쪽
07/02		군량(軍糧)을 군민(軍民)에게 나누어 주고 동면(東面) 무녀가(巫女家)의 곡식 등을 소각.	37쪽

50) 求禮守亦率兵 設伏於縣北柮峴 恐賊自長溪繞出陣後也 主兄則領兵設伏於中臺嶺上 恐賊自鎭安·完山等處 潛踰來犯也(40쪽)

51) 七月(인용자 補充) 十七日… 賊已入中臺 留屯不去… 然寶城·南平領軍駐於縣天蠶里 彼衆我寡 恐不能禦也(42쪽)

七月(인용자 補充) 十一日… 寶城·南平·求禮三邑太守 領軍設伏於長溪北面松古介事 卽發向(44쪽)

七月(인용자 補充) 十六日 主兄則進羅峴陣所(46쪽)

07/06	진안 함락.		39쪽
07/07	웅치(熊峙)에서 전투.		40쪽
07/08	웅치를 넘어 전주로 향함.	현감이 현의 경계 10리에 진(陣)을 침. 적이 덕안원 원주(院主) 집에 침입.	39쪽
07/10		보성의 수령 등이 유현(杻峴)에서 복병(伏兵). 현감이 중대령(中臺嶺)에서 복병.	40쪽
07/14	적이 완산 성황당(城隍堂) 점거.		41쪽
07/16		적이 덕안원과 호천(狐川)의 민가 소각.	42쪽
07/17	진안의 적이 금산으로 철수.	중대령 점령, 덕안원 소각, 보성의 수령이 천잠리(天蠶里)에 주둔.	42쪽 44쪽
07/18	중대령의 적이 임실현에 침입. 전주를 공략치 못하자 우주창(牛朱倉)과 옥야창(沃野倉) 침입.		42쪽
07/19	전주의 적이 진안을 거쳐 용담으로 철수. 적이 장수현의 복병과 진이 있는 곳을 염탐.		42쪽 44쪽
07/20	전주·진안·용담의 적이 무주로 철수.		43쪽

07/21	적이 금산과 용담으로 철수.	보성수령 등이 송치에서 복병하다 진안으로 이동. 장수현감은 천잠면 웅연(熊淵)에서 복병.	43쪽 44쪽
07/24	적이 진산을 함락, 고산과 여산에 체류 중.		45쪽
07/26		현감 . 나현(羅峴)의 진(陣)으로 가다.	46쪽
07/27	무주의 적이 민가에 방화하고 약탈을 감행. 적이 용담을 경유 장수현 접경에 도착 염탐.		47쪽 48쪽
07/28	금산의 적이 옥천으로 이동.	보성수령이 장수현으로 돌아와 방어, 도망병 속출.	48쪽
07/29		장수현감이 천잠면에서 방어.	48쪽

관군과 의병들은 이상과 같이 인근 고을에서 장수현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진을 치고 일본군이 장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군이 장수현에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두 가지 계책을 세웠다. 그 중 하나는 일본군이 와서 식량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머물만한 곳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적들이 장

수에 침략하였더라도 먹고 머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곧 그들의 소굴로 퇴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적들이 식량으로 삼을 만한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7월 초1일 무주와 용담이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수현감은 적들이 곧 장수현으로 침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동안 비축했던 군량을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아가 곡식을 보관하고 있을 만한 민가들을 모조리 불태웠다.

> 관청에 비축했던 군량과 관청에서 보관하던 잡미(雜米)를 모두 군민(軍民)에게 나누어 주고 민가에 곡식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불태웠다. 이는 적이 양식을 보고 오래 머물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동면(東面) 무녀(巫女)의 집에는 비축했던 곡식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이를 불태우도록 했는데 이틀 동안 밤낮으로 타올랐음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52]

또 침략한 적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도 모조리 불태웠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장수현의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비록 전쟁 후기에 다른 고을의 사례이긴 하지만 9월 13일 무주의 예를 통하

---

52) 昨昨(7월 2일-인용자註) 官中所儲軍粮及官廳雜米 盡爲分給軍民等 民家有穀處 亦爲焚之 恐賊見粮久留也 東面巫女家 儲穀甚優 故亦令衝火 庫家火二晝夜不滅云云(37쪽)

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무주에서 물러나 금산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관군과 의병은 바로 그 다음 날 무주로 들어가 군사가 머물만한 곳을 모두 불태웠다.

> 적의 무리가 (서로) 약속하기를 금산에서 모여 전주를 공격하되 만일 이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한다. 그리고 이들은 무주의 객사(客舍)와 창고(倉庫) 및 누각(樓閣)들을 한꺼번에 불태웠다. 불태우지 않은 곳은 우리의 군사들이 (무주로) 들어가서 모조리 불을 놓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웠다. 이는 적이 다시 와서 머물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관가(官家) 근처에 있는 불타지 않은 민가도 역시 모두 불태웠다고 한다.[53]

이와 같이 장수의 관군과 의병은 일본군이 쳐들어 올 수 있는 길목이나 요해처에서 적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군이 장수를 침략하였을 경우 이들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도록 식량이 될만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고 이들이 머물만한 곳은 모두 소각하였다.

임진년에 8월과 9월 및 10월에 장수현에 머물던 관군과 의병이 일본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전황은 아래의

---

53) 賊徒約束曰 合聚錦山 進攻全州 若不勝 則還歸本國云云 茂朱客舍·倉庫·樓閣一時焚蕩 而未及燒處 則我軍入見 幷皆衝火 燒盡無遺 恐賊更來留在故也 官家近處 不付火人家 亦皆衝火云云(93쪽)

<표 4>, <표 5>, <표 6>과 같으며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대동소이하다. 즉 무주와 용담 및 진안에서 장수에 이르는 곳에 있던 요해처 즉 송치(松峙), 나치(蘿峙), 율치(栗峙), 중대치(中臺峙), 각치(角峙) 및 유현(枻峴) 등에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지인 무주와 금산 등지에까지 쳐들어가 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곤 하였다.

<표 4> 임진년 8월 장수현과 인근 고을의 전황

날 짜	인근고을의 상황	장수현의 상황	비고
08/02	적이 안성창의 민가를 소각.		50쪽
08/05	순창의 사수(射手)가 무주에서 적과 접전, 승리.		50쪽
08/06	광주목사 권율이 금산의 적을 정벌할 예정. 전군수(前郡守) 김종려(金宗麗)와 전찰방(前察訪) 남경성(南景誠) 등이 영동(永同)에서 적을 격파.	보성군수가 권율을 마중하기 위해 용담 송현(松峴)으로 감.	51쪽

08/09	권율이 충청도 승병과 함께 금산의 적을 토벌.	금산의 적을 토벌하기 위해 용담 송현에서 출발, 보성군수의 잘못으로 남평군수 전사.	53쪽 58쪽
08/10		이호연 등이 무주로 들어가 염탐하자 적과 접전.	58쪽
08/12		현감이 군사를 선발, 18일 내로 순찰사에게 인계.	61쪽
08/13	순찰사 이광 파면, 후임으로 광주목사 권율 임명.		62쪽
08/16	경기도 안성(安城)에 사는 서인(庶人) 홍계남(洪季男)이 의병 500명을 거느리고 적의 예봉을 꺾음.		69쪽
08/17	진산(珍山) 이치에서 동복현감 황진(黃進)이 적과 접전, 대승.		73쪽
08/18	의승(義僧) 영규(靈圭)와 의병장 조헌(趙憲)이 금산에서 적과 접전, 대패.		73쪽
08/21		현감과 순창현감이 나현(羅峴)으로 감.	72쪽
08/22		현감과 순창현감이 무주 접경 각치(角峙) 복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병사에게 소를 잡아 먹인 직후 적과 접전, 대승.	72쪽

08/23		우도(右道) 의병대장 최경회(崔慶會), 부장(副將) 고득뢰(高得賚) 등이 장수현에 들어옴.	73쪽
08/24		현감이 초현(綃峴) 진으로 감.	74쪽
08/25	보성군수는 용담 송현진에 있음. 순창 사수(射手) 50인이 무주에서 복병.	현감과 순창군수는 진으로 감. 의병 종사관 훈련봉사 곽천성(郭天成)이 160여 명을 거느리고 안성창에 주둔.	74쪽
08/27	금산의 적과 접전, 패배.	제주의 교생(校生) 김홍정(金弘鼎)이 의병으로 출육(出陸)하여 다른 의병과 함께 안성창으로 감.	76쪽
08/28	해남군수 변응정이 금산 전투에서 전사.		77쪽
08/29	충청좌도 청주 이하와 지례(智禮)에는 적이 없음.	현감과 순창군수가 의병장 장의현(張義賢)을 안성창에서 보고 무주의 적을 공격하기로 약속.	77쪽

<표 5> 임진년 9월 장수현과 인근 고을의 전황

날 짜	인근고을의 상황	장수현의 상황	비고
09/01		우의장 최경회가 현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나 전선으로 나가 적과 접전을 하지 않음.	78쪽
09/03		의병 부장 고득뢰가 병사 40명을 거느리고 왔음.	83쪽
09/04		현감과 고득뢰가 각치(角峙)의 복병 있는 곳으로 감.	87쪽
09/05		좌의장(左義將) 임계영(任季英)이 병사를 거느리고 현으로 들어옴.	88쪽
09/06		우의장 최경회는 현에 머물면서 갖은 폐단을 일으킴. 최경회의 부하가 적 1명을 참수. 무주의 유현(杻峴)과 소탄(召灘)에서 관군과 의병이 금산의 적군과 접전, 대승. 금산 가정자원(柯亭子院)까지 추격함.	88쪽
09/07		의병군관(義兵軍官) 김홍정(金洪鼎)과 강희열(姜熙悅)등이 장의현과 함께 무주의 적과 이틀 동안 접전.	89쪽

09/09		의병과 관군이 무주에 들어가 적과 접전.	92쪽
09/10	황간·영동의 적 300여 명이 금산으로 이동.		91쪽
09/12	금산의 적 1,000여 명이 무주로 이동.		93쪽
09/14	금산의 적이 무주의 적을 거느리고 돌아감.	적들이 무주에 다시 머물지 못하도록 각종 건물을 소각. 인준(引俊)이 200여 명의 승병(僧兵)을 거느리고 장수로 들어옴.	94쪽
09/15	무주의 적이 금산의 초현(綃峴)으로 이동.		94쪽
09/17	무주의 적이 금계(錦溪)로 이동.	순찰사가 공문을 보내어 현감은 용담과의 경계인 고양이고개[猫古介]로, 순창현감은 금산과의 경계인 숯고개[炭古介]로 이동하라고 지시.	94쪽
09/18		현감과 순창현감이 새로운 진으로 이동. 우의장과 승병장이 진안으로 되돌아 감.	94쪽
09/19	금산의 적이 옥천, 영동, 황간을 경유하여 금산(金山)으로 퇴각.		96쪽

09/20		금산의 적이 모두 물러갔다는 소문에 송현(松峴)의 장수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산으로 진격.	95쪽
09/21		현감이 진을 옮김. 곡성수령 정대민(鄭大民)이 현에 진을 침.	97쪽
09/23	금산의 적이 퇴각했다는 소문을 듣고 순찰사가 각 지역을 순시하기로 함.	현감이 곡성수령과 함께 웅연(熊淵)으로 감.	97쪽
09/24		방어사 명령으로 현감이 안음과의 경계인 육십령으로 이동.	97쪽
09/27		현감이 요해처(要害處)의 복병 현황을 살피러 감.	98쪽

<표 6> 임진년 10월 장수현과 인근 고을의 전황

날 짜	인근고을의 상황	장수현의 상황	비고
10/02	금오랑(金吾郎)이 전 순찰사 이광을 체포하러 옴.		101쪽
10/04		현감이 육십령 복병 있는 곳으로 감.	101쪽
10/05		현감이 방어사의 순시를 수행.	101쪽

6.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오희문이 쓴 『쇄미록』이라는 피난일기를 통하여 임진왜란 발발 당시 장수현의 상황을 개략적이나마 살펴보았다. 이제 장수현이 어떻게 해서 임진년에 일본군으로부터 함락을 당하지 않았고 또 그 피해가 경미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임진년에 일본군으로부터 장수현이 함락당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장수현이 일본군의 주요 진격로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금산을 함락한 일본군은 용담과 무주를 함락시킨 후 곧바로 진안을 거쳐 전주에 입성하려고 하였다. 호남을 분할 통치하려고 했던 소조천륭경(小早川隆景) 부대는 전주성에 입성하는 것이 당면의 제일 목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수는 이들의 진격로에서 일단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자연히 일본군의 공격이 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도 매우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장수현의 지세가 험준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무주와 용담 및 진안 등지에서 장수현에 이르려면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다. 무주에서 장수에 이르려면 나치와 각치 등을 넘어야 했으며 진안에서 장수로 가려면 조치와 중대치 등을 넘어야 했다. 또 용담에서 장수에 이

르려면 송치와 고양이고개[猫古介]를 넘어야 했으며 금산에서 장수로 가려면 숯고개[炭古介]를 넘어야 했다. 장수가 임진년에 일본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지세가 험준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세가 이처럼 험준했기 때문에 방어가 무척 용이하였다. 험준한 요해처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공격을 하면 진격하는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일본군이 끊임없이 장수의 접경에 침범하였다가도 번번이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관군과 의병이 험한 지세를 이용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수많은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수현이 임진년에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장수현에 머물던 관군과 의병이 적의 침략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여 그들의 사기를 크게 꺾어 놓은 데에 있다.

금산(錦山)의 적이 그저께 도망하여 옥천(沃川)과 양산현(良山縣)을 넘고 영동과 황간을 경유하여 김산(金山)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 이 전라도는 가히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 그 기쁨을 알 만하다. 다만 흉한 적도(賊徒)들이 6월부터 지금까지 넉달 동안 오래토록 금산과 무주 두 고을에 머물렀으니 (응당) 한 사람의 적도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끝내 이들을 무사히 돌아가

게 했으니 이것이 통탄스럽다.

그런데 무주의 적(이 물러나게 된 것)은 순창과 장수 두 고을의 정병(精兵)이 방어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스스로 정예의 군사 100여 명을 선발하여 적의 경계로 들여보내어 날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혹은 밤에 몰래 잠입하여 놀라게 하고 혹은 요해처에 매복하였다가 다섯 차례나 적과 교전하여 비록 적의 목을 많이 베지는 못했으나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수없이 많고 한 번도 (아군이) 패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니 적도 또한 아군을 두려워하고 겁내어 감히 (장수를 침범하기 위해) 안성(安城)으로 나오지 못했다. 살아서 금산으로 돌아간 (무주의) 적은 (처음에 이곳으로 온 군사의) 겨우 1/5 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한다.[54]

임진년에 장수현의 피해가 극히 적었던 것은 이와 같이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단지 요해처나 길목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진에까지 깊숙히 쳐들어가 공격을 했기 때문이었다. 장수현에 머물던 관군과 의병은 이처럼 적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적들은 이들을 두려워해서 장수현을 가급적이면 침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수현이 임진년에 피해가 적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적극적인 공격 때문이었다.

---

54) 錦賊昨昨遁去 還踰沃川·良山縣之路 歷永同·黃澗向金山云 此道則可無虞矣 其喜可知 但兇徒自六月今至四朔 久穴錦·茂兩邑 使不得隻影不返 而終來好還 痛憤痛憤 然茂賊則淳昌·長水兩邑精兵 非但防守甚固 各抄自募精銳百餘人 入送賊境 日日探候動止 或潛入夜驚 或設伏要害 五度交戰 雖未多斬 而中箭自斃者無數 一不見敗 賊亦畏怯 不敢出向安城之路 生還錦山者 僅五分之一云(96쪽)

임진왜란시 조선 여인들의 절의정신

- 논개와 호남지방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

柳 鍾 國

(정인대 교수, 고전문학)

1. 서론
2. 조선 여인의 절열(節烈)과 충의(忠義)
(1) 절열(節烈)과 충의(忠義)의 여인
- 의기(義妓) 논개(論介)
(2) 절열(節烈)의 여인(女人)들
3. 결론

※主要 歷代 女人들의 烈節과 忠義 行蹟

1. 서 론

절의(節義)란 국가의 명맥(命脈)이요 민족의 정기(精氣)이다. 이를 숭상하고 숭상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의 흥망(興亡)과 민족의 성쇠(盛衰)가 좌우되는 것이다. 고금동서(古今東西)를 막론하고 다같이 선열(先烈)들을 추모(追慕)하고 그 의로운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理由)와 의의(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일우(一隅)에 있으면서 주변 열강(列强)들의 요충(要衝)에 처하여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왜란(倭亂), 호란(胡亂) 등 허다한 국난(國難)을 당하였다. 그 때마다 무수한 우리의 선열들이 창의(倡義)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국난(國難)을 타개하였다. 이는 우리 선열(先烈)들이 대대로 절의(節義)를 숭상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거니와 그 중에서도 정충대절(精忠大節)이 특히 우리 호남(湖南)에서 많이 배출(輩出)하였음은 이 고장 호남인의 커다란 자긍심(自矜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제도와 문물은 누 천년 이래로 남성 위주

의 역사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절의(節義) 또한 부녀자의 것이 아니라 사대부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실상 국난이 일어나면 더욱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사대부보다는 오히려 서민이었고, 특히 부녀자들이었다. 국란 당시 항거할 능력도 없는 부녀자들은 능욕(凌辱)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는 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특히 자심(滋甚)하였거니와 역사적으로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다하였다.

그러한 참혹한 상황 아래에서도 부녀자들이 국난 때 절의(節義)를 지켜 나라와 집안을 빛낸 이들이 무수히 많다. 이들의 위업은 역사상 찬란히 빛나려니와 국난(國難)을 당하여 패덕오국(悖德誤國)한 당시 사대부들의 위선과 배신을 비웃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 때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 당시 산성을 지키다가 몰래 구명도생(苟命徒生)한 김해부사 백사림(白士霖)이라든지[1] 병자호란 때 강

---

1) 백사림(白士霖)은 정유재란 때 김해군수로서 무용이 뛰어난 장수였다. 그는 가또오 기요마사(加藤淸正)이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와 함께 왜병 정예부대 5천 명을 이끌고 황석산성(黃石山城)을 공격할 때 전투에 참가하여 성이 험고하여 김해군민만으로도 성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서 성을 지키는 대장을 맡아 동북문을 맡았으나 왜적의 많음을 알고 밤에 몰래 성을 열고 도망쳐 결국 황석산성(黃石山城)이 함락되고 말았다. 백사림의 비겁한 도주로 말미암아 함께 산성을 지키던 함양군

화도에서 임금과 가족을 저버리고 자기 목숨만 건지려도 도망쳤던 여러 조정 신료들이 그러한 예이다.

사실 국난에 임하여 사대부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우면 공신(功臣) 책록을 받고 명예도 얻게 되지만, 여성들은 국가나 절의(節義) 있는 업적으로 국가나 집안을 위해 공을 세웠어도 그 이름이 묻히게 되는 예가 많았다. 특히 그 신분이 미천하면 더욱 그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 선조 때 유명한 문신인 유몽인(柳夢寅) 은 『어우야담(於于野譚)』에서 논개(論介)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에서 논개(論介) 뿐 아니라 이름 모를 많은 기녀(妓女)들이 정절을 지켜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곧, 유몽인(柳夢寅) 은 임진란을 당하여 관기(官妓)로서 왜적을 만나 욕을 당하지 않고 죽은 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논개(論介) 한 사람 뿐이 아니며 이름 없이 죽어간 여인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한이라고 말하였다.[2)]

본고는 임진왜란 당시 논개(論介)를 비롯한 호남지방의

수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 선생과 안음현감 곽준(郭埈)과 주민 수천 명이 순국(殉國)하였다. 『모계문집』, 『대소헌조종도문집』, 『孤臺日記』, 『居昌郡史』, <龍門夢遊錄> 참조.

2) 柳夢寅, 『於于野譚』. 필사본에는 "어우야담(於于野談)"이라고 되어 있고, 『於于集』에 실린 원본에는 "어우야담(於于野譚)"이라고 되어 있다. 필자는 원본에 따라 『於于野譚』이라 쓴다.

여인들의 충의(忠義)와 절의(節烈)의 행적을 상고하여 그 위업을 선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본고는 연구상에 있어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유몽인(柳夢寅) 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개(論介) 이외의 기녀들에 대하여는 그녀들의 절행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천한 신분이고 여인이었던 까닭에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지 않아서 문헌 자료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다.

둘째, 비록 사대부 집안의 부녀의 절행은 몇몇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하나 그 기록 내용이 소략(疏略)하여 당시 행적을 정확하게 살피기 어려운 난점이 그 둘째이다. 셋째, 충의의 위업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선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정치와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여인들의 충절에 행적도 드물지만, 그에 대한 기록 역시 드물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은 자고로 여자 교육에 힘쓴 일이 없었으니,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정치 사회적 현실 참여가 어려운 시대였다. 조선 여인들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라고 하는 시대적 관습과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녀들에게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비롯한 같은 유학(儒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녀들에게는 직접 정치

지도자로 나서서 군신간의 충성을 행하는 일, 사회를 개혁하는 일, 국난(國難)을 당하여 참전하는 일 등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사회 참여를 통한 정치가 혹은 장수로서 충절의 위업을 세울 기회는 더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임란 당시 호남 여인들의 충절이 그야말로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였는가 하는 점을 선양하는 동시에 특히 애국심과 정절심(貞節心)이 쇠미해진 오늘날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적 업적을 이해하여 다소라도 귀감(龜鑑)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본고는 자료 부족이라는 연구상의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일별(一瞥)해 보기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조선 여인의 절열(節烈)과 충의(忠義)

『논어』에 공자가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들음을 안다(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 하여, 충신 열사는 나라가 어려워질 때 비로소 드러남을 말하고 있다.[3] 충성이란 국난(國難)을 당하

3) 『論語』

여 나라와 겨레를 잊지 않고 조국에 헌신, 봉사함을 말함이다."국난(國難)을 당하여 나라를 잊지 않았으면 충성(臨難不忘國忠)"이라고 하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모시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호남지방 여인들의 절의 정신을 고찰하기 위해서 "첫째, 절열(節烈)과 충의(忠義)를 겸비한 여인"과 "둘째, 절열(節烈)의 여인"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의 여인

- 의기(義妓) 논개(論介)

먼저 현전하는 논개에 대한 최초의 텍스트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仁)의 『어우야담(於于野譚)』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기(義妓) 논개(論介)]

논개(論介)는 진주(晋州)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歷) 계사년(癸巳年)에 김천일 (金千鎰)이 의병을 일으켜 우두머리가 되어 진주에 들어가서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군사는 패하고 백성들은 몰살당하였다. 이 때 논개(論介)는 분단장을 하고 의복을 곱게 입고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 길 낭떠

러지요, 그 밑으로는 깊은 물 속이었다. 왜병들은 바라보고 좋아했지만 모두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오직 한 왜장이 의연하게 곧장 나아갔다. 논개(論介)는 일부러 요염한 웃음을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였다. 논개(論介)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둘이 같이 죽었다.

임진란을 당하여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을 당하지 않고 죽은 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어찌 논개(論介) 한 사람 뿐이겠는가? 이름 없이 죽어간 여인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한이다. 저 관기들은 몸을 파는 창부(娼婦)이므로 가히 정렬(貞烈)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우나, 그녀들도 죽음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도랑물도 성(聖)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거니와, 절대로 차마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4]

조선시대의 여자의 구실은 할팽(割烹), 재봉(裁縫), 쇄소(灑掃), 정구(井臼)1의 일이 고작이므로 다만 남부구고(男夫舅姑)에 순종만 하면 될 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5] 당시에는 일제시대 유관순 열사처럼 그녀들에게 나라에 충성하여 충신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으려니와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기녀(妓女)의 몸으로 충의(忠義)의 행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다.

---

4) 柳夢寅, 前揭書.
5) 李能和, 『朝鮮女俗考』(서울 : 동문선, 1990), p. 5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기 논개(論介)의 위업은 가히 "충의(忠義)"로운 여인이었다고 할 만하다. 유몽인도 논개(論介)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관기들은 몸을 파는 창부(娼婦)이므로 가히 정렬(貞烈)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우나, 그녀들도 죽음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도랑물도 성(聖)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거니와, 절대로 차마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충의(忠義)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6]

관기로서 국난(國難)을 당하여 행한 일이 매우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그녀를 유몽인(柳夢寅)의 말대로 "관기로서 몸을 파는 창부(娼婦)이므로 가히 정렬(貞烈)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유몽인(柳夢寅)은 이렇게 비유하여 말한다. 도랑물도 성(聖)스럽게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일에 남녀가 있을 수 있으며, 신분의 고하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첫째 죽음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고, 둘째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에 종사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행위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

6) 柳夢寅, 前揭書.

것이다. 이같이 유몽인(柳夢寅)은 논평에서 의기 논개(論介)의 행적을 정열(貞烈)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행위는 "충의(忠義)"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부인들의 천성은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그리하여 하품의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고, 상품의 사람은 의롭게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죽음을 두고 대개 절(節)이니 열(烈)이니 하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다. 하지만 창기(娼妓)의 무리들은 어려서부터 풍류로서 지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음탕한 것들로서 지조를 지키지 않고 자꾸 마음을 바꾸는 화냥기가 있는 까닭에 성품이 허랑하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여 위인됨이 한 지아비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다. 창기(娼妓)들은 부부간의 도리도 모르고 그렇게 할진대 하물며 군신간의 의리를 알 것들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로부터 전장터에서 줄곧 미녀들을 노략질하는 일이 이어왔으나 일찍이 절개를 지켜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
> 계사년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의랑(妓義娘)이 왜추(倭酋)를 유인하여 강 가운데 바위에 서로 안고서 춤추다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이것이 그 사우(祠宇)이다. 아아! 이것이 어찌 열열한 현부인(烈烈賢婦人)가 아닐까 보냐. 당장 그 한 왜추(倭酋)를 죽인 일로 삼사(三司)의 치욕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에 군사가 있으면서도 조정에서는 이를 구원하지 않았고 전공을 시기하고 패배를 거꺼이 여겨 금탕의 견고한 성을 왜구의 손아귀에 넘겨주고 말았으니, 충신들과 뜻 있는 선비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 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연약하고 작은 한 여인이 마침내 왜추(倭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君臣) 간의 의리가 천하에 밝혀졌으니 한 성(城)의 패배쯤을 애석히 여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으랴. 사우가 오래된 데다 수리하지 않아서 비바람이 스며드는지라, 지금 절도사 홍공(洪公)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 입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스스로 시를 지어 촉석루 위에 부친다.[7]

정약용은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에서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이 갖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몽인(柳夢寅)은 논개(論介)를 "충의(忠義)"의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약용은 "충의(忠義)"의 여인일 뿐 아니라 "절열(節烈)"의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인들 중에는 하품의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고, 상품의 사람은 의롭게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두고 대개 절(節)이니 열(烈)이니 하고 일컫는다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절열(節烈: 節女와 烈婦)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랑(妓娘) 논개(論介)는 자신을 죽이는 동시에 왜추(倭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하여 군신간의

---

7) 丁若鏞, <晋州義妓祠記>

의리가 천하에 밝혀졌으니, 그 행위야말로 열열한 현부인 곧, "절열(節烈)"과 신하로서의 "충의(忠義)"를 겸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논개의 위업은 진주성의 패배조차 아깝지 않을 탁월한 위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인으로서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적장을 죽이고 스스로 죽은 행위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려말선초(麗末鮮初)에 강화도에 살던 부녀가 외구를 맞잡고 강에 뒤어들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의 기록에

> 강화부(江華府) 열녀(烈女) 삼녀(三女)는 강화부리(江華府吏)의 처자(妻子)로서 신우(辛禑) 3년에 외구(外寇)가 강화도(江華島)를 침범하여 함부로 노략질 할 때 삼녀(三女)가 적을 만났으나, 의분(義憤)하여 욕(辱)을 당하지 아니하고 맞붙잡고 강(江)에 떨어져 죽었다.[8]

는 기록이 그것이다.

고려 우왕 때 왜구가 강화도를 침범했을 때 강화도에 살던 강화부의 관리의 아내인 삼녀(三女)라는 여인이 외구(外寇)를 만났으나 의분하여 욕을 당하지 않고 맞붙잡고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일화이다. 이 일화는 기록이 소략하여 당시의 자상한 정황을 알 수 없게 한다.

---

8) 『新增東國與地勝覽』

삼녀(三女)가 외구(外寇)를 죽이면서 동시에 자결한 경우, 정황으로 보아 외구(外寇)가 능욕하려 달려들자 함께 강물에 몸을 던진 것이니, 그것은 정절을 지키기 위한 절열(節烈)한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삼녀(三女)가 외구(外寇)를 붙잡고 강에 떨어졌다는 행위는 그녀의 의분심(義憤心)이 발로일 것이다. 그것 또한 충의(忠義)로운 행위일 것이다. 물론 의도적이거나 혹은 계획적인 거사는 아닐 것이다. 그 점에서 논개의 행위와는 다소 구별된다. 애국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왜추(倭酋)를 유혹하여 거사를 행한 논개의 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논개의 행위야말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사(擧事)요, 의적(義蹟)인 것이다.

정주석(鄭胄錫)도 논개의 의적(義蹟)을 열(烈)과 충(忠)의 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의 비문(碑文)에서 논개(論介)의 행적에 대하여 이렇게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절개(節槪)를 굽히지 않은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일진대 한갓 여자로서 대의를 판단하였으니 그 어찌 열열(烈烈)하지 아니한가. (.....중략 .....) 이 사람 같은 훌륭한 공과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하고 감개하였다.[9]

여기서도 정약용의 견해와 같이 정주석도 "절열(節烈)"과 "충의(忠義)"를 겸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곧, 논개(論介)를 절개의 열사요 충렬의 인물로 본 것이다.

윤상보(尹商輔)가 쓴 비변사에서 올린 장계, 곧 <비변사장(備邊司狀)>에서 논개의 충의를 당나라 때 충의로운 여인 왕씨녀(王氏女)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10]

1970년 전북일보에 게재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도 충(忠)과 절(節)을 겸비한 인물로 해석하고 있고,[11] 오병무 교수의 『논개실기』에서도 논개(論介)의 순국이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2]

유몽인(柳夢寅)이 "절열(節烈)"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관기들은 몸을 파는 창부(娼婦)이므로 가히 정렬(貞烈)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

9) 정주석(鄭胄錫)이 헌종 12년(1846) 당시 장수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논개(論介)가 장수에서 생장했다고 전해지는 장수에 처음으로 <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의 비문(碑文)을 지었다.

10) 당(唐)나라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때 방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녀가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목을 찌르자 천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하였다.『충렬실록(忠烈實錄)』 卷二 <備邊司狀>.

11) 전북일보에서 1970년 특별기획으로 게재한 글인 바, 백남혁(白南赫)이 집필한 것이다.

12) 오병무, 『논개실기』(장수문화원 간행, 2001), p. 67. pp. 125 - 126.

여기에는 기녀(妓女)들이란 몸을 파는 절개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저변에 깔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도 역시 기녀(妓女)에 대한 인식은 유몽인(柳夢寅)과 같다. 정약용의 의식 속에도 역시 창기(娼妓)의 무리들은 어려서부터 풍류로서 지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음탕한 것들로서 지조를 지키지 않고 자꾸 마음을 바꾸는 화냥기가 있는 까닭에 성품이 허랑하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여 위인됨이 한 지아비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행위에 대해서만은 그녀를 절개 없는 여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 업적이 너무 빛나서 진주성의 함락을 애석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면서 충의(忠義)의 인물일 뿐 아니라 열열한 현부인(烈烈賢婦人)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정약용은 비록 미천한 신분일지라도 순국을 통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임금께 충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신분 같은 것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녀(妓女)일지라도 어떠한 열부 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아 마땅할 열부로 승화시키고 있다. 역사도 항상 당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되는 것일진대,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논개(論介)의 신분의 귀천이나 출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녀의 장열한 순국은 충의와 절열의 정신의 산물이다. 그의 행위는 의거(義擧)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나. 절열(節烈)의 여인(女人)들

충의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절열의 여인으로 손꼽히는 임진왜란 때 호남지방의 여인들의 절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그들에 대한 기록부터 살피기로 한다.

[양사순(梁思舜)의 처(妻) 오씨(吳氏)]

양사순은 조선 선조 때 장수군 계내면 화음리에서 출생하였다. 부인 오씨(吳氏)의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부인은 고매한 성품에 정절이 뛰어나고 자색이 있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마을이 왜적에게 유린당하여 왜적들의 토색질이 자심하였다. 왜병들이 부인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젖가슴을 만지며 욕을 보이려 하자, 분개하여 스스로 젖가슴을 칼로 베어 왜적들의 면전에 뿌리고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

조정에서 정려를 내려 부인의 정절을 기렸다. 장수군 계내면 화음리에 정려를 세웠다. 부인의 높은 정절은 후세에 귀감이 되었다.[13]

---

13) 『삼절의 고장』, 『長水邑誌』, 『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

[소동(蘇仝)의 처(妻) 민씨(閔氏)]

소동의 처는 여흥 민씨이다. 여흥 민씨는 1572년(선조 5년)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출생하였다. 그녀는 영민(英敏)하고 청고(淸高)한 성품을 지녔다. 성장하여 소씨 집안으로 출가하였는데 그녀의 시부(媤父)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충신 좌랑(佐郞) 소행진(蘇行震) 선생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소행진 선생은 동향인 이보(李寶)와 의기투합하여 의병을 규합해서 금산에 주둔한 왜적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다가 왜병들이 이치(梨峙)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향을 돌려 이른바 이치전투(梨峙戰鬪)에 참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큰 아들 계(繼)가 부친 발상(發喪) 후 3일 만에 이치로 나아가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에 둘째 아들 동(仝)이 형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적진에 달려가 싸우다가 전사하여 삼부자가 모두 순국하였다.

이 때 동(仝)의 부인인 여흥 민씨는 시아버지와 부군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역시 일찍 죽어 의탁할 곳이 없자 통진(通津)에 있는 친정에 가서 살았다.

세월이 흘러 병자호란을 당하자 친정인 민씨 일가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움막을 치고 살았다. 정축년 1월 23일 청나라 오랑캐가 병선(兵船)을 띄워 강을 건너 강화도로 내습하였다.

이에 민씨 일가족 12명은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하고 절개를 지켜 마침내 모두 물에 빠져 자결하였다. 이 때 민씨 부인도 뒤따라 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1832년 순조 임진년에 민씨 부인의 정절을 기려 조정에서 정문을 내렸다.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세워진 정문에 시아버지와 함께 모셔져 있다.[14]

---

14) 『湖南三綱錄』, 『益山郡誌』, 『蘇氏族譜』

[강덕복(姜德福)의 처(妻) 양씨(梁氏)]

양씨는 본관이 남원으로 진주 강씨인 감정 강덕복의 아내이다. 남편 강덕복은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가동과 주민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남원 수성령(宿星嶺)에서 기습을 감행하여 왜적 60여명을 죽이고 장렬한 최후를 순국하였다. 부인 양씨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진중으로 달려가 시체를 거둔 뒤 "남편이 이미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으니, 나는 마땅히 남편을 따르리라."하고서 한 쌍의 옥이(玉珥:옥으로 만든 귀걸이)를 꺼내어 하나는 남편의 입에 넣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입에 넣고서 "훗날 지하에서 서로 만나 증표로 삼겠다."라고 하고서 관 옆에서 아사(餓死)하였다. 가동 충남(忠男)이 두 사람의 관과 궁검(弓釰)을 거두어 수성령 아래에 장사를 지냈다. 후일에 사람들은 그곳을 궁장동(弓藏洞)이라 불렀다.[15]

[권백시(權伯時)의 처(妻) 정씨(丁氏)]

권백시의 처 정씨는 조선 중종 때 문신 충간공 정황(丁熿)의 손녀이다. 정씨는 조선 선조 대 정유재란이 일어나 왜적들이 침범하자 남편을 따라 무림방(茂林坊: 지금의 전북 순창군 구림면)으로 피난하였다. 왜적의 추격이 다다라 사세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부인은 무지한 적을 만나면 필경 화를 면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정절을 지켜 사천(泗川)에 빠져 순절하였다.[16]

[박문효(朴文孝)의 처(妻) 송씨(宋氏)]

태인(泰仁)에 살던 박문효(1568-1593)는 1592년(선조 23년) 宗廟署直長으로 있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가(御駕)를 의주로 호종하였다. 다음해 의주에서 돌아오다가 개성 송

---

15) 『龍城續誌』, 『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
16) 『玉川의 얼』, 『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

악산에서 왜적을 만나 맞아 싸워 왜적 수십 명을 참살하고 순절하였다. 이 때 본관이 진천(鎭川)인 송씨 부인은 어린 아들과 늙은 종 하나를 데리고 장토(庄土)가 있는 태인 서촌(지금의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서재)에 내려 와 살았다. 남편의 순절 소식을 들은 부인 송씨는 여섯 살 난 어린 아들을 종에게 맡기고 순절하였다. 1817년(순조 17년) 조정으로부터 송씨 부인의 열행(烈行)을 기려 정려가 내려졌다. 태인면 태서리 서현사 경내에 박문효의 사우와 송씨 부인의 정각이 있다.[17]

[유충홍(柳忠弘)의 처(妻) 허씨(許氏)]

첨지(僉知) 유충홍(柳忠弘)의 부인 허씨(許氏)는 허관(許寬)의 딸이다. 부인 허씨는 나주(羅州)에 살았는데 평생토록 규방의 범절을 매우 엄숙하게 지키며 살았다. 남편 충홍을 섬김에 있어서 예의를 다하여 남편을 손님으로서 공경하였고, 남편의 의복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였으며, 남편에게 눈썹 한 번 찡그리는 일도 없었다.

충홍이 아들이 몇 안 되는 것을 근심하여 은밀히 밖에서 첩을 얻어들이려고 점을 쳤다. 부인은 몰래 첩을 맞이하는 길일(吉日)을 알아내고서 큰 초례(醮禮)를 치를 준비물을 남편 몰래 성대하게 마련해 놓았다.

첩을 맞이하는 날이 닥치자, 충홍은 가마를 대령하게 하였다.

이 때 부인은 상자 속에 마련해 놓은 새 옷을 꺼내어 남편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서, 큰 탁자를 내놓아 음식을 차려 놓고 자기는 초례 때 입은 옷을 입고서 대좌하였다. 마치 초례를 치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충홍이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

17) 『井邑市史』, 『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 『井邑院·祠錄』

"처음 나으리와 혼인할 때 이 예(禮)를 썼습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첩(妾)을 얻으려고 가시는데, 어찌 이와 같은 예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혼(初婚)의 혼인례를 쓰는 것입니다."

충홍은 이로써 행차를 그만두었다. 충홍이 죽자 장사(葬事) 지내기 전 석달 동안 간장을 밥상 위에 내오지 못하게 하고, 삼 년 동안 오직 싸래기 죽만 마시고 삼년 이후에도 소복(素服)과 소식(素食)을 그치지 아니 하였다. 조석으로 밥을 올리는 일을 평생토록 그치지 아니하였다. 매일 제사를 풍성히 지내되 절사(節祀) 때와 똑같이 하여 과일이 대여섯 그릇, 탕(湯)도 일곱 여덟 그릇, 그 밖의 제물들도 그 정도로 갖추었다. 항시 날이 저물면 여러 계집종들로 하여금 지청 방안에서 혼백을 모시고 잠자게 하고, 모든 문의 열쇠를 다 그 방안에 들여놓게 하였다. 사내종들은 감히 중문(中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동이 틀 무렵에 이르러 밖에 있는 계집종들에게 각기 맡은 물건을 가지고 문 밖에 모였다가, 열쇠를 가지고 나와 문을 열어 주도록 하기를 마치 궁궐문 처럼 엄숙하게 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과 음식을 차림에 있어 칼과 도마와 그릇을 별도로 마련하여 모두 덮개를 씌웠다. 어육(魚肉)과 소식(素食)을 차림에 있어 그릇이 서로 뒤바뀌지 않도록 하고, 쓰기를 마치면 칼과 도마는 각각 씌우개에 씌우고 그릇은 갑(匣)에 넣어 보관했다.

어느날 밤 집에 불이 났다. 시비들이 달려가 불을 끄려 하자, 부인이 이를 말렸다. 그러더니 부인은 많은 시비들을 거느리고 동산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계집종들은 앞을 호위하고 사내종들은 뒤를 호위하게 한 후, 호위하고 있는 노비들을 제외한 남은 노비들에게 모두 가서 불을 끄게 하였다. 또 사내종에게 명하여 먼저 불을 낸 노비를 잡아 불을 끄는 곳 앞에 꿇어 앉혔다. 그런 연후에 불길을 잡아 불을 껐다. 불이 다 꺼지자 소실의 아들을 시켜 노비에게 약간의 벌을 주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조카 유수와 유은이 찾아와 위문하고 어떻게 불

이 났고 어떻게 불을 껐는지 물었다. 그들은 불을 낸 노비를 먼저 잡아들인 연후에 불을 껐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여 그 까닭을 물었다. 조카들에게 답변하였다.

"집안 다스림도 나라 다스림과 같으니,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집안에 기강이 없으면, 또한 어찌 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면 다시 고쳐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이 없으면 집안의 법도가 사라지는 법이지요."

이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감복하여 마지 않았다. 과부로 홀로 살은 지 40년 동안, 거센 사내종과 심술궂은 계집종도 부인의 통제를 받아 복종하지 않는 놈이 없었고, 모두 부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사내종 한 놈이 쉽게 굽히지 아니하여 제어하기 어려워서 비록 관가의 위엄과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스리지 못할 지경인 줄 알고, 동네의 문 밖으로 끌고 가서 채찍으로 치라 하자 놈이 머리를 숙이고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다. 친족들도 감히 부인에게 항거하지 못하고서 무엇이든지 부인께 묻고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부인에게는 오직 한 아들만 있었는데, 이름을 준(浚)이라고 하였다. 준이 부인보다 먼저 죽어서 첩의 아들과 같이 살았다. 그 마저 북변에 방수(防守)하러 가고, 마침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때 부인의 나이 80세였다. 가사를 모두 정리하고 온 식솔로 하여금 왜구를 피하여 바다를 건너도록 하고

"나는 비록 늙었으나 부인(婦人)이요 남편이 없으니, 나 홀로 비복들과 함께 밖으로 피신하여 구차히 살까 보냐? 그럴 일이 없다."

라고 말하고서 잠을 잤는데, 이튿날 부인이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않자, 시비가 들어가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한다. 상자 가운데 글 한 편을 남겼는데, 그것은 모두 장례를 치를 때 쓸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적어둔 것이었다. 이미 장례를 치른 뒤 왜구가 들어왔으므로 온 식솔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 온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옛적에 충홍이 몸에 병이 났다. 볼기에 독(毒)이 나서 종기가 불알 만하게 컸는데, 의원이 몸을 묶고서 그곳을 도려내려 하였다. 그러나 충홍은 손님을 접대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태연자약하였다. 의원이 그 곳을 칼로 도려내니 그 자리에 피가 가득하였으나, 얼굴색 조차 변치 않고 스스로 손에 소금을 쥐고 그곳에 비벼대니 병이 곧 나았다고 한다.[18]

[남원(南原) 정생(鄭生)의 처(妻)]

남원(南原)에 사는 정생(鄭生)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알 수가 없다. 젊었을 때 퉁소를 잘 불고 노래를 잘 불렀다. 성격이 호방하여 조그마한 일에 구애받지 아니했다. 그러나 학문에는 게을렀다.

같은 고을에 사는 어느 양가(良家)에 구혼하였는데, 그 집 딸 이름은 홍도(紅桃)라고 하는 여자였다. 두 집에서 혼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혼삿날이 임박했다. 홍도의 아버지는 사윗감인 정생(鄭生)이 학문이 없다 하여 혼인하기를 거절할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홍도는 부모님께 말하였다.

"혼인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혼인을 허락해 놓았으니, 저는 그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어찌 학문이 없다 하여 혼약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도 감동을 하여 허락하였다. 정생과 혼인을 무사히 치렀다. 혼인 2년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 이름을 몽석(夢錫)이라고 했다.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 왜란이 일어나자, 정생은 군인이 되어 왜병을 막았다.

---

18) 『於于野譚』

정유년(丁酉年) 총병(摠兵) 양원(楊元)이 남원성을 수비하게 되었다. 이 때 정생은 남원 성중에 있었다. 홍도는 남자 복식으로 가장하고 성안에 들어가 머물렀지만, 군사들 가운데서는 이 일을 아무도 몰랐다. 아들 몽석은 할아버지를 따라 지리산 속에 들어가 난을 피했다.

남원성이 함락되자, 정생은 양총병을 따라 빠져 나올 수 있었으나 홍도는 따라나오지 못하고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정생은 홍도가 필경 중국 병사를 따라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중국 병사들을 따라 중국에 들어갔다. 중국에 들어가 걸식을 하면서 절강성 지방을 두루 돌며 아내를 찾아 다녔다.

어느 날 때마침 천궁 도주(天宮道主)와 함께 절강(浙江)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달밤에 퉁소를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에 있던 중국 사람이 무심코 말하였다.

"내가 조선에 갔을 때 듣던 퉁소 소리 같군."

정생이 의아히 여겨 말하였다.

"내 아내가 아닐까? 내 아내가 아니고서는 이 율조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정생은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전날에 아내와 화답하며 부른 노래를 한 곡조 크게 불렀다. 이 노랫소리를 들은 저쪽 배에서 손을 흔들며 크게 부르짖었다.

"우리 서방님이시다! 여보!"

정생은 깜짝 놀라 곧바로 작은 배를 타고 그 배로 쫓아가려 했다. 도주(道主)가 진심으로 말렸다.

"저 배는 남만(南蠻)의 상선이요. 거기엔 왜인들도 많이 섞여 있소. 어리석게도 만일 간다면 유익한 일은 없고 해만 입을 것이오. 잠자코 날이 새기를 기다리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소."

날이 밝자 도주는 장정 몇 사람에게 돈 수십 냥을 들려 보내며 가서 구해 오라고 일렀다. 데려와 보니 과연 그의 아내가

분명하였다. 내외는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하였다. 배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남원이 함락될 당시에 홍도는 왜병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 일본인들은 그가 남복을 하고 있었으므로 여자인 줄 모르고 남만의 상선에 인부로 팔아 넘겼다. 무릇 남자의 일이라서 잘 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자선(刺船)하는 일만은 잘 도왔다. 남만으로부터 절강으로 오는 길에 상선의 주인은 홍도를 데려다가 조선 땅 가까운 근처에 내려주고자 하였다. 그러던 차에 이처럼 우연히 서로 만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정생은 홍도와 더불어 절강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절강 사람들은 모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돈과 곡식을 가져다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다. 여기서 아들 몽진(蒙眞)을 낳았다.

세월이 흘러 몽진의 나이 열 일곱 살이 되었다. 혼처를 구했지만 조선인이라는 까닭으로 중국 처녀들은 몽진과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 했다. 그런데 이 무렵 어느 처녀하나가 몽진에게 유독 혼인을 청하여 왔다.

"우리 아버지는 조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시집을 가렵니다. 이 사람을 따라 조선 땅에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제사라도 지내야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부녀가 서로 만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리하여 그녀는 몽진에게 시집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후 정생은 다시 무오년 북정(北征) 때 유정(劉綎)의 군대에 편입되어 들어가 출정했다. 그러나 오랑캐에 패하여 유정은 전사하고 중국 군사들은 거의 다 잡혀 죽게 되었다. 정생은 소리 높여 외쳤다.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요!"

이에 죽이지 않고 석방해 주었다. 그는 마침내 도망하여 조

선 땅으로 탈출했다. 그는 즉시 조선 땅 남원으로 내려가다가 공홍도(公洪道) 이산현(尼山縣)에 도달했으나 먼길을 달려오느라고 다리에 종기가 나서 의원을 찾아 나섰다. 마침 여기서 만난 의원이 중국인이었는데, 그는 임진왜란 뒤에 중국 병사들이 철병할 때 낙오된 사람이었다. 그 성명과 사는 곳을 물어 보니, 기가 막히게도 그가 바로 몽진의 장인이었다. 사돈끼리 천만 뜻밖에 만난 것이다. 이들 사돈끼리 그 동안의 경과사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붙잡고 통곡하였다.

둘이서 남원에 있는 정생의 옛집을 찾아갔다. 그 곳에는 몽석이 아내를 얻어 아들을 낳아 그 옛집에서 살고 있었다. 정생은 아들 몽석을 만나고 몽진의 장인인 사돈도 만나자 외로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 아내 홍도와 천신만고 끝에 만났다가 다시 이네 헤어진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그럭저럭 1년이 지났다. 이 때 홍도는 가산을 정리해서 조그마한 배 한 척을 마련해 가지고 아들 몽진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 일본, 조선의 삼국의 복장을 모두 준비해 절강성으로부터 떠났다. 중국인을 보면 중국 사람이라고 칭하고, 왜인을 만나면 왜인이라고 칭하였다. 배를 타고 출발한 지, 한 달 스무 닷새만에 제주에 있는 추자도 앞 바다의 가가도(佳可島)에 닿았다. 먹을 식량을 보니 남은 것이 겨우 7홉에 불과했다. 홍도가 몽진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배 안에서 굶어 죽으면 마침내는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섬으로 올라가서 목을 매어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듯하구나."

"그러나 며느리는 반대했다.

"우리가 한 홉 쌀로 죽을 쑤어 먹으면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하오니 이 쌀을 가지면 7일 간은 지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동쪽에 희미하게 육지가 보이는 듯하오니, 조금 더 참고서 삶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 동안 다행히 지나는 배를

만나면, 육지로 건너갈 수 있어서 십중팔구는 살 수 있을 것이에요."

몽진의 어머니는 그 말을 쫓았다.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가기를 5,6일이 지났다. 이때 우리의 통제사 사수선(斜水船)이 근처에 와 있었다. 홍도는 자기가 남편과 헤어지게 된 내력과 그 뒤 절강성에서 서로 만난 경과와 아마도 남편이 북정에 나가 오랑캐 에게 패해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모두 말해 주었다. 그 뱃사람들이 듣고서 모두 불쌍히 여겨 홍도의 작은 배를 자기네의 배 끝에 연결시켜 항해해서 순천(順天)에 상륙시켜 주었다.

홍도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손을 잡고 남원의 옛집에 당도하였다. 거기에는 남편 정생과 아들 몽석과 몽진의 장인까지도 한데 모여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모두 온전하고 화목하였다.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누고 혼인한 사람들도 별 탈 없이 잘 살아 그 즐거움이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태사공(太史公)은 말한다.

정생은 조선 사람이다. 난리에 그 아내를 잃어 멀리 중국까지 가서 찾았으며, 홍도는 전쟁에 남편과 이별하고 세 나라 복장으로 본색을 숨겨 몸을 온전히 보전했으며, 몽진의 아내는 자기 스스로 다른 나라 남자에게 혼인을 구하여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버지를 찾았으며, 마침내 모두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한 집에서 기약한 바도 없이 만났으니, 이는 비록 요행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들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케 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어찌 신기하고도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19]

첫째, 조선시대 절열의 여인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정조관(貞操觀)과

19) 『於于野譚』

불갱이부(不更二夫)의 정신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경우가 많다.

장수(長水) 열부(烈婦) 양사순(梁思舜)의 처(妻) 오씨(吳氏)의 경우,

> 왜병들이 부인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젖가슴을 만지며 욕을 보이려 하자, 분개하여 스스로 젖가슴을 칼로 베어 왜적들의 면전에 뿌리고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

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병이 갑자기 달려들어 젖가슴을 만지는 수모(受侮)를 당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나머지 젖을 잘라 왜적의 면전(面前)에 피를 뿌리고 자결하였느니, 열부의 절행(節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스스로 칼로 젖을 베어 왜적에게 피를 뿌리고 죽은 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용기 있는 기이한 업적이려니와, 그것은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투철한 정열(貞烈)이요, 조선 여인의 매운 절개를 보여준 절사(節死)일 것이다.

익산(益山)에 살던 소동(蘇仝)의 아내 민씨(閔氏)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고 홀로 정절을 지키면서 친가에서 살다가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 이에 민씨 일가족 12명은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하고 절개를 지켜 마침내 모두 물에 빠져 자결하였다. 이 때 민씨 부인도 뒤따라 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킨 것이다.

순창에 살던 권백시(權伯時)의 처(妻) 정씨(丁氏) 역시 정유재란 때 피난하다가 적병이 이르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한 것이다.

> 정유재란이 일어나 왜적들이 침범하자 남편을 따라 무림방(茂林坊: 지금의 전북 순창군 구림면)으로 피난하였다. 왜적의 추격이 다다라 사세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부인은 무지한 적을 만나면 필경 화를 면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정절을 지켜 사천(泗川)에 빠져 순절하였다.[20]

장수에 살았던 '양사순의 처 오씨'와 익산에 살았던 '소동의 처 민씨'와 순창에 살던 '권백시의 처 정씨'의 절행은, 문자 그대로 절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 여인들로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니지만 려말선초(麗末鮮初)에 전라도 인근에 침범한 외구(外寇)들의 토색질에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켜 자결한 예는 한 둘이 아니다.[21]

---

20) 『玉川의 얼』,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21) [※主要 歷代 女人들의 烈節과 忠義 行蹟] 가운데 (6) 靈山縣 烈女 辛氏를 비롯한 (7) ~ (12)까지의 예가 그에 속한다.

둘째, "미망인(未亡人)"이란 남편이 죽었음에도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남편 따라 죽는 것을 의(義)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부간의 의리를 말하면서 동년(同年), 동일(同日), 동시(同時)에 함께 죽는 것을 매우 뜻 깊은 일로 여겼다. 국난 중에 남편이 죽자 남편과의 의리를 소중히 여겨 죽은 예가 있다.

남원(南原)에 살던 강덕복(姜德福)의 처(妻) 양씨(梁氏)는 부부간의 의리를 목숨 보다 더욱 소중히 여긴 여인이다.

> "남편이 이미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으니, 나는 마땅히 남편을 따르리라."하고서 한 쌍의 옥이(玉珥:옥 귀걸이)를 꺼내어 하나는 남편의 입에 넣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입에 넣고서 "훗날 지하에서 서로 만나 증표로 삼겠다."라고 하고서 관 옆에서 아사(餓死)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으니, 남편을 따라 죽어 지하에 가서라도 남편을 만나겠다고 하여 곡진(曲盡)한 부부 의리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자결이라는 행위로 구현한 것이다. 그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요, 의리가 아닐 수 없다. 정읍 태인의 박문효(朴文孝)의 처(妻) 송씨(宋氏) 역시 남편이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섯 살 난 어린 아들을 종에게 맡기고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다.

이러한 부부간의 의리와 사랑의 절행(節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조선 때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처의 죽음에서도 볼 수 있다. 아내가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기어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자 아내는 일명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지어 부르고 비통해 하다가 남편을 따라 강물에 빠져 자결한 것이다.[22]

남원에 살던 '강덕복의 처 양씨'와 정읍 태인의 '박문효의 처 송씨',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남편을 따라 죽은 '조종도의 처'는, 고조선 때의 백수광부의 처의 절행을 이어 받은 애절하고 절의 높은 자결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남편을 따라 자결하지 않았으나 과부로서 안전하게 가정을 이끌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흩어진 가족을 모은 일은 만고의 열부라 할 수 있다.

나주에 살던 유충홍(柳忠弘)의 부인 허씨(許氏)는, 남편이 죽고 나서 부부간의 의리를 지켜 개가하지 아니하고 과부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잘 처리하고 집안을 잘 꾸려가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80세의 나이로 가족들을 피신

---

22) 崔豹의 『古今注』에 실려 전한다. 뒷면에 실어 놓은 [※主要 歷代 女人들의 烈節과 忠義 行蹟] 가운데 "(1) 白首狂夫의 妻"항 참조.

시키고 홀로 조용히 죽음으로써 부부간의 도리를 다한 인물이다.

남원에 살던 정생(鄭生)의 처(妻)는, 임진왜란 중에 남편과 헤어져 남복을 하고 중국에 들어가 남편을 만나는 등 온갖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스스로 천신만고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애를 쓰며 모진 시련을 이겨내어 온 가족들이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열부의 이야기이다.

'유충홍의 처 허씨'나 남원 '정생의 처'나 모두 어린 자식과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곧바로 남편을 따라 자결하지 않았으나 과부로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가정을 이끌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흩어진 가족을 모은 일은 만고의 열부(烈婦)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임진왜란을 당하여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순국·희생이야말로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국가의 명맥(命脈)을 이어가는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절의정신(節義精神)의 발로이다. 임진왜란 당시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에 처한 상황에서 충절의 고장 호남지방에서 수많은 충절의 여인들이 명멸(明滅)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기 논개는 충의(忠義)와 절열(節烈)을 겸비한 여인으로서 우리 나라 역사상 자고이래(自古以來)로 국난을 당하여 뚜렷한 위업을 남긴 충절의 여인이다.

임진 국난 중에 충의(忠義)의 행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절열(節烈)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양사순(梁思舜)의 처(妻) 오씨(吳氏)는 왜병이 갑자기 달려들어 젖가슴을 만지는 수모(受侮)를 당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나머지 젖을 잘라 왜적의 면전(面前)에 피를 뿌리고 자결한 절행으로, 소동(蘇仝)의 아내 민씨(閔氏)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고 홀로 정절을 지키면서 친가에서 살다가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켜낸 절개로, 순창에 살던 권백시(權伯時)의 처(妻) 정씨(丁氏) 역시 정유재란 때 피난하

다가 정절로 호남 정절의 여인의 본보기가 되었다.

국난 중에 남편이 죽자 남편과의 의리를 소중히 여겨 죽은 예가 있다. 남원에 살던 강덕복(姜德福)의 처(妻) 양씨(梁氏)는 부부간의 의리를 목숨 보다 더욱 소중히 여긴 여인으로 남편을 따라 자결함으로써 곡진(曲盡)한 부부 의리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였고, 정읍 태인의 박문효(朴文孝)의 처(妻) 송씨(宋氏) 역시 남편이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편을 따라 자결하여 호남 여인의 절열을 드높였다. 국난 중에 남편을 따라 자결하지는 않았지만 유충홍(柳忠弘)의 처(妻) 허씨(許氏)나 남원 양생(梁生)의 처(妻)는 과부로서 만난을 극복하여 가정과 가족을 보전한 열부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백제시대에 있어서 도미(都彌)의 처(妻), 지리산녀(智異山女), 고려시대에 있어서 고부현(古阜縣)의 절부(節婦) 이씨(李氏), 양중수(梁仲粹)의 처(妻) 이씨(李氏) 등과 같은 호남 여인의 절의정신(節義精神)을 계승한 뛰어난 절행(節行)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뿐 아니라 유사이래 모든 전란을 통틀어 우리나라 여인에게 있어서 충의(忠義)와 절열(節烈)을 빛낸 여인으로 호남지방의 여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타 여성과 비견(比肩)할 수 없는 백미(白眉)는 의기 논개의 충절의 위업이다.

※ [主要 歷代 女人들의 烈節과 忠義 行蹟]

가.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처(妻)

여옥(麗玉)은 고조선 때의 진졸 곽리자고의 아내이다. 자고가 아침에 배를 내어 삿대질을 하는데, 머리 센 광부가 물살이 심한 곳을 건너가므로, 그의 아내가 따라가며 말리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의 아내가 공후를 타며 노래하니 그 소리가 매우 애처롭더니, 노래를 마치자 또한 강물에 몸을 던지어 죽었다. 자고가 돌아와 그의 처 여옥에게 알리매, 여옥이 몹시 애달파서 공후를 타며 그소리를 본떠 노래하고, 이름을 공후인이라고 하였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그대 강을 건너지 말렜더니
그대 끝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가셨으니,
그대여, 이 어찌하리?[23]

---

23) 崔豹, 『古今注』

나. 온달(溫達)의 처(妻) 고씨(高氏)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으로서 그 용모가 용종가소(龍鐘可笑)하나, 마음은 수연(粹然)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늘 걸식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가 떨어진 옷과 해이진 신발로 시정을 왕래하니, 그때 사람들이 다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이 때 평강왕의 어린 딸이 잘 울므로, 왕이 우스갯소리로 "너는 늘 울기만 하여 내 귀를 요란스럽게 하므로, 커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을 터이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리라."라고 항상 말하여 왔다.

딸의 나이 16살이 되자 상부의 고씨에게 하가 시키고자 했다. 공주가 왕에게 이르기를 "부왕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꼭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 하옵시더니, 이제 어인 까닭으로 전에 한 말을 고치십니까? 필부도 식언하여서는 아니되거늘, 하물며 지존의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아니되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지금 부왕의 명하심은 잘못이오니 소녀는 그 명을 받들 수 없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은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니 내 딸일 수 없도다. 어찌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마땅히 가고 싶은 곳에 가 있거라."라고 하였다.

이에 공주는 보배 가락지 열 개를 팔꿈치에 맨 다음, 궁궐을 나와 호로 걷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온달의 집을 물어 알고,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르렀다. 눈 먼 노모를 앞에 나아가 절하고 나서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으니, 노모가 대답하되 "내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하므로 귀인이 가까이할 사람이 못 되오. 지금 그대의 말소리를 듣고, 내음을 맡으니 이상하게도 향기롭고, 그대의 손을 만지니 솜같이 부드러우니, 꼭 천하가 귀인인 것 같으오. 뉘 댁에서 이곳에 오셨소? 내 아들은 그저 허기를 참지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산으로 간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공주가 나가 산 밑에 이르러 보니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므로, 그에게로 가 품은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온달은 성난 모습으로 이르기를 "여기는 어린 여자가 다니는 길이 아니니,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지로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하고 돌아다보지도 않고 가버리었다. 공주는 혼자 돌아와 사립문 밑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다시 들어가 모자에게 갖추 이야기하였으나, 온달은 여전히 미심하여 결정을 아니 내렸다.

그 어머니가 이르기를 "내 아들은 매우 어리석어 귀인이 배필되기에 부족하고, 우리집은 매우 누추하여 귀인이 살기에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주는 "옛사

람의 말에, 한 말의 조라도 찧을 수만 있으면 족하고, 한 자의 베라도 꿰맬 수만 있다면 족하다 하였으니, 만약 마음만 같다면 꼭 부귀하여서만 같이 살리요?"라고 하고, 금가락지를 팔아 밭과 집, 종과 마소·기물을 사들이어 소용되는 것을 갖췄다.

처음으로 말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이르기를 "삼갈 것은 여느 장사꾼의 말을 사지 말고, 반드시 병들거나 야위어서 놓아 준 국마(國馬)를 골라 사다가 뒤에 국마와 바꾸도록 하시오."하였다. 온달은 그렇게 하였다. 공주가 매우 부지런히 사양(飼養)하였으므로 말은 날로 살이 찌고 힘이 세어졌다. 고구려는 해마다 봄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이어 멧돼지와 사슴을 사냥하여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사 지내었었다. 그 날이 되어 왕이 사냥 나갈 때는 여러 신하와 5부의 병사가 다 따라갔었다. 이에 온달이 잘 기른 말을 타고 수행하였는데 빨리 달리어 항상 앞장서고, 사냥하여 잡은 짐승도 많았으니 이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왕이 불러 성명을 묻고는 매우 놀랐다.

이때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군병을 내어 요동을 침노하였으므로, 왕이 예산의 들에 나가 적병을 맞아 싸울 때, 온달은 선봉이 되어 날래게 달리어 적 수십 명을 베이었다. 이에 여러 군사가 이 기세를 타고 힘써 싸워 크게 이기었다. 논공행상 때 온달이 그 첫째가 아닐 수 없었다.

왕이 기뻐 탄복하며 이르기를 "가위 내 사위로다."라고 예를 갖추어 그를 맞고, 대형(大兄) 벼슬을 내리었다.[24]

다. 도미(都彌)의 처(妻)

도미는 백제 사람으로서 비록 소민 출신이나 의리에 밝았다. 그의 아내는 미려하였고, 또 절행이 있어 그때 세인이 칭송하였다.

일찍이 개루왕이 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부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함을 으뜸으로 치나, 만약에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 꾀인다면 곧 마음을 아니 움직일 자가 적으리로다."하매, 이에 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본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나, 신의 처는 비록 죽을지언정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하였다. 왕은 이를 시험하고자, 일을 꾸미어 도미를 머물게 한 다음, 가까운 한 신하에게 거짓으로 왕 차림을 시켜 말을 태워 도미의 집에 보내었다. 먼저 사람을 시키어 왕이 왔음을 알리고, 그의 처에게 이르기를 "내 오래 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좋아하였는데, 도미와 내기를 하여 너를 얻었으므로 내일 너를 궁인으로 데려가겠노라. 이제부터 너의 몸은 나의 것이니라."하고 막 음란하고자 하니, 도미의 아

24) 『三國史記』

내가 이르기를 "나라님에게는 망령된 말씀이 없사오매, 내 감히 따르지 아니하리요? 청컨데 대왕께서 먼저 입시하소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겠습니다." 하고 나와 한 계집종을 치장시켜 들이었다.

뒤에 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애매한 죄를 씌워 그의 두 눈을 뺀 다음, 사람을 시켜 그를 끌어내 작은 배에 실어 강물 위에 띄워 놓고, 도미의 아내를 끌어다가 강압으로 음란하려 하자 도미의 아내가 이르기를 "이제 낭군을 이미 잃고 오직 한 몸이니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터에, 항차 임금님을 모시게 되었사오니 어찌 어기리이까? 지금 경도로 온몸이 더러우니 청하옵건대 곱게 목욕한 다음에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하였다. 왕이 이를 믿고 이를 허락하였다.

도미의 아내는 마침내 도망하여 강가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어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니 갑자기 조각배가 나타나서 물결을 따라오므로, 이를 잡아타고 천성도에 이르러 지아비를 만났으니, 아직 죽지 않은지라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같이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 밑에 이르렀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기어 옷과 밥을 주니 드디어 살아나 기려(羈旅)의 고장에서 일생을 마쳤다.[25]

라. 지리산녀(智異山女)

지리산여(智異山女)는 구례현(求禮縣)의 여자로서 용모가 고왔다. 지리산 밑에 살았으나 그 이름이 기록에는 없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부도를 다하니 백제왕이 그 아름다움을 듣고 궁궐 안으로 들이려 하였으나 한사코 따르지 않았다.[26]

마. 도화랑(桃花娘)

제 25대 사륜왕(舍輪王)은 시호가 진지왕(眞智王)으로 왕비(王妃)는 기오공(起烏公)의 딸 지도부인(知刀夫人)이다. 태건(太建) 8년 병신에 즉위하여 치국 4년만에 정사가 어지럽고, 음란한 짓이 많았으므로 폐위되었다. 이에 앞서 사량부에 서녀가 있어 얼굴이 염미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도화랑이라 일컬었다. 왕이 듣고 궁중에 불러 들여 상통하려 하자 그녀가 이르기를 "계집으로서 지키는 바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함이니, 지아비 있는 계집을 다른 지아비로 가게 한다면 그 일만은 비록 만승의 자리에 계신 분일지라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지

---

25) 『三國史記』
26) 『新增東國與地勝覽』

아비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차라리 저자에서 목을 베일지언정 다른 원이 없나이다"라고 하였다.27)

바. 영산현(靈山縣) 열녀(烈女) 신씨(辛氏)

영산현(靈山縣) 열녀(烈女) 신씨(辛氏)는 낭장(郎將) 신사천(辛斯蕆)의 딸이다. 홍무(洪武) 임술(壬戌:세종 24년,1442) 6월에 외구(外寇) 50여 기(騎)가 영산(靈山) 고을을 침범하였는데, 사천이 온 가족을 이끌고 피난하여 멸포(蔑浦)를 건널 때 적의 추격이 심하였다. 둘째 아들 식열(息悅)이 배를 끌어 밀려고 하였으나, 그때 여름 장마로 물이 한창 불어 물살이 세었으므로 배의 닻줄이 끊어져 그만 배가 겉둑에 돌아와 닿았다. 적이 따라와 사천을 쏘아 죽이고 나서 신씨를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신씨가 듣지 아니하니 칼을 빼어 보이면서 끌고 가려 하였다. 이에 신씨가 크게 꾸짖어 이르기를 "도적놈들아,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이미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하루라도 같이 할 수 없는 원수로다. 내 죽을지언정 너를 따라가지 않으리라."라고 하고 적을 잡아 물어 쓰러뜨렸다. 적이 일어나 크게 노하여 신씨를 죽이니, 나이 스물이었다. 체핵사(體

27) 『三國遺事』

覈使)가 조정에 아뢰어 비석을 세워 사적을 적고 마을에는 정문을 세웠다.[28]

사. 성주(星州)의 열녀(烈女) 배씨(裵氏)

성주목(星州牧) 열녀 배씨는 진사 배중선의 딸로서 나이 열 여섯에 사족(士族) 이동교(李東郊)에게 시집갔다. 그때 나라 안의 일이 잘 다스려지더니 홍무(洪武) 경신(庚申)에 외적(外賊)이 경산(京山)에 다가오매 합경(闔境)이 요란하였으나 감히 나아가 막을 이가 없었다. 그때 남편 동교(東郊)는 합포(合浦)의 수막(帥幕)에 가 종군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교가 돌아오기 전에 적의 기병이 배씨가 사는 마을에 쳐들어 왔다. 배씨는 젖먹이를 안고 달리었다. 적은 급히 따라오는데, 강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다. 배씨는 적을 돌아보면서 꾸짖으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를 죽이지 않느냐? 내 어찌 도적에게 몸을 더럽힐까보냐?"라고 하였다. 적은 화살을 쏘아 배씨의 어깨를 맞혔는데 다시 쏘아 맞혀서 그녀를 강물에 던졌다. 체핵사(體覈使) 조준(趙俊)이 이 일을 왕에게 아뢰어 정문을 세웠다.[29]

---

28)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29) 李崇仁, 『裵烈夫傳』.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아. 진주(晋州)의 열녀(烈女) 최씨(崔氏)

진주목(晋州牧)에 사는 열녀 최씨는 영암(靈巖에 사는 선비 최인우(崔仁祐)의 딸로서 주호장(州戶長) 정비(鄭備)에게 시집갔다. 홍무(洪武) 기미년에 외적(外賊)이 진주를 침범하자 온 고을이 어수선하였다. 이때 정비는 서울로 도망하였고, 적군은 마을에 들어왔다. 최씨는 서른이 좀 넘은 미인으로 네 아들을 데리고 바삐 산속으로 피하였다. 나올 때 적과 마주치자 적이 칼로 위협하였다. 최씨는 나무를 껴안고 항거하며 떨쳐 꾸짖기를 "내 맞아 죽을지언정 도적에게 몸을 더럽히고 살소냐. 죽느니 못하도다."하며 계속 매도하니 마침내 이를 죽이어 나무 밑에 넘어뜨리고 두 아들을 잡아갔다. 겨우 여섯 살 난 셋째 아들이 시체 옆에서 호곡하였고, 기저귀를 찬 어린 아기가 기어가 어머니의 젖을 빠니 피가 입으로 들어갔다. 얼마 안 있어 어린 아기도 죽었다. 이어 10여 년을 기사(己巳 : 조선 세종 31년. 1449)에 도관찰사(都觀察使) 장하(張夏)가 왕에게 아뢰어 마을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을 내리고, 이역(吏役)들에게 그녀의 열(烈)을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30]

---

30)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자. 고부현(古阜縣)의 열녀(烈女) 이씨(李氏)

고부현(古阜縣) 열녀(烈女) 이씨(李氏)는 낭장(郎將) 이득인(李得仁)의 아내로서, 신우(辛禑) 때의 외적(外賊)이 쳐들어와 몸을 더럽히고자 하매 끝내 항거여 죽음을 당하였다.[31]

차. 강호문(康好文)의 처(妻) 문씨(文氏)

문씨(文氏)는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강호문(康好文)의 아내로서, 신우(辛禑) 무진(戊辰)에 외구(外寇)가 마을에 침입해 왔다. 문씨에게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는데 어린 것은 업고, 큰아이는 손을 잡고 달아나 숨으려다가 잡히었다. 적은 그녀의 목을 매어 앞세웠고 또한 업힌 아기까지 건드리므로, 문씨는 빠져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린 것을 포대기로 싸 나무그늘에 놓은 다음, 큰 아이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기 있거라. 뒤에 데려가리라." 하니 그 아이가 굳이 그 말에 따랐다. 몽불산(夢佛山) 극락암(極樂菴)께에 이르니, 1천 자 가량 높은 벼랑이 있었다. 문씨는 같이 잡힌 이웃 여자에게 이르기를"나는 도적들에게 더럽혀 살기보

---

31)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다 깨끗한 몸으로 죽으리라."하고, 몸을 떨쳐 떨어지니 적은 잡지 못하고 극구 꾸짖고 나서 그 아이를 죽이고 가버렸다. 그러나 벼랑 아래에 덩굴이 있어 창포 풀로 빽빽하여 죽지 않고 오른쪽 어깨만 부러졌다. 먼저 벼랑 밑에 와 숨어 있던 노인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범벅과 죽으로 살리었다. 사흘을 있다가 적이 물러갔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다 경탄하였다. 오랜 뒤 부러진 어깨도 다 나았다.[32]

카. 김언경(金彦卿)의 처(妻) 김씨(金氏)

김씨(金氏)는 서운정(書雲正) 김언경(金彦卿)의 아내이다. 신우(辛禑) 때에, 외구(外寇)가 창졸간에 들어와 김씨를 더럽히려 하매 김씨가 이르기를 "만 번 죽을지언정, 욕을 당할 수 없다."하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니, 적은 그녀를 죽이고 말았다. 조선조 태종 때 마을에 정문을 세우라는 영이 내렸다.[33]

타. 양중수(梁仲粹)의 처(妻) 이씨(李氏)

남원부(南原府) 열녀(烈女) 이씨(李氏)는 생원(生員) 양

32)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33)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중수(梁仲粹)의 아내로서 외구(外寇)가 더렵히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마침내 적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져 마을에 정문이 세워졌다.[34]

파. 김우현(金遇賢)의 처(妻) 신씨(辛氏)

신씨(辛氏)는 낭장(郎將) 김우현(金遇賢)의 아내로서 홍무 기미에 외적이 갑자기 쳐들어 왔을 때 우현은 군을 일으켜 할 낭장으로서 명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다. 감군(監軍)이 와 신씨에게 묻기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만약 상받을 일이라면 바로 지아비 있는 곳을 알리려니 와, 지금 죄를 더하려고 지아비 있는 곳을 물으시니, 어찌 사실대로 알리어 지아비를 죽게 하리요?"하며, 곤장을 아프게 맞으면서도 종내 말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영락 을미에 정문을 세웠다.[35]

하. 양호생(梁虎生)의 처(妻) 윤씨(尹氏)

창녕현(昌寧縣) 열녀(烈女) 윤씨(尹氏)는 진사(進士) 양호생(梁虎生)의 아내로서, 나이 스물 셋에 과부가 되었다.

---

34)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35)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시아버지 판사성 양윤덕이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녀의 뜻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그녀는 쉰 한 살에 죽었다. 20여 년을 수절하는 동안 가문이 다 화목하였다. 나라에서 그 절행을 알고 비석과 정문을 세웠다.[36]

거. 김순(金洵)의 처(妻) 최씨(崔氏)

거창군(居昌郡) 열녀(烈女) 최씨(崔氏)는 낭장(郎將) 김순(金洵)의 아내이다. 홍무(洪武) 경신(庚申) 7월에 외적이 본현에 침입하여 최씨를 잡아 더럽히고자 하매 끝내 항거하다가 죽으니, 그 동리를 절부의 마을이라 표적하였다.[37]

너. 간화부(江華府) 열녀(烈女) 삼녀(三女)

강화부(江華府) 열녀(烈女) 삼녀(三女)는 강화부리(江華府吏)의 처자(妻子)로서 신우(辛禑) 3년에 외구(外寇)가 강화도(江華島)를 침범하여 함부로 노략질 할 때 삼녀(三女)가 적을 만났으나, 의분(義憤)하여 욕(辱)을 당하지 아니하고 맞붙잡고 강(江)에 떨어져 죽었다.[38]

---

36)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37)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38)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더. 경덕의(景德宜)의 처(妻) 안씨(安氏)

평창군(平昌郡) 열녀(烈女) 안씨(安氏)는 전의정 경덕의(景德宜)의 아내로서 신우(辛禑) 때에 외적이 난입하매 뒤뜰의 움 속에 숨었다. 적이 그녀를 잡아 더럽히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이에 죽음을 당하였다.[39]

러. 권금(權金)의 처(妻)

화양부 열녀 권금(權金)의 아내는 문헌에 그 이름은 없다. 권금이 밤에 범한테 물리었는데, 장정 7,8명이 감히 구해내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가 범의 허리를 껴안고 대문에 버티어 크게 호통치니, 범이 권금을 놓고 가버렸다. 권금은 죽었으나, 이 일이 알려져 정문이 세워졌다.[40]

머. 고려(高麗) 역부(役夫)의 처(妻)

의종 때 중미정(衆美亭)을 지으매 역부들이 식량을 자담하였다. 한 역부는 가난하였으므로 여러 역부가 음식을 나

---

39)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40) 『新增東國與地勝覽』, 『朝鮮女俗考』.

눠주었다. 어느날 그의 아내가 여러 음식을 갖추어 왔음으로, 역부가 이르기를 "가난하여 이렇게 차리기 어려울 터인데, 그대가 남에게 얻어 왔는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쳐 왔는가?"하였다. 이에 아내가 이르기를"낯이 어지러우니 누가 나에게 주며, 성품이 졸렬하니 어찌 훔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베어 팔아서, 그 돈으로 차려왔습니다." 하고 그녀의 머리를 보였다. 역부가 울음이 복받쳐 먹지 못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였다.[41]

버. 한보(韓甫)의 처(妻) 조씨(曹氏)

고려 원종때 조씨는 수녕현 사람으로서 삼별초가 난을 일으켰을 때, 조씨의 나이가 여섯이었는데, 아버지 비(丕)를 따라 적중에 있었다. 뒤에 아버지 비는 적중에서 달아났다 하여 탐라에 도형(徒刑)되어 복역하다가 죽었다. 열세 살 때 한보에게 시집가니, 시아버지 한광준이 동정(東征)에 나갔다 전사하고, 지아비 보(甫)도 거란족한테 죽었다. 나이 30이 못되어, 아버지·시아버지·지아비가 다 적진 속에서 죽으니, 50년을 과부로 살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드높은 절개가 세상에 퍼지자 가정 이곡이 <조절부전(曹節婦傳)>을 지었다.[42]

---

41) 『高麗史』, 『朝鮮女俗考』.

서. 현문혁(玄文奕)의 처(妻)

현문혁(玄文奕)의 아내는 그 성씨가 기록에는 없다. 원종 11년에 삼별초가 강화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문혁이 구경으로 도망하는데, 적의 배 4,5척이 따라왔다. 문혁이 혼자 활질을 하면서 상접하자 아내가 옆에서 화살을 뽑아 섬기고 또 섬기고 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문혁이 탄 배가 물 얕은 곳에서 흔들리자 적이 쫓아와 그를 쏘았다. 문혁이 팔을 맞고 배 안에 쓰러지니, 그의 아내가 "나는 의를 지키지, 도적들에게는 욕은 당하지 않으리라."하고, 두 딸을 데리고 강물에 몸을 던지어 죽었다. 적들은 부상한 문혁을 잡았으나 그의 용감함을 아끼어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뒤 문혁은 구경(舊京)에 돌아왔다.[43]

어. 송극기(宋克己)의 처(妻) 유씨(柳氏)

유씨(柳氏)는 고려말 낭장 송극기의 부인이니, 나이 스물 셋에 과부가 되었다. 부모가 그 어림을 가련하게 여기어 그녀의 마음을 돌려서 개가를 권하였으나, 부인은 돌이

---

42) <曹節婦傳>, 『朝鮮女俗考』.
43) 『高麗史』, 『朝鮮女俗考』.

된 유를 업고 도망하여, 5,6백 리를 걸어 시부모의 집에 돌아왔다. 시부모가 들이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어찌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삼종지의에 어긋나는 일이로다."하였다. 이에 부인이 울며 이르기를 "등에 업은 아기의 뜻에 따라도 삼종지의(三從之義)에 어긋나옵니까?."하였다. 시부모가 측은히 여기어 허락하여 들이었다.[44]

저. 조지서(趙之瑞)의 처(妻) 정씨(鄭氏)

연산군 때 정씨(鄭氏)는 조지서(趙之瑞)의 아내이니, 포은 정몽주의 증손녀이다. 연산조가 나포령을 내리매, 조지서는 스스로 생각하여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무래도 돌아 올 수 없을 듯하니, 조부모님 신주를 장차 누가 모시겠소?"하였다. 정씨가 울며 이르기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보전하겠습니다." 하였다. 조지서는 마침내 죽음을 당하고, 집도 몰수되어 정씨는 갈 곳이 없었다. 시부모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 집과 끝을 맺고 본가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므로, 정씨가 대답하기를 "망인께서 저에게 신주를 맡기시매, 죽어도 지키겠다고 하였사온데, 어찌 그 마음이 변하였겠습니까?" 하였다.

---

44) 『尤庵集』.

정씨는 망인의 첩의 집에 가 의탁하여 살면서, 조부모 신주를 모셔 놓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지내던 중 밀행칙사가 이곳으로 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신주를 안고 집 뒤의 대나무 숲에 숨어 3년상을 마쳤다. 반정이 된 뒤 옛 집에 돌아가 여느 때와 같이 제사를 받들었다.[45]

처. 신생(申生)의 처(妻) 이씨(李氏)

중종 때 이씨(李氏)는 신생(申生)의 아내이니, 성혼한 뒤 바로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다. 이씨는 장사와 제사를 다 가례의 본에 따라 행하였다. 3년 후 제삿날이 다가왔다. 집의 개를 보니 새끼를 배어 배가 잔뜩 불렀다. 이씨는 개를 불러 먹이를 주면서 타이르기를 "나의 정성을 너도 알고 있을 터인즉, 내일이 제삿날인데 네가 오늘 새끼를 낳으면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 그러니 네가 새끼를 낳거든 나가서 낳아라." 하였다. 개는 머리를 숙이고 듣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나니, 개가 산골짜기로부터 나왔는데 배가 홀쭉해 있었다. 먹이를 먹고 나더니 윗 산에 가 새끼를 가져오려 하였다. 그 성감(誠感)이 이와 같았다.[46]

---

45) 『陰崖雜記』, 『新女子寶鑑』.

커. 윤낭자(尹娘子) 아랑(阿娘)

중종·명종간의 윤낭자(尹娘子)는 경성의 사족이었다. 부(父) 아무가 밀양부사가 되어 식솔을 거느리고 부임하매 그녀도 따라갔다. 윤낭자 나이 겨우 열 여섯 살밖에 안 되었으나 자태가 아름다우며 성품이 정숙하였다. 게다가 《소학》과 《여사》 제편을 잘 깨닫고 있었다. 밀양부의 지인(知印)이 그를 몰래 좋아하더니, 은밀히 많은 뇌물을 그녀의 유모에게 주어 완월(玩月)한다고 그녀를 영남루에 꾀어내게 하였다. 유모는 깊은 밤에 낭자를 데리고 누상에 올랐다. 누(樓)는 산 위쪽에 있는데 대나무 숲으로 빽빽이 싸였다. 그날 밤은 달이 밝은 보름이었다.

지인은 대나무숲에 숨었다가 갑자기 일어나 어정어정 올라왔고, 유모는 어느 틈엔가 피하여 버렸다. 혼자 남은 낭자는 문득 어찌된 일인지를 몰랐다. 지인이 낭자를 껴안고 범하려 하였다. 윤낭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듣지 않았다. 지인은 일이 잘되지 않을 것을 알고 칼로 낭자의 한 팔을 베었다. 낭자가 다른 한 팔로 대어들자, 그는 칼로 낭자의 목을 베어 대숲 속에 던졌다. 낭자의 집에서는 사실의 어찌 됨을 몰랐다. 이튿날 이를 알고 두루 수색하였

---

46) 『思齋摭言』.

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음란하였다고 헛소문을 내었다. 이에 부끄럽게 여기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그후부터 사객(使客)으로 밀양을 지니던 이가 왕왕 영남루에서 묵다가 횡사하였고, 부사로 부임하여 온 이도 많이 죽었으므로 누를 폐하고 다시는 객관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모(李某) 진사(進士)가 밀양을 지나다 이 일을 듣고 일부러 누에서 유숙하였다. 야반에 문득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덮치더니, 울음소리가 대나무 숲으로부터 들려왔다. 한 여자가 칼에 맞은 목으로 붉은 기를 손에 들고 앞에 와 섰다. 이진사가 따져 묻기를 "너는 어찌 된 귀신이냐?" 하였다. 그녀는 울면서 사실을 다 호소하더니, 다시 울면서 "오랜 동안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아직 그때를 얻지 못하던 중에, 이제 요행히도 공을 만나서, 나는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 도적이 아직도 아무 벼슬에 있나이다."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아침 부사(府使)에게 이 일을 통고하여 관속명부를 살피게 한 바, 과연 주기(朱旗)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있었다. 이를 잡아다가 심문하니, 머리를 숙이면서 죄를 자백하였다. 법에 따라 이를 사형에 처하였다. 그 시체를 살펴보니 얼굴은 살아 있는 듯한데 그 목은 잘려져 피가 아직도 선하였다. 부모가 이를 듣고 돌아가 장사 지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슬

퍼하여 사당을 세워 그녀를 제사 지내니, 오늘에 이르도록 영남루 아래쪽 대나무 숲 속에 아랑사(阿娘祠)가 있다.[47]

터. 황봉(黃鳳)의 처(妻)

강남데기의 어머니는 서울 서강(西江)의 뱃사공인 황봉(黃鳳)의 아내이다. 황봉의 집은 누에머리(蠶頭)에 있었고 그는 해산물을 팔아먹고 살았다.

만력(萬曆) 초년에 황봉이 바다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남양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의 처는 남편이 죽은 줄로 여기고 소복을 입고 상을 치렀다. 삼년상을 다 마치고 나서 과부로 몇 년을 지냈다.

하루는 중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으로부터 황봉의 편지를 전해 받았다. 그 편지 내용은 바람을 만나 바다 위에 표류되었다가, 중국의 아무 땅 아무 성(城)에 머물러 어느 민가에서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 홀로 감격하여 중얼거렸다.

"처음에 낭군께서 물에 빠져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목숨을 보존하여 중국에 살고 있

47) 『奇聞叢話』.

다고? 내가 쪽박을 차고 거지가 되어 비록 길 가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찾아 가겠어."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렸다.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는 경계가 있고 관문도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말하는 것이나 의복도 서로 달라서 감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오. 누구든 국경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오. 이제 부인의 몸으로 홀로 수 만리 먼길을 떠나겠다니, 반드시 도달할 수도 없을 것이려니와 길가의 버려진 해골이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요."

아내는 그런 끝내 만류하는 말을 듣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떠나갔다. 압록강을 몰래 건너서 곧바로 중국에 들어가서 닳아빠진 헌 옷과 봉두난발(蓬頭亂髮)에 때 묻은 얼굴로 맨발인 채, 저자거리에서 이리저리 걸식을 하며 거지로 한 일년 남짓 세월을 보내다가, 천신만고 끝에 남편의 편지에 적힌 고장을 찾아 내어 마침내 어느 바닷가 외딴 곳에서 부부간에 서로 상봉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부부는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옛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딸을 낳았다. 이 딸의 이름을 강남데기(江南德)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동리에서는 "강남데기의 에미"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말에 황봉의 딸이 아니라는 뜻이 있

어 오해를 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잠깐 중국과 우리 나라를 살펴보면, 전란이 극성하기 이전에는 피차간에 경계가 엄중하여 내왕이 어려웠다. 한낱 부녀자로서 감히 홀로 중국에 들어가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마침내 낭군을 만나 아주 멀고 먼 고향을 다시 찾아 돌아왔다는 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일이며, 그 용감한 정절은 고금을 통하여 거듭 훑어보아도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래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중국 군사들을 따라 가다가 병적에 올라 있는 이름을 없애거나 하여 교묘히 중국 관문을 통과하여 간 사람이 무려 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사사로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사사로이 도망쳐 나왔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이라고 부모와 처자가 어찌 없겠는가?

사람마다 몸을 아끼는 것은 마찬가지니, 만 사람 중 한 사람이나 살아올까 말까 하는 모험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법이다. 강남데기의 어미와 같은 이는 역시 기특하고 기특한 사람이다. 그녀가 금년 봄에 죽으니 나이가 80세이다. 천개(天啓) 원년(元年) 여름에 씀.[48]

---

48) 『於于野譚』.

퍼. 진기환(晋畿煥)의 처(妻) 정씨(丁氏)

진기환(晋畿煥)의 처(妻) 정씨(丁氏)의 본관은 나주이다. 참판에 증직된 정응표(丁應杓)의 딸로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진기환에게 시집가 장수군 장수면 노하리 봉강촌에서 살았다. 정씨 부인은 명문 태생으로 용모가 우아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여인이었다.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았으며 남편과의 금실이 좋았다. 친척간에도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간에도 신의가 도타웠다. 근검한 생활로 치산하니 출가한 지 10년만에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다.

남편이 병을 얻어 위중하였다. 그녀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좋다는 약은 다 구해 치료하였으나 갈수록 병은 깊어져 남편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게 되었다. 정씨 부인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고 자탄하며 날마다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며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자 않고 간호하였다. 그래도 효험이 없어 숨을 거두자 단지하여 주혈하고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삶아 드려 회생시켰고, 남은 손가락을 잘라 주혈하여 사흘을 연명케 하였다. 그 때 부인의 나이 서른 셋이었는데 슬하에 7세 된 아들과 2세 된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다. 남편은 마침내 운명하고 말았다. 그녀는 비통한 나머지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니 그 동안 오랜 병구완으로 쇠약해진 몸이라 남편

의 시신 옆에 몸져 눕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과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주위의 일가 친척과 이웃 주민들은 달려와 두 어린 것을 잘 길러 진씨 가문을 빛나게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녀는 자유롭게 죽을 수도 없음을 한탄하며 상장을 예절에 따라 엄숙히 지내었다. 그 후 어린 아이들을 법도 있게 가르치고 근검으로 치산하여 집안 살림을 일으키니, 자녀들도 그에 힘 입어 훌륭히 자랐다.

그 중에서도 차남 병주는 인물이 출중하고 학문이 대성하여 가선대부에 오르고 동지중추부사와 오위장이 되었다. 병주는 그가 살던 마을의 이름을 따서 아호를 봉강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의 영귀(榮貴)로 진기환은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정씨 부인은 정부인의 첩지가 내렸다. 향교에서는 부인의 효혈을 암행어사에게 추천하여 관찰사의 표창이 내려지고, 1921년 장수군 장수면 노하리에 정려가 세워졌다.[49]

---

49) 『삼절의 고장』, 『장수군지』

허. 선산(善山) 열녀(烈女) 향랑(香娘)

숙종 때 향랑는 선산 상형곡의 양가댁 딸이니, 어려서부터 성품이 정숙·효순하여, 계모가 매우 완악하였으나, 항상 그 뜻에 따랐다. 시집은 갔으나, 지아비가 불량하여 그녀를 원수같이 미워하였다. 그러나 계모에게로 가지 않고, 그저 지아비로부터 핍박만 받고 있었다. 그녀의 숙부와 시아버지가 다 이를 불쌍히 여기어, 달리 시집가기를 권하였다. 향랑은 굳이 거절하며, 시가에 몸을 맡길 것을 다짐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향랑은 갈 곳이 없어 죽고자 결심하고 낙동강 지주비 쪽으로 갔다. 그때 우연히 나무하는 아낙네를 만나매 다리꼭지를 풀어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어, 내가 죽었음을 증하여 주오.」 하였다. 그때 향랑의 나이 스물이었으니, 그 노래에 이르기를

하늘은 얼마나 높고 멀며
땅은 얼마나 넓고 아득한가.
하늘과 땅은 크기도 한데
이 몸 하나 둘 곳 없어라.
차라리 이 물에 몸을 던져
어복속에 죽고자.

라고 하였다.[50]

고. 박석주(朴碩柱)의 처(妻) 황씨(黃氏)

영조 때 황씨(黃氏)는 박석주(朴碩柱)의 아내이다. 지아비 석주가 평강(平康)에 나들이 나갔다가 도적한테 죽음을 당하였다. 황씨는 원수를 갚겠노라 다짐하면서 발상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아들을 데리고 평강에 가 전전걸식하면서 3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한 주사에 이르러 지아비가 평소에 지녔던 행죽(行竹)을 얻으매, 그 적도 여섯이 범인임을 증(證)하고, 관에 고하여 벌 주게 하니 적들은 다 참형을 받았다. 황씨는 하늘을 우러러 지아비를 세 번 부르고, 칼을 뽑아 적의 배를 베어 제사 지냈다. 애초에 적들은 박석주를 죽이어 좌천(座川) 시냇가의 모래 속에 묻었었다. 황씨는 손으로 모래밭 상하 몇 리를 파내어 끝내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고, 마침내 식음을 끊고 죽으니, 이 일이 왕에게 알려져 이 마을에 정문이 세워졌다.[51]

---

50) 『善山郡誌』, 『海東竹枝』
51) 『中京誌』.

노. 현석기(玄錫祺)의 처(妻) 김씨(金氏)

정조 때 김씨(金氏)는 현석기(玄錫祺)의 아내이니, 송도(松都)에 살았다. 석기가 호남에서 객사하여 상반되었다. 김씨는 손수 염을 풀고 하나하나 살피고 나서 죽기를 맹세코 음식을 폐하였다. 시부모가 달래며 이르기를 "너마저 죽으면 우리도 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으리니, 이것이 어찌 네 지아비의 뜻이랴." 하였다. 이에 김씨는 각오한 바 있어 바로 밥을 먹고, 이로부터 더욱 일에 힘썼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길쌈하였다. 그리고 시부모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손수 바치고, 자기는 기름 찌꺼기와 보릿겨를 먹었다. 오랜 뒤 시어머니가 죽고, 시아버지도 풍을 앓아 오른손이 잘 듣지 않는지라 매끼마다 김씨가 숟가락을 들어 봉사하였다. 몇 년이 지나 시아버지도 죽었다. 김씨는 시어머니 무덤에 부장하되, 아주 정결히 하였다. 대상까지 치르고 나니, 지아비 죽은 지가 16년이 되었다. 김씨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아, 내 남의 아내가 되어 거친 음식을 먹어가며 부지런히 일하였노라. 먼저 간 지아비를 너무 멀리하였으니, 이제는 추모하기조차 두렵구나."하고 목욕을 하고 가묘에 아뢴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튿날 사람들이 비로소 알고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약 찌꺼기가 베갯머리에 있었고 몸은 이미 다 식어 있었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져 마을에 정문이 섰다.[52]

도. 절부(節婦) 박씨(朴氏)

순조 때 박씨(朴氏)는 한성(漢城) 양가 댁 딸이다. 지아비가 급병을 앓으매 혹 이르기를 "사람의 피를 마시면 낫는다." 라고 하므로, 절부 박씨는 바로 제 팔을 베어, 피를 보시기에 받아 먹이었다. 그러나 효험이 없어 끝내 죽었다. 자녀가 없는 데다가, 지아비의 집은 단족(單族)이었다. 절부는 조용히 빈소를 차린 다음 조상의 무덤 곁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가산을 다 팔아 돈 5천 냥을 만들어 시동생 안시철에게 주라고 시어머니께 보냈다. 안시철이 그 연유를 듣고는 "저는 돈 쓸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져다가 드리십시오." 하였다. 이에 아들의 선산에 가 묘지기에게 돈을 주어, 여러 조상의 묘를 모아 한 곳에 천장하였다. 역사가 다 끝나자 절부는 시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지아비에게 무자무족하니 누가 받드리요? 뼈만 모아 놓았으니 옮기지 않음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아비 죽은 지 1백 일이 되자 그 묘에 가 통곡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날 밤 돌아와 자결하였다. 나이 겨우 스물 여덟이었다. 온 마을이 다 경탄하여 마지아니하였다. 모여서 보는 이치고 느껴 울지 않는 이가 없더니, 크게 한숨 지으며 모

---

52) 『中京誌』

두들 "열녀로다!" 라고 칭송하였다. 안시철은 남은 돈으로 후히 염하여 장사 지내고, 묘가(墓家)까지 마련하였다. 나무와 풀 따위가 묘를 다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이 비갈에 제하여 이르기를 〈고절부지묘(高節婦之墓)〉 라 하였다.[53]

로. 북관열녀(北關烈女)

순조 때 북관열녀(北關烈女)는 그 성을 모르니, 하천 계층 출신이었다. 용모가 위연(偉然)하여 장부의 기상이 있었다. 일찍이 가난한 나날을 보내더니, 지아비와 배필이 되어서는 호서지방으로 가서 취식하였는데, 단양현의 굴속에 살림을 차리고 품팔이로 생계하였다. 그녀의 지아비가 아주 하천한 터이므로, 마을 젊은이들은 그녀의 부색(婦色)을 탐내었다. 그러던 차에 지아비가 병으로 앓아 죽었다. 살길이 없는 데다가 돌보아주는 이도 없었다.

마을의 장가(張哥)라는 젊은 부자가 조상(弔喪)하며 그 부인의 마음을 떠보았다. 부인은 장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장사가 끝날 무렵 장가가 정을 통하고자 하였으나 뿌리침을 받았다. 관을 치우고자 하였

53) 『熙朝逸事』.

어도 뿌리침을 받았다. 조상이 끝나자 장가가 가서 돌보며 이르기를 "언제 장사 지내겠는가?" 라고 물어도 "아니오." 하고, "염한 채 그대로 두겠는가?" 하여도 "아니오."하였다. 이에 장가가 "아아, 그대는 왜 그대의 지아비를 장사 지내려 하지 않는가?" 하였다. 이에 그녀는 "할 수 없소. 그대가 아무리 기다린들 그럴 수 없소." 하고 낮에는 장가의 집에 가 품팔이를 하고 저녁이면 굴속으로 돌아와 관을 베고 잤다. 음식을 얻어왔을 때마다 관 곁에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 아래에 앉아 슬프게 곡하며 가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다가 오래되어서야 밥을 먹었다. 이 말을 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도 슬프고 아픈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한여름이 되어서도 장사 지내지 않으니 시체가 썩어 냄새가 엷은 관으로 새어, 사람들이 맡을 수가 없었으나 그녀는 혼자 그곳에 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범하려 하였으나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장가도 애초에 먹었던 마음을 하는 수 없이 버리고야 말았다.

가을이 되었다. 품팔이한 돈을 셈하니 노자가 될 만하였다. 이에 "고향으로 가서 장사 지내리라."라고 소리 지르니, 온 마을 사람이 다 미치광이라고 웃었다. 어느 날 아침에 조상하고 나서, 마침내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의 말을 고하니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관을 이고 하루에 60리를 가되, 밤이면 들밭에서 노숙하면서 잠시도 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양식이 떨어지면 빌어먹기도 하였다. 며칠을 불식(不食)하기도 하였으니 다리가 실오리처럼 여위었다. 그러나 끝내 수천 리 길을 걸어 향리에 가 장사지냈다.[54]

모. 절부 하씨(節婦河氏)

순조 때 하씨(河氏)는 평안도(平安道) 덕천에 살았으니, 그의 아버지는 개성 사람이었다. 아버지 하천일(河千一)이 가산(嘉山)으로 이사갔는데, 순조 신미에 홍경래가 가산을 함락시켰으므로 하천일이 병을 피하여 덕천 마을에 우거하였다. 난이 평정되매 천일은 가산으로 돌아갔고, 딸은 덕천의 사인 김여횡에게 시집갔다. 여횡은 본디 가난한 가문의 소생이다. 아들 하나를 두더니 아들이 얼마 안 있어 병으로 죽었다.

이에 부모가 딸의 마음을 돌리어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하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시아버지를 봉양하다가 오랫동안 종명(終命)하였다. 애초 지아비가 죽으매 가산이 더욱 쇠락하였으므로, 마을의 골짜기에 장사지내었다. 덕천은 본디 깊은 산골인데다 쑥대 마을이라 낮에도 여우와 삵괭이가 나타나는 곳이었다. 하씨는 어린아이를

54) 『梅山集』.

데리고 나무 섶으로 막을 짓고 묘 곁에 거쳐하면서 삯바느질과 삯일로 제사를 받들었으며, 여축(餘蓄)을 두었다가 지아비의 옷을 지어, 생일이 되면 묘에 제분(祭焚)하기를 해마다 하였으니, 대개 지아비가 생전 때 너무 가난하여 평소에 의관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덕천 사람들이 그 젊은 절개를 불쌍히 여기었다. 지관에 위촉하니 풍수가 불길하다고 하므로 고요하고 넓은 곳으로 이장케 하고, 무덤 곁에 따뜻한 방을 꾸미어 거처하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아들마저 죽으니, 더욱 의지할 곳이 없었다.

부모가 굳이 개가시키려 하므로 독을 먹고 죽으려다 죽지 못한 채, 띠집 속에 30년을 살면서 때묻은 얼굴과 남루한 옷을 입고서 방을 나오지 않고 삯바느질을 하였다. 남의 집 왕래를 반드시 밤에만 했으나, 범 같은 짐승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다 피하였다.[55]

보. 장시호(張時皓)의 처(妻) 배씨(裵氏)

순조 때 배씨(裵氏)는 장시호(張時皓)의 아내요, 배동환(裵東煥)의 딸이다. 성품이 순의하고 행실이 예에 맞았으며 시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동서들과 화목하고

55) 『漫錄』, 『朝鮮女俗考』.

원만하게 지냈고 비복을 거느림에 엄은(嚴恩)하였으므로 집안이 온화하였다.

순조 경신에 읍졸(邑卒) 이갑회(李甲會)가 시가(媤家) 사이가 나빠져서 그가 무고하여 큰 옥사를 일으켰다. 이로써 지아비는 형을 받아 죽었고, 배씨도 멀리 강진의 섬에 정배되었다. 이로써 자녀를 거느리고 황폐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왔으니, 아무 데에도 친척이 없었다. 배씨는 쑥대머리에 때묻은 얼굴로 품팔이와 삯바느질로 외로운 자녀들을 길렀다. 밤을 새워 일을 하곤 하였으므로 몸은 쇠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9년을 보내면서 항상 아들에게 말하기를 "화변을 당하던 날 내 어찌 자결할 수 없었겠느냐마는 지금껏 구차스레 살고 있는 까닭은 너희 남매를 두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자라 다행히 황천의 도움으로 부조(父祖)의 원한을 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 눈을 감으리라."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소학언해》 한 부를 두고 어렵거나 지칠 때면 스스로 관성(觀省)하여, 몸가짐을 하후(夏候)의 영녀(令女)처럼 하고 아들을 가르치되 고인의 충효로써 하였다. 딸을 훈계하되 봉천(奉天) 두씨(竇氏)의 행실로써 하였다.

이 섬의 풍속이 어둡고 사나워서, 턱없이 외로운 과부라고 멸시하더니 어느 날 진리(津吏) 김덕순 · 신한림이 밤중에 쳐들어 왔다. 화를 입힐 기색이 매우 급하자 배씨는 딸

과 함께 빠져 나와 바닷가에 가 호천대곡하였다. 이에 딸이 먼저 몸을 던지려 하자 배씨는 "나는 차마 못 보겠다."라고 하며, 마침내 먼저 바다에 몸을 던졌다. 딸도 따라 몸을 던졌다. 이튿날이 되니, 마을 남녀가 이르기를 "어제 저녁 큰 광주리 같은 별이 앞 바다에 떨어졌으니, 그 때 반드시 절부가 물에 빠져 죽었을 게다."라고 하였다. 사흘이 지나자 서로 껴안은 모녀 시체가 바닷물 위에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를 장사지냈다.

이로부터 해마다 이 모녀가 물에 몸을 던진 날이 되면, 반드시 폭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사람들이 다 처녀바람이라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정배 와서 이 일을 글로 적었다.[56]

소. 김익수(金益秀)의 처(妻) 최씨(崔氏)

철종 때 최씨(崔氏)는 울산(蔚山) 사람 김익수(金益秀)의 아내이니, 임신하여 달이 차서 친정으로 가던 중, 지아비와 함께 내황(內隍) 나루를 건너게 되었다. 이때 지아비가 소에 밀리어 물에 빠졌으므로, 최씨는 가마에서 나와 강 속에 같이 뛰어 들었다. 이때에 헤엄 잘 치는 이가 있어 들어가 구해냈으나 부부는 껴안은 채 죽어 있었다. 예닐곱

56) 『漫錄』, 『朝鮮女俗考』.

시각이 지나 해가 질 무렵이었으나, 사람들은 죽은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여 나루터에 올려놓고 구급술을 썼다. 김익수가 물을 토해내며 되살아났고, 최씨도 피를 토하고 다시 살아나니 태아도 무사하였다. 아들을 낳아 진헌(振憲)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부부가 다 제 목숨대로 살고 죽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열부라고 하였다.[57]

오. 열부(烈婦) 조씨(趙氏)

인조 때의 열부(烈婦) 조씨(趙氏)의 아비 조인필(趙仁弼)은 숙원 조씨의 족당으로, 김자점이 막 역모를 꾸미자, 인필도 가담하게 되었다. 이때 인필의 사위 신모가 발고하여 인필이 마침내 주살되었다. 이에 신모의 아내 열부 조씨는 평생토록 지아비와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여 폐문자수(閉門自守) 하였다. 그러나 신가의 문을 떠나지는 아니하였다. 신모가 더불어 잠자리에 들고자 해도 굳이 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역시 열부였다. 옛날 우문사기(宇文士奇)의 아내는 수나라 양제의 맏 공주였는데, 우문사기가 수양제의 시해에 가담하고 나서 더불어 다시 부부로서 지내고자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송왕경(宋王敬)의 딸과 그녀의

57) 『漫錄』, 『朝鮮女俗考』.

지아비 사조(謝眺)와의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우열을 논하건대 열부 조씨의 처사가 가장 마땅한 바이로다.[58]

조. 정익주(鄭翊周)의 처(妻) 열부(烈婦) 이씨(李氏)

정조 때 사람 홍양호(洪良浩)의 『耳溪集』에 실린 열부 이씨 정려기에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부인은 죽음으로써 열을 행하였으니, 타고난 천성이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마을의 필부가 왕왕이를 행할 수 있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받으며, 적을 만나서는 대신 죽으며, 맹수에 잡힌 사람도 빼어냈으니, 사전(史傳)에도 실려 계고(稽考)할 수 있는 바이다. 제 손으로 살을 베어 이미 다문 입에 넣으려고 핏줄을 끊은 이가 이어 오더니, 이제 정씨의 부인에게서 보는 바이다. 부인은 효령대군의 후예이니, 학생 정익주에게 시집가 집이 매우 가난함에도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였다.

영조 경인 겨울에 남편 익주가 앓더니 열흘이 지나자 병세가 위독했다. 시아버지는 나들이 가고 형제도 없었다. 홀로 병구완하다가 의원을 데려다가 보이니 의원은 넋없이 앉으며 맥이 끊어졌다고 하여 돌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 친척이 와서 보고 "아, 어찌할 수 없도다."하며 이

58) 『星湖僿說』.

불을 덮어 내어 놓았다. 이씨는 울면서 새끼 줄에 목매어 먼저 죽고자 하던 차에 이웃 부인이 말하기를 "일찍이 산 사람의 피와 살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들었으나, 어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소?" 하였다. 이씨는 이웃 부인에게 고맙다며 보내고 얼음으로 몸을 씻은 다음 뜰에 자리를 베풀고 북두칠성께 빌고 나서 곧 방에 들어가 칼로 넓적다리를 베니 피가 출출 흘러나왔다. 이불을 벗기고 지아비의 입에 피를 떠 넣었다. 그리고 다리의 살을 사방 네 치 가량 베어내어 작게 썰어 불에 볶아 입에 넣어주기를 밤새 쉬지 아니하였다. 새벽이 되어서 지아비의 목구멍에서 가늘게 물 당기는 소리가 들리므로 급히 살즙을 내어 물을 만들어 먹였다. 이렇게 병구완을 하여 남편은 며칠만에 병이 다 나았다. 이때 이씨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워낙 허벅지 상처가 심하여 낙태되었다. 아픔을 자력으로 참으며 지아비가 알까 두려워 딸과 머슴에게 말을 내지 못하게 하였다.

오랜 지난 뒤 말이 새어 익주가 알게 되었다. 익주는 이를 알고 크게 놀라 아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고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거늘 어찌 스스로 살을 베었소?" 하였다. 이에 이씨는 "당신은 우리 집안이 형제가 적고 아직 아들까지 없으니 당신이 죽으면 곧 집이 폐하게 됩니다. 내 어찌 살쯤

아픈 것을 못 참아 넘어가는 목숨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행히도 천령의 은덕으로 당신은 병이 나았고, 나도 몸이 온전하니 어찌 걱정을 하십니까?"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원근 사람들이 모여와 다 감탄하였다.[59]

초. 조종도(趙宗道)의 처(妻)

임란 초기 왜군은 14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그야말로 무인지경으로 승승장구하여 평양과 함흥까지 진격할 수 있었지만, 우리 나라와 명나라의 연합군의 맹공과 각지의 의병들의 기습 작전에 진퇴유곡에 빠졌다. 왜군의 큰 병력 손실도 컸으려니와 명나라 측의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에 대한 왜국의 불평 불만과 명나라의 피폐는 양국이 화의 추진의 배경이 되었고, 우리 조정에서 선조 대왕은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차라리 참을 수 있을지언정 화친을 원한다는 말은 들을 수 없다.(死吾寧忍이언정 求和願不聞)"고 하여 화의를 극력 반대하였다. 왜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안한 7개 항의 화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왜군이 재침하게 되었다. 이것이 1597년 1월 14일에 일어난 정유재란이다.[60]

---

59) 『耳溪集』.
60) 김봉현, 「秀吉の 朝鮮侵略と 義兵闘爭」.

8월 15일에 왜적은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淸正),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이끄는 5,800명의 정예부대가 안음과 함양을 침입하자, 전 함양군수 조종도, 안음현감 곽준, 김해부사 백사림(백사림 체직 후 나중에 李柱가 김해부사가 됨), 주민 수 천명이 도체찰사 이원익이 하달한 유성룡의 이른바 청야전법을 구사하기 위해 모두 식솔들과 가재 도구와 식량을 가져와 황석산성(黃石山城)으로 올라왔다.

이 때 전 함양군수 대소헌 조종도 선생은 당시 61세로서 처음에 지리산에서 왜적과 싸울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명을 받아 황석산성(黃石山城)을 지키게 되었다. 선생은 지병으로 이미 함양군수 직을 사임했으나 후임이 부임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처자를 거느리고 황석산성(黃石山城)에 입성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연로하신 데다 지병이 있어 사임했으니 피신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선생은 국난(國難)을 당하여 나라를 등지는 배신 행위는 할 수 없다 하여 입성하자, 백성들도 따라서 입성하였다.

조종도 선생과 곽준은 하늘에 맹세하여 일전을 각오하였다. 8월 18일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성을 함락하니 선생과 곽준 현감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김해부사 백사림은 산성 대장으로 뒤늦게 들어와서 산성이 험준하

니 걱정할 것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백사림은 원래 무용이 뛰어난 장수로 이름이 있었다. 성안 장졸들이 모두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동북문을 지키게 하였고, 선생은 남문을, 곽준 현감은 서문을 지키게 되었다. 왜적이 박두하자 백사림은 왜적의 많음을 보고 몰래 성을 헐고 도망쳤다. 성문이 열려 적병들이 들이닥쳤다.

조종도 선생은 곽준 현감에게 최후를 알리고 관대를 정제하고 적의 칼날을 받았다. 이 때 선생의 부인도 같이 죽었다. 선생은 부인과 두 아들에게 성밖으로 나아가 목숨을 보전하라고 일렀으나 부인은 이를 거절하고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다. 다만 아들 영한은 왜적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아들 영곤은 선생과 부인의 시체를 거두어 성밖에 임시로 가매장했다.[61]

---

61) 『大笑軒趙宗道文集』, 『居昌郡史』.

임진 · 정유왜란과 장수 여인들의 충절

오 병 무
(순천대학교 교수)

1. 서언
2. 장수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 변천
   가. 장수군의 자연 환경
   나. 장수 지역의 역사적 변천
3. 임진(壬辰) · 정유(丁酉) 왜란과
   장수 지역 여인들의 충절
   가. 의기 논개의 충절
   나. 절부 전주 원씨(節婦全州元氏)의 충절
   다. 해주 오씨(海州吳氏)의 충절
4. 결어

1. 서 언

옛날부터 사람들은 장수(長水)를 가리켜 산이 높고 물길이 길어(山高水長)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라 하였다. 이처럼 자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나게 좋았던 관계로 인물(人物) 역시 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는지도 모른다. 조선 초기 명재상(名宰相)으로 널리 알려진 방촌(尨村) 황희(黃喜)를 비롯하여 타고난 선비 만헌(晩軒) 정염(丁焰)과 유헌(遊軒) 정황(丁熿), 그리고 낙파(洛坡) 유후조(柳厚祚) 등 기라성 같은 명현(名賢)들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이들은 대개 이 지역 주민들을 교화(敎化)하니 그들의 교화 정신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바 '장수 이덕(二德) 삼절(三節) 오의(五義)'가 나오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덕이란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 선생과 명재상이자 청백리(淸白吏) 방촌 황희 정승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 지역에 인륜(人倫) 도덕(道德)을 교화하였다. 삼절이란 의암(義巖) 논개(論介)와 호성충복(護聖忠僕) 정경손(丁敬孫)과 무명 순의리(無名殉義吏)를 말하는데, 이들은 죽음으로써 우국충절(憂國忠節)을 보여주었다. 오의(五義)란 삼절의 정신을 이어 구한말(舊韓末)로부터 일제(日帝)의 침략에 항거(抗拒)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위인 의사(偉人義士)로 추

앙받고 있는 유격전(遊擊戰)의 귀재(鬼才) 문태서(文泰瑞) 의병장(義兵將)과 호랑이로 불린 박춘실(朴春實) 의병장과 신출귀몰(神出鬼沒)한 전기홍(全基泓) 의병장과 기미만세 운동(己未萬歲運動)을 주도한 백용성(白龍城) 조사(祖師)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킨 정인승(鄭寅承) 선생을 가리킨다.

아무튼 이덕의 교화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선조(宣祖) 3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인 계사년(癸巳年, 1593) 진주성(晋州城)이 무너지고 조선의 민관군(民官軍) 6만여 명이 이 싸움에서 죽었다. 이 때 이 지역 출신 논개(論介)가 왜장(倭將)을 끌어안은 채 남강(南江)에 떨어져 우국충절(憂國忠節)을 보여주고 순국(殉國)하였다. 이 논개의 우국 충절 정신은 그 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정유재란(丁酉再亂, 1598) 호성충복 정경손과 절부(節婦) 전주 원씨(全州元氏)와 해주 오씨(海州吳氏)는 이 지역 출신이자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왜적에 항거 충절을 보여준 사람들이다. 그 뒤 구 한말(舊韓末)에 이르러 이 지역에서 오의가 나타난 것도 이들의 우국 충절 정신을 그대로 이어 실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주 원씨와 해주 오씨는 부녀자의 몸으로 논개의 충절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실천한 여인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본 고는 논개의 충절정신을 중심으로 전주 원씨와 해주

오씨의 충절 정신을 고찰한 것이다. 이 세 사람에 관한 문헌적 기록(文獻的記錄)은 거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전해오는 문헌적 기록은 지극히 단편적(斷片的)인 것들뿐이다. 따라서 본 고의 내용은 현재까지 전해오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문헌과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그들의 사적(事蹟)을 살펴본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일부분의 내용을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2. 장수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 변천

가. 장수군의 자연 환경

장수군은 전라북도 6시 13군 가운데 하나로서 530.72㎢의 면적에 1읍(장수) 6면(계북, 장계, 계남, 천천, 번암, 산서)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장수군은 전라북도 동쪽 중앙에 위치하여 남쪽은 남원시, 서쪽은 임실군과 진안군, 북쪽은 진안군과 무주군, 그리고 동쪽은 경남의 거창군과 함양군이 각각 접경을 이루고 있다. 동서 거리는 20㎞ 정도이고, 남북은 44㎞, 지구의 좌표로는 북위 35도 동경 127도에 위치한다. 인구는 3만여 명(남녀 공히 1만5천여 명 정도)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장수현(長水縣) 남원진관(南原鎭管) 조를 보면

장수현 남원진관(長水縣南原鎭管) : 동쪽으로는 경상도(慶尙道) 안음(安陰)과의 경계가 50리이고, 서쪽으로는 진안(鎭安)과의 경계가 40리이며, 남쪽으로는 남원(南原)과의 경계가 20리이고, 북쪽으로는 용담(龍潭)과의 경계가 40리이다. 서북쪽으로 서울이 668리 거리에 8일 걸리며, 서쪽으로 감영(監營, 全州)이 140리 거리에 2일 걸리며, 남쪽으로는 병영(兵營)이 440리 거리에 5일 걸리며, 남쪽으로 좌수영(左水營)이 310리 거리에 4일 걸리며, 남쪽으로 우수영(右水營)이 440리 거리에 5일 걸리며, 남쪽으로 통영(統營)이 610리 거리에 7일 걸린다.

방리동신촌읍내면(坊里東新村邑內面)은 편호(編戶) 500호, 남자 987구(口) 여자 1,160구(口)이다. 임남면(任南面)은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에 있고, 편호 633호, 남자 1,137구 여자 1,274구이다. 남신남면(南身南面)은 관문으로부터 20리에 있고, 편호 549호, 남자 864구 여자 977구이다. 서신서면(西身西面)은 관문으로부터 30리에 있고, 편호 312호, 남자 596구 여자 697구이다. 북신북면(北身北面)은 관문으로부터 50리에 있고, 편호 738호, 남자 1,250구 여자 1,419구이다. 임북면(任北面)은 관문으로부터 60리에 있고, 편호 358호, 남자 683구 여자 817구이다. 임현내면(任縣內面)은 관문으로부터 40리에 있고, 편호 710호, 남자 1,253구 여자 1,529구이다. 합편호(合編戶) 3,840호, 남자 6,770구 여자 7,873구이다. 기묘 대장(己卯臺狀)에 기록되어 다스리는 숫자이다.

도로(道路)는 동쪽으로 경상도 안음(安陰)과 경계 육십치(六

十峙)로 가는 길 50리이고, 서쪽으로 진안계(鎭安界)의 율치(栗峙)로 가는 30리이고, 남쪽으로는 남원(南原)으로 가는 수분치(水分峙)로 가는 길 20리이며, 북쪽으로 무주(茂州)와 의 경계로 가는 완경교(翫景橋)가 80리이다.[1)]

본 군의 지형(地形)은, 남쪽으로부터 북쪽은 길고, 동쪽으로부터 서쪽은 좁으며, 동서남북의 주위를 산악이 거듭 쌓아 자연스럽게 하나의 군(郡)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 지리(智異) 속금(束錦) 장안(長安) 덕유(德裕)의 네 큰산이 동쪽을 둘러쌓고, 서쪽에는 팔공산(八公山)이, 남쪽에는 대성산(大聖山)이, 북족에는 장등산(長登山)이 서 있어 하나의 군에 7개의 면의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둘러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수지(長水誌)》 형승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산과 물이 모두 모여 구불구불 이어져 하나의 형국(形局)을 이루었구나. 내가 지나간 400년 뒤에 도학(道學)과 문장(文章)이 세상에 끊이지 않을 것이로다.'고 하였다.

삼가 살펴보면, 덕유산(德裕山) 동쪽에서 산의 맥이 굴곡을 이루면서 가득하게 나와 한 군(郡)의 성채(城砦)를 만들고, 그 사이 물은 나누어져 남쪽으로 구불구불 내달리면서 깊은 웅덩이를 이루어 백리에 들판을 기름지게 한다. 그리하여 산과 물

---

1) 오병무 역, 《장수의 옛 읍지》(장수문화원, 2000), p, 35.

은 사방(四方)을 에워 쌓아 천혜(天惠)의 한 부(府)를 만들었다. 영취봉(靈鷲峰)과 팔공산(八公山)은 많은 석학(碩學)들이 은둔(隱遁)하여 삶을 살았으며, 자락정(自樂亭)과 동정대(動靜臺)는 한량(閑良)과 근심이 없는 선비들과 묵객(墨客)들이 시를 읊던 곳이고, 그리하여 장계(長溪)는 옛날부터 도회(都會)의 땅이라 불렀다. 노단(魯壇)은 이제 군자가 학문을 하는데 마음이 항상 배움에서 떠나지 않는 곳을 이루었으니 그 기상(氣像)이 세상에 한결같이 걸리지 않음이 없게 되었다.

삼가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덕유산이 두 팔을 벌려 껴안고, 서쪽으로는 팔공산이 진압하니 마디마디 맥이 뻗어내려 용이 서려있는 것 같고, 큰 호랑이를 기르는 영웅의 기상과 같다. 그리하여 문인들의 문장이 정치(精緻)하고 외연(巍然)하니 이 곳에서 배출된 영웅 호걸과 문사(文士)들이 번 갈음도 없고 번갈지도 않고 이어져 왔다. 남쪽으로는 물이 나눠져 통하고, 북쪽으로는 연꽃이 피어 있어 보는 곳마다 아침 냇가는 활(弓)처럼 굽어 새(乙)를 그리는 듯 아름답고 잔잔한 물결을 이루며 낚시를 드리운 여울을 때도 없이 넓게 넘쳐흐른다. 어진 사람들의 유적과 선비들의 일화가 있어 때에 어우러져 나타나니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니하는가. 문향(文鄕)의 풍(風)은 산이 높고 물길이 길기에 계속될 것이다.

산과 물을 읊어 이르기를 '한 할아버지로부터 수만의 자손이 나오 듯, 봉우리 수천 개는 네 개의 근원에서 이어졌고, 바닷물을 추상하여 조종(祖宗)의 근원을 세우니 천지의 가운데에 베풀어지더라.'[2]

---

2) 오병무, 상게서, pp. 102-103.

또 《여지도서》 장수현남원지관 풍속조에 '(장수) 사람의 마음은 옛 날 그대로 오랜 옛적 순풍(淳風)과 같다.'고 하였으며[3]. 또 《호남읍지(湖南邑誌》의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 풍속조(風俗條)를 보면, 남사고(南師古)가 평하여 이르기를 '(장수) 사람의 마음은 옛 날 그대로 오랜 옛적 순풍(淳風)과 같다.'고[4] 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에 만들어진 《장수읍지》의 풍속조를 보면 남사고(南師古)가 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장수) 사람의 마음은 옛 날 그대로 오랜 옛적 순풍(淳風)과 같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5].

삼가 살펴보건대, 오히려 나는 앞의 글(南師古의 말)처럼 장수를 그런 고장으로 부르지는 않겠다. 이 고장 선비들은 타고난 소질을 숭상하고, 고을 사람들은 농사짓고 길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미 열성조(列聖朝)께서 쌓은 덕(德)과 쌓여진 인(仁)에 의한 치화(治化)라 하겠다. 주민들이 이룬 습속(習俗)은 정사(政事)를 따르려는 데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남전향약(藍田鄕約)이 있어 예(禮)로써 서로 교유하며 새롭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오래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옛 것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작은 마을에서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가 저물면 책을 읽는다. 초부(樵夫)도 문(文)의

---

3) 상게서, p. 38.
4) 상게서, p. 55.
5) 상게서, pp. 115-116.

어짐과 풍속의 아름다움을 숭상한다. 습속이 비록 여자들에 있어 불과 물의 행동을 한다고 해도 서로 구제(救濟)하려 하고, 슬픔과 즐거움을 당하여서는 서로 물으면서 익힌 것이 풍속을 이루게 되면 주민들은 모두가 안도(安堵)하는 한숨을 쉰다.

한편 《장수읍지》의 내용 가운데 한준겸(韓浚謙)이 쓴 '응벽정 중수기(凝碧亭重修記)'를 보면[6]

> 호남(湖南)에 읍(邑)이 무릇 53 곳이 있어 서로 존숭(尊崇)하며 크게 지내오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이 장수(長水) 한 고을만이 산골짜기 속에 있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척박(瘠薄)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여러 읍 가운데 오직 그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은 한 도(一道)에서 으뜸이다. 경계(境界)가 치우쳐 있어 일이 막히지만 주민들은 순박(淳朴)하여 풍속이 두텁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이 곳을 가리켜 부르기를 '경개(景槪)가 참으로 아름다운 신선(神仙)들이 사는 곳'이라 하였다. 또 방촌(尨村) 황익성(黃翼成)이 백년(百年)을 내다보고, 여러 대(代)를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한 신하로써 너그럽게 남겨 놓은 풍속은 감히 적은 고을을 바꾸어지게 할 수 없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장수는 전라도 53개 고을 가운데 산간벽지로 사람이 살기에 땅이 척박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산수의 아름답기로는 전라도에서 으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라도 53개 고을 가운데 한쪽에

---

6) 상게서, pp. 294-295.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인심(人心)이 순박(醇朴)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장수 지역의 인심이 그렇게 순박한 것은 익성공 황희의 교화의 공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장수 지역은 산과 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빼어난 곳이고, 그 산과 물의 빼어남에 따라 인심 역시 순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천(山川)을 살펴보면, 산들은 장수읍 남쪽 수분치(水分峙, 수분이재)를 통하여 연결 군 전체를 금강 수계(錦江水界)와 섬진강 수계(蟾津江水界)로 갈라놓고 있다. 섬진강 수계는 다시 서쪽 오수천 유역(獒樹川流域)의 산서지구(山西地區)와 동쪽 요천 유역(蓼川流域)의 번암 지구(磻巖地區)로 나뉘며, 번암 지구에는 장수읍의 서남부와 동부가 포함된다. 그런데 두 지구는 동쪽과 서쪽에 마치 등진 듯이 자리잡고 그 사이의 산이 험하여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우나 그러면서도 다같이 장수보다는 남원(南原)과의 교통이 편리하다. 금강 수계는 위의 두 지구와 반대로 북쪽으로 비스듬한데 장수와 장계(長溪) 계북(溪北) 지구로 나눌 수 있다. 장수 지구는 천천 유역(天川流域)의 장수 분지(長水分地)와 그에 연결되는 천천면(天川面)의 골짜기로 이루어지며, 장계 지구는 장계면(長溪面)과 계남면(溪南面)으로 대부분이 장계 분지에 포함되지만 장계면 동쪽, 육십령(六十嶺) 아래의 명덕리(明德里) 일대와 계남

면 남쪽 장안산(長安山) 장안리 일대가 소구역으로 분리된다. 계북 지구는 남쪽 어전리(於田里) 농소리(農所里)와 북쪽 양악리(陽岳里)의 두 구역으로 나뉜다.

장수군의 기후는 남부 내륙형(內陸型)에 속하여 기온의 년교차(年較差)가 심하고, 고원(高原)이어서 서리(霜)의 해를 받는 수가 많다. 남덕유산 장안산 팔공산 등 1천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사방을 둘러쌓고 있어 계절풍의 영향은 비교적 적으나 대륙성의 냉한 기온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기온은 년 평균 11.5℃, 1월 평균 -4℃, 8월 평균 25.5℃ 가량이다. 한 해 동안의 강수량은 1,348㎜정도로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편이다.

장수군의 주 산업은 물론 농업이지만 위와 같은 지형과 기후 등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낮은 지대의 산서면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제약을 받는다. 경지 면적이 100여㎢로 군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채 못되며 수리 시설도 넉넉한 편이 못된다. 그러나 그런대로 쌀 위주의 곡물 농업과 고랭지의 이점을 살려 밭 채소 농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일이 나기도 한다. 그 동안 담배와 약초의 재배가 성하였는데 최근에는 인삼(人蔘)의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산간지의 초지(草地)를 이용 소와 염소를 기르거나 돼지 등도 상당량 기르고 있기

도 하나 축산 파동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기도 하였다.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與地勝覽)》을 보면, 장수의 특산물로 닥나무(楮)와 뽕나무(桑)이 있다[7]고 기록되어 있으며, 뒤에 이루어진 읍지 등의 기록에는 오미자(五味子)·인삼(人蔘)·자초(紫草)·석이버섯·벌꿀·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 그리고 당시 조정에 진상(進上)했

---

7) 오병무, 전게서, p. 24.

8) 《대동지지》에는 닥나무(楮)·뽕(桑)·칠(漆)·감(柿)·오미자(五味子)·석이버섯(石蕈)·꿀(蜂蜜)이 보이며, 《여지도서》에는 오미자(五味子)·석이버섯(石蕈)·자초(紫草)·봉밀(蜂蜜)·시호(柴胡)·적전(赤箭)·목단피(牧丹皮)·승마(升麻)·현삼(玄蔘)·천마(天麻)·초룡담(草龍膽)·산약(山藥) 등이 보이고, 《호남읍지》에는 오미자(五味子)·석이버섯(石蕈)·자초(紫草)·꿀(蜂蜜)·시호(柴胡)·목단피(牧丹皮)·승마(升麻)·현삼(玄蔘)·천마(天麻)·초룡담(草龍膽)·산약(山藥)·적전(赤箭) 등이 보인다. 한편 《장수지》에는 오미자(五味子)·석심(石蕈)·자초(紫草)·봉밀(蜂蜜)·시호(柴胡)·목단(牧丹)·승마(升麻)·현삼(玄蔘)·천마(天麻)·초룡담(草龍膽)·산약(山藥)·적전(赤箭)·산삼(山蔘)·인삼(人蔘)·사삼(沙蔘)·당귀(當歸)·천궁(川芎)·백복령(白茯令)·청옥채(靑玉菜)·자옥채(紫玉菜)·길경(桔梗)·미궐(薇蕨)·송이(松栮)·포균(苞菌)·산정(山精)·황정(黃精)·마령서(馬鈴薯)·저피(楮皮)·피마(皮麻)·고초(苦椒)·홍시(紅柿)·생율(生栗)·완초(莞草)·칠(漆)·연초(煙草)·잠견(蠶繭)·금광(金鑛) : 번암면에 있다.·수연광(水鉛鑛) : 명덕리에 있다.·석기(石器)·자기(磁器)·도기(陶器)·유기(鍮器)·기유기(杞柳器)·은어(銀魚) : 번암면에서 나온다.·외어(鮠魚) 등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던 진공(進貢)으로는 건시(乾柿) · 청(淸) · 대상(大箱) · 소상(小箱) · 조소(條所) · 건치(乾雉) · 백자(柏子) · 초석(草席) · 대소맥(大小麥) · 신도미(新稻米) · 호도(胡桃) · 생리(生梨) · 생저(生猪) · 생토(生兎) · 백포(白布)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9]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역시 장수 지역은 그 때도 산간 오지(奧地)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장수 지역에 금 은 구리 석탄 흑연 몰리브덴(水鉛) 등 유용한 광물(鑛物)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음이 밝혀져 한 때 광업도 꽤 성한 편이었으나 지금은 채산이 맞지 않아 시들하고,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 상태이다. 금은 번암 · 영대 · 죽림 등의 광산에서, 구리는 팔공 광산에서, 몰리브덴은 장계면 명덕리의 장수 광산에서 각각 생산하였다. 특히 몰리브덴은 생산량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공업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장수읍 대성리 일대의 곱돌로 만드는 장수 석기(石器)는 널리 이름이 나 있다.

장수 지역의 교통은 옛날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편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 《호남읍지(湖南邑誌)》 장수

---

9) 오병무, 전게서, p. 136.

10) 2등로(二等路) : 동쪽으로는 함양(咸陽) 경계로부터 서쪽으로는 진안(鎭安) 경계에 이르는 40리이다.
3등로(三等路) : 북쪽으로는 무주(茂朱)로부터 장계(長溪)에 이르고, 2등로와 함께 십자(十字) 거리를 이루면서 남원(南原)의 경계에 이르는 100리 길이다.

현조에는 '서울까지는 668리이고, 감영(監營)까지는 150리이며, 병영(兵營)까지는 440리이고, 좌수영(左水營)까지는 310리이며, 통영(統營)까지는 400리이고, 우수영(右水營)까지는 420리이다.'라 기록되어 있다. 또 《대동지지(大東地志)》 장수현조를 보면 '장수 지역의 강계(疆界)는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함양군(咸陽郡)에 이르러 경계를 이루는데 육십령(六十嶺)이 있다.(당시 장수현으로부터 40리 떨어져 있었다.), 서쪽으로 진안군(鎭安郡)과 경계를 이루는데 율현(栗峴, 밤고개)이 있다.(현으로부터 30리 떨어져 있었다.), 남쪽으로 남원군(南原郡)에 이르러 경계를 이루는데 대론리(大論里)가 있다.(현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었다.), 북쪽으로 무주군(茂朱郡)과 경계를 이루는데 원촌리(院村里)가 있다(현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었다.). 그때 당시 동쪽으로부터 서쪽은 77리요, 남쪽으로부터 북쪽은 100리이며, 서울까지는 모두 560리 거리다.'라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장수 지역에 철도(鐵道)는 지나가지 않지만 교통은 비교적 편리한 편이다. 남원에서 장수를 거쳐 무주읍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군을 남북으로 꿰뚫고 있고, 동서로 전주(全州)로부터 육십령을 넘어 경상도(慶尙道)로 통하는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구석구석 마을마다에도 웬만큼은 길이 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군의 남쪽에 소위 '88올림픽

고속 도로'가 번암면의 한 자락을 지나가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전(大田)- 통영(統營) 간의 고속 도로가 완성된다면 장수군의 교통은 좀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나. 장수 지역의 역사적 변천

장수군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본래 백제(百濟)의 백이군(伯伊郡, 또는 伯海郡이라고도 함)을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친 것으로 장계현(長溪縣)이라 부른다.(지금의 長水와 鎭安郡) 그 영현(領縣)은 둘로, 진안군(鎭安郡)은 본래 백제의 난진아현(難珍阿縣)을 경덕왕이 이름을 고친 것인데, 그대로 부르고(지금 鎭安) 고택현(高澤縣)은 본래 백제의 우평현(雨坪縣)을 경덕왕이 이름을 고친 것인데 장수현(長水縣)이라 부른다.(지금의 長水)[11]

위의 기록은 백제(百濟) 말기 장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설관치수(設官置守)'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들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면 지금의 장수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장

---

11) 《삼국사기(三國史記)》,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 3

수현(長水縣)과 장계현(長溪縣) 두 고을로 나뉘어 있었고, 그밖에 몇 개의 '소(所)'라는 고을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번암면의 전부와 산서면의 대부분은 본래 남원부(南原府)에 속한 땅으로 1906년에 이르러서야 장수군에 편입되었다.

앞의 《삼국사기》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의 장수군은 삼국 시대의 백제 땅으로 그 당시 그 곳에는 백이(伯伊, 또는 百海)와 우평(雨坪)이라는 두 고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12] 다만 이 두 고을이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로 되었으며, 그리고 백제의 지방 행정 체제에서의 위치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백제는 서기 660년 신라와 중국 당(唐) 나라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일단 나라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663년 주류성(周留城)이 함락됨으로써 백제인들의 국가 부흥 운동이 좌절 그 영토는 당 나라와 신라에 의해 양분되었다. 660년 이후 4년 동안 백제 영토의 동반부(노령산맥 동쪽 즉 지금의 경남 일원, 경북 서남부, 전남북의 동부 산악지대)는 신라에 점령되었고, 그 서반부 평야 지대는 당 나라에 직속되었다. 이 때 백이와 우평 즉 장수군은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2) 상게서,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 4. '백해군(伯海郡) 일운(一云) 백이(伯伊)(지금의 장수) (중간 생략) 우평현(雨坪縣)(지금의 長水)

신라는 새로운 점령지를 직접 통치하였다. 당시 점령지는 웅진 도독부(熊津都督府) 관할 아래 1부 7주 51현으로 개편 동시에 각 주 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신라는 웅진 도독에 백제 의자왕의 태자 부여 융(扶餘隆)을 임명하고, 주자사(州刺史)와 현령(縣令)에 백제인들을 기용하였다. 그러나 곧 당 나라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백제 영토를 분할 점령한 두 나라는 668년 또 연합하여 고구려(高句麗)를 쳐서 멸망시켰으나 670년부터 서로 적이 되어 싸웠던 것이다. 이 전쟁은 앞서와 달리 거란(契丹)과 말갈(靺鞨)을 동원한 당 나라가 속국 백제와 연합하고, 신라가 일부 고구려인들과 연결하여 대립한 형국이었다. 이 때 옛 백제의 임진강 유역이 주된 전쟁터였다. 하지만 당시 당 나라 국내의 정치적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신라가 유리하였으며, 676년 기벌포 해전(伎伐浦海戰)을 끝으로 당 나라는 한반도에서 물러났다.

당 나라가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그 동안 이미 반쪽 영토의 대부분을 신라에 빼앗긴 백제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전 국토가 신라에 합병되니 건국 후 700여 년만에 멸망된 것이다. 신라에 합병된 옛 백제의 영토는 신라 신문왕(神文王) 5년(685)까지 신라의 4주(四州, 서비 · 完山 · 發羅 · 菁), 3소경(三小京, 金官 · 南原 · 西原) 그리고 다수의 군 현(郡縣)으로 개편되었다. 신라는 경덕왕(景德王) 16

년(757) 당 나라의 방식으로 따라 전국의 주 군 현 제도를 개편하여 그 령속(領屬) 체제를 강화 이름까지 모두 중국식의 한자(漢字)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에 따라 지금의 장수군에 있던 백이(伯伊, 海)는 벽계군(碧溪郡)으로 바꾸어 전주(全州, 完山) 총영부(總領府)의 영군(領郡)에 속하게 되었고, 우평(雨坪)은 고택현(高澤縣)으로 바꾸어 진안(鎭安, 難珍阿)현과 함께 벽계군의 영현(領縣)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라의 개혁은 당시 무열왕조(武烈王朝)가 날로 쇠약해 가는 지배권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한 중국화 정책(中國化政策)의 일환으로서 지방 통치를 강화하려는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조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었지만 그나마 20여 년 만인 혜공왕 12년(776) 정식으로 취소되고 따라서 백관(百官)의 호(號)가 모두 복구되었다. 백이의 대부분은 우평을 포함한 각 주 군 현 등의 이름도 환원되었다. 아무튼 무열왕조의 개혁 시도는 실패하였고, 그 실패는 왕조의 종말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10여 년 동안이나 잇달아 내란이 일어나던 가운데 혜공왕이 피살됨으로써 무열왕조는 8대 127년만에 단절되고 선덕왕대(780~785)의 과도기를 거쳐 원성왕조가 들어서게 된다.

역사에는 780년 이전의 무열왕조 시대를 신라의 '중대(中代)', 그 이후를 '하대(下代)'로 구분한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원성왕조도 한번 실추된 왕조의 지배권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사실은 신라 자체가 이미 쇠망기에 들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으며, 게다가 왕조 교체의 과정에서 한결 격화된 지배층의 분열상이 이를 한층 더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는 이제 바야흐로 '열국(列國)' 시대라고나 할 지방 분권의 시대인 '호족(豪族)' 시대로 접어든다. 한국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이 큰 분열기였던 호족 시대는 한편으로는 좀더 새롭고 바람직한 재통일(再統一) · 재화합(再和合) · 재분배(再分配) 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또 준비해 가는 격동기였다. 한편 지방의 각지에 웅거하여 '성주(城主)'니 '장군(將軍)'이니 자칭하면서 멋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던 호족들은 '천하통일(天下統一)'을 위해 서로 싸웠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 사이에 지배 복속의 관계가 생기고 나아가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성립되었다. 그 때 장수군 지역은 물론 후백제의 세력권에 들었다.

그리하여 후백제와 고려 두 나라가 한 동안 쟁패하였으나 935년에 겨우 명맥만 유지해오던 신라 왕조가 고려에 투항하고, 그 이듬해에는 고려가 후백제를 패망시킴으로써 마침내 통일이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 초기는 실상 호족 시대의 후반기로서 그 때에는 아직 왕조의 통치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 왕조는 현종 9년(1018)에야

비로소 항구적인 통치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이전에도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의 제도가 시도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고을의 이름이 다시 중국식의 한자 이름으로 고쳐진 점은 특히 주목된다. 그 기분은 앞서 신라에서 정하여 일시나마 쓰였던 것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것을 중국식인 용어로 바꾼 것이었다.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장계현(長溪縣) : 본래 백제(百濟)의 백해군(伯海郡, 海는 伊로도 썼다.)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이 벽계군(壁溪郡)이라 하였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래속(來屬)하였다가 뒤에 장수현(長水縣)에 이속(移屬)하였다.

장수현(長水縣) : 본래 백제(百濟)의 백제의 우평현(雨坪縣)이었는데,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이 고택(高澤)으로 고쳐 벽계군(壁溪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으며,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래속(來屬)하였고, 공양왕(恭讓王) 3년 장계(장계)를 겸임(兼任)하였다. 요해처(要害處)로 육십현(六十峴)이 있어 현으로부터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로 가는 길이다.[13]

아무튼 그 무렵 백이(해, 벽계군)와 우평(고택군)도 각각 '장계(長溪)'와 '장수(長水)'로 개칭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 그것이 차차 공공의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

13) 《고려사(高麗史)》, 卷五十七 志 卷十一 地理 二.

이를테면 장수와 장계라는 지명이 역사에 처음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현종 9년 성립된 고려의 지방 통치 제도는 외형으로 전국을 경기(京畿, 뒤에 開城府)와 호경(鎬京, 西京 즉 평양) 그리고 12개의 '계수관도(界首官道)'로 제법 정연하게 나눈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 제도는 고려 왕조와 지방 호족 세력간의 일종의 타협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었다. 12계수관은 4대 도호부(사)(四大都護府)(使, 安東 · 慶州 · 安西 · 海州 · 安北 · 寧州 · 安邊 · 登州)이다. 그런데 그것은 신라의 9주(도독부)와 비슷한 것으로서 각각의 구역이 따로 있는 하나의 '고을'이었지만 오늘날의 '군(郡)' 위의 '도(道)'와 같은 상급 지방 행정 기구는 아니었다. 하나의 계수관과 그에 관령(管領)되는 약간의 부(府, 知事) · 주(州, 防禦使 · 知事) · 군(郡, 知事) · 현(縣, 令) · 진(鎭, 將) 등이 함께 계수관도를 구성하였다. 그 계수관과 부 등의 '수령관(守令官)'은 각각 서로 다른 하나의 고을로서 동격이었고 실제로 주요 행정에서 상호 독립적이었다.[14] 계수관도는 사실 행정도가 아니라 군사도로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

14) 수령관은 '수령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으로 썼다. 《고려사>>에는 계수관의 '영부(領府), 영군(領郡)'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이렇게 통칭한다. 수령이 배치된 고을이라는 점에서 각 계수관은 물론 왕경(王京) 개성부까지도 실은 모두 하나의 수령관이다.

것이다. 계수관을 포함하여 각각의 수령관은 그 직촌(直村, 직할 구역)과 함께 다수의 임내(任內) 즉 속(屬)·부(府)·주(州)·군(郡)·현(縣)·부(部)·곡(曲)·향(鄕)·소(所)·처(處)·장(莊) 등을 관할하였다. 그런데 임내도 실은 수령만 없을 뿐 각각 독자의 구역에 관사(官司)와 향(鄕, 長·吏)가 따로 있었고 편호(編戶)·부세(賦稅)·부역(賦役) 등 일체의 행정이 별도로 영위되던[15] 하나의 완연한 별개의 고을이었다. 또한 그 수령관의 임내를 포함하는 관할 구역도 하나의 작은 군사도(軍事道)였다.

위의 편제에서 장수와 장계는 의당히 전주(계수관)도에 속하였다. 그러나 그 때 장수와 장계는 어느 하나도 수령관이 되지는 못하였고 그 부근에 있던 양악소(陽岳所, 계북면 양악리 일대)·이방소(梨方所, 천천면 남부 남양리 이방 일대)·천잠소(天蠶所, 천천면 춘송리 일대?)·복흥소(福興所, 장수읍 대성리 일대) 등과 함께 모조리 남원부(南原府)의 임내에 속하여 그 속현이 되었다. 그것은 호족 시대로부터의 지방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바로 당시에 장수 지역이 남원의 세력에 지배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현종 9년의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고려말까지 지속되지만 중기 이후부터 많이 변모하기 된다. 우선 3경(三

15) 다만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이웃 수령관에게 위임 통치되던

京)의 설치 등으로 말미암아 계수관의 수와 그 관내(管內)의 변동이 있었다. 특히 많은 임내가 현령관(縣令官)과 지사관(知事官) 또는 새로운 제도인 감무관(監務官) 등으로 독립되어 수령관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그와 함께 허다한 임내의 소속이 변동되고 다수의 월경지(越境地, 어떤 고을의 경계 밖의 동떨어져 있는 관할 지역)와 두입지(斗入地, 경계는 연결되지만 다른 고을의 영역 속으로 마치 혹처럼 또는 반도처럼 길게 쑥 내민 지역)가 발생하였다.

또한 많은 고을이 승격(昇格) 또는 승호(昇號)되고 목(牧) 도호부(都護府) 등 고위(高位)의 수령관이 마구 증가됨으로써 계수관의 기능이 위축되어 유명무실해졌다. 반면에 두서너 개의 계수관도 또는 수령관도를 묶은 5~8개의 안찰(렴)사도(按察(廉)使道)가 새로 성립되었다 (예 : 全羅州道) 그리고 대군사도 이기도 한 안찰사도는 원래 임시의 순찰 구역이었으나 안찰사의 권능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마침내 공양왕 1년(1389)에는 전임(專任)의 관찰사(觀察使)가 주재하는 상급 지방 행정 구역이 되었다.

그 동안 장수 지역은 여전히 남원부의 임내로서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고려 왕조의 멸망 직전 공양왕 3년(1391)에야 장수현과 장계현이 감무관으로 독립되고 그와 함께 그 부근의 양악소 등이 두 현의 임내로 이관되었다. 다만 그 때에도 장계현에만 감무가 배치되었을 뿐 장수현

은 감무관이기는 하나 실제로 감무가 파견되지는 않은 채 장계현의 감무가 겸임한 것이었다. 조선 초기 세종 때 만들어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전라도(全羅道)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장수현(長水縣) : 본래 백제(百濟)의 우평현(雨坪縣)이었는데, 신라(新羅)가 고택현(高澤縣)으로 고쳐 장계(長溪)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는 장수현(長水縣)으로 고쳐 남원부(南原府)의 임내(任內)로 하였다. 본 조(本朝) 태조(太祖) 원년 임신(壬申) 다시 나누어 장수군으로 하고, 장계군(長溪郡)과 함께 감무(監務)를 겸하도록 하였다. 태종(太宗) 14년 갑오(甲午) 장수에 현감(縣監)을 두고, 장계를 고쳐 래속(來屬)시켰다. 옛 속현이 하나(1)이다. 장계는 본래 백제의 백이군(伯伊郡)이었는데, 신라가 고쳐 벽계군(壁溪郡)이라 고쳤으며, 고려는 장계현(長溪縣)으로 고쳐 남원(南原)의 임내(任內)로 하였다가 뒤에 래속시켰다. 소(所)가 3개인데, 천잠(天蠶) · 양악(陽岳) · 이방(利方)이다. 사방의 경계는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안음(安陰)이 37리 거리이고, 서쪽으로는 진안(鎭安)이 23리 거리이며, 남쪽으로는 남원(南原)이 14리 거리이고, 북쪽으로는 금산(錦山)이 46리 거리이다. 호수(戶數)는 320이고, 인구(人口)는 812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 9이고, 지군(鎭軍)이 17이며, 선군(船軍)이 159이고, 방패(防牌)가 1이다. 토성(土姓)이 셋 있는데 이(李) · 정(井) · 고(高)이고, 망성(亡姓)이 하나인데 오(吳)이며, 속성(續姓)이 하나인데 황(黃)이다. 장계의 성씨는 다섯이 있는데 백(白) · 배(裵) · 유(柳) · 오(吳) · 현(玄)이며, 속성이 하나인데 김(金)으로 향리(鄕吏)이다.

양악의 성씨는 둘이 있는데 이(李) · 최(崔)이다. 이방의 성씨는 하나가 있는데 배(裵)이다. 땅이 매 마르고, 기후가 차다. 개간(開墾)한 밭이 1,773결이고, 땅에 마땅한 것은 오곡(五穀)과 뽕나무(桑) · 삼(麻) · 닥나무(楮) · 왕골(莞)이다. 토산(土産)의 공물(貢物)은 호리피(狐狸皮) · 황모(黃毛) · 칠(漆) · 시(柿) · 조(棗) · 이(梨) · 오미자(五味子) · 석심(石蓴) · 인삼(人蔘) · 지초(芝草) · 봉밀(蜂蜜) · 황랍(黃蠟) · 석(席)이다. 약재(藥材)로는 목단피(牧丹皮) · 백복령(白茯苓) · 복신(茯神) · 백작약(白灼藥) · 전호(前胡) · 백부자(白附子) · 당귀(當歸) · 달담(獺膽) · 건강(乾薑) · 맥문동(麥門冬)이다. 도기소(陶器所)가 한 곳 있는데 현의 북쪽 판둔리(板芚里)에 있다. 요해지(要害地)가 한 곳 있는데 육십현(六十峴)으로 현에서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안음(安陰)으로 가는 곳을 가리킨다. 월경지(越境地)가 있는데 금산군(錦山郡) 안성소(安城所)의 땅으로 현의 북쪽 이흘음리(伊迄音里) 및 양악소(陽岳所) 사이이다.[16]

조선 왕조의 지방 통치 제도는 이미 태종(1400-1418) 때에 대개 확립되고 세조(1455-1468) 때에 그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그것이 그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성종15, 1484)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실상 기본적으로 고려 왕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그 일부를 보완한 것이었다.[17] 그러나 조선 왕조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또 주력

16)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卷一百五十一.
17) 이 때의 제도에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몇 가지 개선된 점이 있었다. 첫째로 한국사(韓國史)에서 처음으로 상급 지방 통치 조직인

했던 임내의 혁파(직촌화), 월경지와 두입지의 정리, 군소 고을의 폐합들은 별로 성과가 없이 대개는 실패하였다. 즉 그 기간에 일부 임내가 직촌으로 되거나(특히 전라도에서 많음) 감무관이 되기도 하였지만 16세기말까지도 아직 많은 임내가 남아있었고 월경지는 1906년까지도 무려 100여 곳이나 존속했다. 또 각 고을간에는 면적과 인구수의 차이가 아주 심하였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지방 통치 체제가 매우 불합리하고 불완전했으며, 한편으로는 왕조의 통치권에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 전토는 2도(二都)와 8도(八道) 아래의 4부(평양 영흥 전주 경주) 4대 도호부(영변 안변 강릉 안동) 20목 44도호부 82군 34현령관 141현감관(합 331관)으로 구획되었다. 그리고 그 체제는 그 뒤 큰 변동이 없이 고종 32년(1895)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동안의 변화로는 16, 7세기의 왜(倭)와 호(胡)의 침략 전쟁(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에 군비 강화책으로 독진(獨

'도(道)'의 체제가 확립되고 그에 따라 태종 13년(1413)까지 8도가 확정되었다. 둘째로 계수관제가 진관제(鎭管制)로 바뀌었다.(세조 12, 1466) 셋째로 모든 감무관이 현감(縣監)으로(1413), 모든 지사관이 군수(郡守)로 단일화되었다.(1466) 넷째로 부(유수, 윤) 대도호부(사) 목(사) 외의 도호부 군 현(령, 감) 중 많은 고을의 이름이 개정되어 혼잡이 줄었다. 즉 그 이름에서 '주(州) 관호(官號)가 제거되고 "산(山) 천(川)'자로 대치되었다.(1413) (州는 본래 지명이 아니고 관호였으나 고려 시대 이후 점차 지명의 일부로 되었다)

鎭)이 증설됨에 따라 상당수의 고을이 승격되고 약간의 고을이 승격되거나 폐합 또는 신설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대전회통(大典會通)》(고종 2, 1865)에 의하면 당시의 편제는 5도(京都漢城府 · 舊都開城府 · 江都江華府 · 南城廣州府 · 水原府)와 8도 아래의 5부(의주 · 평양 · 함흥 · 전주 · 경주), 5대도호부(영변 · 영흥 · 강릉 · 안동 · 창원), 20목 75도호부, 77군, 26현령관 122현감관(합335관)으로 왕조 초기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장수군 지역에는 조선 초기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즉 고려 공양왕 3년(1391) 감무관이 되고 그 감무가 장수현을 겸임했던 장계현이 바로 그 이듬해인 조선 태조 1년(1392)에는 처지가 바뀌어 오히려 장수현의 겸관(兼官)이 되었다.[18] 그 뒤 곧이어 양악소 · 이방소 · 천잠소 · 북홍소 등과 함께 고을 자체가 폐지되어 장수현의 직촌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신라 시대에는 군(郡)이었고 고려 때에도 비록 남원의 임내 일망정 엄연히 하나의 고을이었던 장계현이 없어져 버리고, 4개의 소(所)까지 6

---

1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장수읍(長水邑)조에를 보면, 속현(屬縣)에 장계현(長溪縣)이 있는데, 현의 북쪽 30리에 있다. 본래는 백제의 백해군(伯海郡)인데, 해(海)는 혹 이(伊)로 쓰기도 한다. 신라 때 벽계군(碧溪郡)으로 고쳤다. 고려에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남원부에 속하였다가 뒤에 장수현(長水縣)에 딸리고, 별호를 장세(長世)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개의 고을이 장수현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장수현은 태종 13년(1413) 감무가 현감으로 바뀌고는 조선말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의 계수관제에서는 남원 계수관의 관할이었고 세조 12년(1466) 이후의 진관제에서도 남원 진관에 속하였으며(현감이 兵馬節制都尉를 겸임) 왜란과 호란 후에 진관제와 별도로 신설된 진관(鎭管, 東伍軍營 討捕營)제에서도 전라도 좌영(左營, 남원, 뒤에 운봉)에 속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면제(面制)[19]가 성립되는데, 면의 이름이 처음 기록된 《동국여지지(東國與地誌)》(현종 11, 1670) 면 이름이 처음 표기된 《여지도서(輿地圖書)》(영조 35, 1759) 그리고 《호구총수(戶口總數)》(정조 13, 1789) 등에는 장수현의 면이 7면,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8면으로 나온다. 《호구총수》에서 장수현의 면 이름을 살펴보면, 읍내면(邑內面)·남면(南面)·서면(西面)·북면(北面)·북이면(北二面)·임현내면(任縣內面)·임남면(任南面)이 있다. 한편 남원부에서 현 장수군에 속한 면의 이름을 살펴보면, 내진전방(內眞田坊)·외진전방(外眞田坊)·상번암방

---

19) 면(面)은 본래 촌(村)이었다. 신라에서는 대개 한 고을을 3촌으로 나누어 상(上) 중(中) 하촌(下村) 또는 일(一) 이(二) 삼촌(三村)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4촌으로 동·서·남·북촌(東西南北村)이라 했으며 조선에서도 촌(村)·방(坊)·사(社)·리(里)·부(部) 등이 혼용되고 방위(方位) 이름이 여전히 사용되었다.

(上番巖坊) · 하번암방(下番巖坊)이 있다.(이는 뒤에 장수군에 편입된 남원부의 4개 방 죽 지금 장수군의 번암면과 산서면 서부 지역을 포함시킨 것이다.)

고종 32년 (1895)부터 1914년 사이에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한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지방 통치 제도의 개편이 단행되었다. 그 개편은 물론 침략자 일본이 한국을 효율적으로 침략 지배 수탈하기 위하여 조직하고 지도하고 강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제도가 해방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껏 거의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어쨌든 장수현은 고종 32년에 군이 되고 동시에 23부제의 남원군(관찰사)에 속했다가 그 이듬해에는 13도의 설치로 전라북도(관찰사)에 속하였다. 또한 광무 10년(1906)에는 남원군의 두입지인 상 중 하 번암면과 진전방이 편입됨으로써 대체로 오늘날의 영역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914년 종전의 13면 254리가 다음과 같이 7면 73리로 폐합되었다.(그 동안 면의 이름들이 개칭되고 진전면이 분할된 것을 알 수 있다.)

(1) 장수면(長水面, 13리 ; 水南面 22리, 水內面 17리)

(2) 산서면(山西面, 14리 ; 水西面 16리, 內眞田面 27리, 外眞田面 8리)

(3) 번암면(磻巖面, 11리 ; 상번암면 14리, 중번암면 8리, 하번암면 24리)

(4) 천천면(天川面, 10리 ; 천천면 34리)

(5) 장계면(長溪面, 10리 ; 溪東面 15리, 溪西面 21리)

(6) 계남면(溪南面, 8리 ; 계남면 29리)

(7) 계북면(溪北面, 7리 ; 계북면 18리)

장수면은 전국의 모든 면 급의 군청소재지를 읍(邑)으로 하는 조치에 따라 1979년 5월 1일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장수읍에 있는 장수 향교(長水鄕校)는 정유왜란(丁酉倭亂) 때도 소실(燒失)되지 않았으며, 꽤 오래된 건물이 잘 보존되고 거기에는 많은 서책들이 남아 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열성이 대단하다.[20] 한편 고장수(古長水)는 장수 서쪽 7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지금의 어느 곳이었는지(송천리?) 언제 그 곳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는지 잘 알 수 없다. 또 장계 남쪽 1km의 계남면 침곡리 옛터(古基)는 장계현의 치소(治所) 터라고 하는데 역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

---

20) 본고 주, 59) 내용 참조.

3. 임진(壬辰) · 정유(丁酉) 왜란과 장수 지역 여인들의 충절

가. 의기 논개의 충절

먼저 논개의 순국에 관한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조 선조(宣祖) 25년(1592) 10월 5일 하시바(羽柴藤元郎 : 실은 長谷川藤五郎)를 대장으로 한 3만 명의 왜적은 영남 지방의 요새지인 진주성을 공격해왔다. 그 때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안에 있는 아군의 사기를 고무하는 등 왜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진주성에 다달은 왜적들은 성 근처에 있던 큰 대나무(竹)를 베어다 비루(飛樓)를 만들어 그 위에 올라 성 안에 있는 아군에게 총을 쏘아댔다. 성 안에서는 왜적의 총에 대항하여 화약을 장치한 대기전(大岐箭)을 쏘아 비루를 파괴하는 등 왜적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이 때 성 밖 한편에서는 의병장(義兵將) 곽재우(郭再祐)가 의병을 이끌고 왜적의 후방을 공략하면서 성 안에 있는 아군을 응원하였다. 이에 왜적은 11일 밤 최후의 결전(決戰)을 결의한 뒤 성벽을 기어올랐다. 이에 아군은 마른 갈대에 화약을 싸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적에게 던지고, 한편으로는 끓는 물과 돌을 왜적에게 던져 왜적의 공세를 분쇄하였다. 이에 왜적은 막

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진주 목사 김시민은 성루(城樓)에 올라 많은 왜적을 사살하였지만 왜적으로부터 부상을 당하여 몇 달 후에 순국(殉國)하였다.

이러는 상황 아래에서 중국 명(明) 나라와 일본이 화의(和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남 일대를 본거지로 하고 있던 왜군은 지난 김시민에 의한 패전을 복수하고 지리상의 요충지인 진주성을 확보키 위해 선조 26년(1593) 6월 가또오(加藤淸正)·고니시(小西行長)·구로다(黑田長政) 등이 이끄는 대군을 동원 진주성을 총공격해왔다. 이 때 아군은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明元)·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 권율(權慄) 등이 의령(宜寧)에 도착했으나 왜적의 기세(氣勢)에 눌려 후퇴(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직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만이 양산숙(梁山璹)·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의병장(義兵將) 고종후(高從厚)·사천 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등과 함께 진주성에 들어가 앞서 들어와 있던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과 합세하고 뒤이어 의병장 강희열(姜熙悅)·이해(李海)가 성안을 들어왔다. 이 때의 성안에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은 아군과 6·7만명의 백성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투력은 태부족이었다. 성 밖에 중국 명 나라와 우리 아군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이들은 방관만 하는 상태에 있었다.

6월 20일 왜적의 선봉(先鋒)은 약 5만명으로 진주성을 포위한 채 치열한 접전을 하였다. 이 때 김준민(金俊民)·장윤·황진 등이 전사하였다. 그동안 귀갑차(龜甲車)를 이용하여 공격하던 왜적이 29일 마침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이 왜적을 피해 도망하니 군사는 흩

어지고 말았다. 이 때 김천일 · 양산숙 · 최경회 · 오빈(吳玭) 등 수십 명은 남강(南江)에 투신 순국(殉國)하고 강희열 · 이잠(李潛) 등은 적진으로 돌격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21]

이제 논개의 순국 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서 《어우야담(於于野談)》[22]이다. 그런데 이 유

---

21) 유홍열(柳洪烈) 감수,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 (교육도서, 1989, 서울), p.1372. 참조.

22) 논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어우야담(於于野談)》이다. 《어우야담(於于野談)》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이다. 한글본과 한문본 두 종류가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와 연대는 불분명하다. 이 《어우야담》은 현재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어우야담》 필사본은 '장서각본(藏書閣本)' '연세대본(延世大本)' '천리대본(天理大本)' '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이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 13년(1621)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이 민간에 흩어져 있는 야담과 설화를 모아 저술한 것이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유몽인은 명종(明宗) 14년(1559) 사간(司諫) 충관(忠寬)의 손자이자 당(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당 · 간재(艮齋) · 묵호자(默好子)이며,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그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선조 15년(1582) 진사가 된 뒤 158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문장에 뛰어났으나 성품이 경박하여 스승의 책망을 받고 절교를 당하자 이이첨(李爾瞻) 등 당시 대북파(大北派)와 교유하면서 중북(中北)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우계 성혼이 죽자 스승을 모독하는 글

몽인의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2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계사년(癸巳年)[24]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

을 써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폐모론(廢母論) 때 이이첨과 대립, 이에 가담치 않아 인조반정 때 화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유응시(柳應時)의 고변으로 기자헌(奇自獻)·유경종(柳敬宗) 등이 반란을 일으킨 이괄(李适)과 내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하려 하자 양주(楊州)의 서산(西山)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이원익(李元翼)·김상헌(金尙憲) 등의 문초에 모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지은 '상부사(孀婦詞)'에서 인조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아들 약(瀹)과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조선 중기의 설화문학의 대가였으며 전서·예서·해서·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정조 때에 이르러 신원되어 이조판서가 추증되었고 홍양의 운곡사(雲谷祠)와 완주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배향되었다.

23) 《어우야담》은 유몽인이 광해군 13년(1621) 당시 여러 지방의 민간에 흩어져 구전되던 것을 채록하여 만든 것이다. 이 《어우야담)》 권일(卷一) 인륜편(人倫篇) 효열(孝烈) 조(條)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야담과 설화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헌 설화(文獻說話)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 논개의 생애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다고 하겠다. 즉 논개의 성씨와 본관, 출생과 이름, 출생지와 성장지, 신분 등에 관하여 그 동안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바 이설들이 많이 있으며, 이 이설들 때문에 야기되었던 또 다른 이설들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촉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 그녀를 꾀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 때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로다.25)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25) 류몽인, 《어우야담》 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즉 '論介者 晋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靚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巓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歟哀哉.'라 한 기록이다.

즉 앞부분은 논개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어우당 유몽인 나름의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평가라 하겠다. 앞의 기록에서 '논개'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관기로서 왜적에게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논개는 진주성이 함락되어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게 되자 나라와 백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장한 뒤 남강(南江) 가의 바위에 앉아 왜적의 장수를 유인하여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사람들이 관기란 원래 음탕한 창녀(娼女)라 하여 정열(貞烈)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몽인이 볼 때 논개는 관기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정열이 있었고 충(忠)을 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관기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일반 사서임(士庶人)들이나 양반의 부녀자들이 행할 수 있는 충과 열을 궁행(躬行)하였다는 것이다. '충(忠)'이란 원래 '충성(忠誠)'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교(儒敎)의 덕목(德目)의 하나로 임금에 대하여 신하와 백성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충(忠)'이라는 문자는 '중(中)'과 '심(心)'이 합(合)해져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형태가 나타

내듯이 인간의 내면적 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마음에 의하여 남을 이해하려는 것이 '서(恕)'라 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거짓이 없이 말(言語)로 행하려는 것이 곧 '신(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몽인이 앞의 글에서 논개가 궁행하였다고 평가한 '충'이란 정치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대의(大義)를 위한 자발적이고 실천적 헌신으로 본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열(烈)'이란 원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싸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뒤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효종(孝宗) 2년(1651) 당시 간관(諫官) 오두인(吳斗寅)[26]이 쓴 <

---

26) 오두인은 인조(仁祖) 2년(1624) 상(翔)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숙부 숙(翻)에게로 입양(入養)되었다. 그의 자는 원징(元徵)이고, 호는 양곡(陽谷)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인조 26년(1648)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합격한 뒤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지평(持平)·장령(掌令)·헌납(獻納)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다가 다음 해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 청(淸) 나라에 다녀왔다. 숙종(肅宗) 5년(1679)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 나라에 다녀와 다음 해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1682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공조 판서를 역임하다 숙종 15년(1689) 형조 판서로 재직 중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西人)들이 정치에서 실각(失脚)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삭직(削

의암기>가 있다.[27] 그 내용을 살펴보면

職) 당하였다.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폐위(廢位)되자 이세화(李世華)·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국문(鞫問)을 받았으며 의주(義州)로 유배(流配) 도중 숙종 15년(1689) 파주(坡州)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곧 복관(復官)되었으며 뒤에 그에게 영의정(領議政)이 추증되었다. 파주의 풍계사(豊溪祠)·광주(光州)의 의열사(義烈祠)·양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의성(義城)의 충열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 《양곡집(陽谷集)》이 전해 오고 있다.

27) 이 글은 《양곡집(陽谷集)》 권삼(卷三)에 있는데 《양곡집》은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의 저술로 4권 2책으로 되어 있는 인쇄본이다. 영조(英祖) 22년(1746) 아들 태주(泰周)와 사위 도암(陶巖) 이재(李縡)가 간행하였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1651) 쓰여진 것이다. 오태주는 현종(顯宗) 9년(1668) 두인(斗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도장(道長)이고, 호는 취몽헌(醉夢軒)이고, 본관은 해주이다. 그는 현종의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결혼하였으며 숙종 5년(1679)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다. 그는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예서(隸書)에 능통하였다. 그는 1689년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아들을 세자(世子, 景宗)로 책봉(冊封)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가 한 때 삭직 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예에만 열중하였다. 그는 숙종 42년(1716) 죽었다.

이재는 숙종 6년(1680) 진사(進士) 만창(晩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희경(熙卿)이고,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이며, 본관은 우봉(牛峯)이다. 그는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찬집청 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端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봉교(奉敎)로 있으면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 이듬해 홍문관(弘文館)·헌납(獻納)·북평사(北評事)를 역임타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는 노론(老論)의 일원(一員)

진양성 촉석루 아래 남강 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속에 솟아 있다. 물에서 그 바위로 건너가려면 한 걸음밖에 안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계사년(癸巳年)[28]에 왜적이 침입해 오자 창의(倡義)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官妓) 논개(論介)만은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로 여겨 순국(殉國)키로 맹세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위태로운 지세(地勢)를 겁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뭍으로 논개를 꾀어 내려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

으로 《가례원류(家禮源流)》 시비가 일어났을 때 소론(少論)을 통박하기도 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중부(仲父) 만성(晩成)이 옥사(獄死)하자 정계에서 은퇴하고 인제(麟蹄)로 들어가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전념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중추적 인물로 등장하였다. '심성론(心性論)'에 있어 이간(李柬)의 학설을 지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 당시 낙론(洛論)의 대표적 학자가 되었다. 그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조광조(趙光祖)·이이(李珥)를 사숙(私塾)했으며 《율곡전서(栗谷全書)》를 산정(刪定)하기도 하였다. 그는 서화(書畵)에도 능통하였다. 영조(英祖) 22년(1746) 그는 죽었다. 용인(龍仁)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도암집(陶庵集)》이 전해 오고 있다.

28)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였다고 한다.

(중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가 김창의(金倡義)[29]와 함께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몇 명의 왜적을 두 팔에 끼고 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의열(義烈)이 많다는 말인가.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으로 증명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일진져!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하여 한 사람도 빼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前省略> 噫.癸巳于今甲子纔一

---

29) 여기서 '김해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는 이종인(李宗仁)을 가리키며, '김창의(金倡義)'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을 가리킨다. 이종인의 자는 인언(仁彦)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귀침(龜琛)의 아들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다. 뒤에 무예(武藝)를 익혀 무과(武科)에 급제한 뒤 선조 16년(1583) 군관(軍官)이 되어 이제신(李濟臣)의 반란(叛亂)을 토평(討平)하는데 종군(從軍)하였으며, 북방(北方) 수비(守備)에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부임하여 진주성(晋州城)이 왜적에게 포위(包圍)되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황진(黃進) 등과 함께 성을 끝까지 방어(防禦)하였으나 함락당하게 되자 적병(賊兵)을 양팔에 한명씩 끼고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뒤에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추증하였으며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周 而以如彼堂堂死義之所 尙未能辦其彼此 是何禮義之邦而文獻之不足徵耶 殊可欠也. 然而均是死於義 則彼亦一義也. 此亦一義也. 俱可謂確乎其不可拔者 何傷竝稱其義於此巖也.)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晋陽)에 다다르니 이 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이 날 강변에 제단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된 바 있어 마침내 촉석루에다 '의암기'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원문 생략)

위의 내용은 아마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인용하여 거기다가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좀더 상고(詳考)하여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김해 부사 이모(李宗仁)' 역시 진주성이 함락되자 양팔에 왜적 한 명씩을 끼고 남강(南江)에 투신 숙국하였는데 그 투신한 곳이 바로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던 '의암(義巖)'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해 부사 이종인은 이 때 이미 그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으로부터 인정되어 순국한 그에게 포상이 이루어졌고 충민사(忠愍祠)에 그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어 있었다. 오두인이 바로 이 점을 착안하여 이 글을 썼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도 한 사람(이종인)은 포상이 되고 사당에 위패까지 봉안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논개)은

미천한 관기라 하여 그녀의 행적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포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발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으로 증명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일진저!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하여 한 사람도 빨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고 반문한 것이리라.

그 뒤 진주 지역의 지방관들이 논개의 순절에 관한 내용을 소(疏)나 계(啓)로 올린 것이 있다.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30] 《충렬실록》 권이(卷二), <비변사장(備邊司狀)>[31]

---

30)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순조(純祖) 31년(1831) 정덕선(鄭德善) 등이 편찬 간행하였다.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한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 등 27명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김시민을 충민사(忠敏祠), 최경회 등을 창렬사(彰烈祠)에 배향(配享)하게 된 전후의 사실(事實)과 포상문(褒賞文)을 실은 다음 수성기(守城記), 함성기(陷城記), 소계(疏啓),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충렬실록》의 편찬과 간행 년도가 순조 31년(1831)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그 이전의 것들이다.

의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촉석루 아래의 남강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死義)한 뒤 오직 한 기생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촉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
>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갑자기 추락 당하는 그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

31) 비변사장(備邊司狀)이란 비변사에 올린 장계(狀啓)를 말한다. 비변사는 조선 시대 관청의 하나로 일명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라고도 하였다. 비변사가 정규(正規)의 관청(官廳)이 되어 독자적(獨自的)인 합의 기관(合議機關)이 된 것은 명종(明宗) 9년(1554)이다. 비변사의 권한(權限)이 강화(强化)된 것은 임진(壬辰) · 정유왜란(丁酉倭亂) 이후인데 변경(邊境)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행정(一般行政)도 모두 이 곳에서 의논(議論)하여 결정(決定)하게 되었다.

>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이란 호를 새기었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
> (중략) 당시에 전몰한 제신(諸臣)들에게는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義烈)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낱낱이 품달(稟達)하여 처분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原文省略>)[32]

이를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이 인용하여 경종 2년(1722) 2월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를 올린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 …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암(義巖)이란 전각(篆刻)

32) 이 글은 당시 진주 사인(士人)들이 전진주(前晋州) 별장(別將) 윤상보(尹商輔)에게 장문(長文)을 우병영(右兵營)에 올리도록 권유하였는데 그 때 그 권유를 받아드려 윤상보가 쓴 것이다.

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고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아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땅히 포이지례(褒異之禮)를 참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방도를 통하여 찾아보았으나 그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어우야담》의 내용 가운데에서 논개의 순국 사실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최진한은 《어우야담》의 내용과 '의암'이라 새겨진 전각(篆刻)을 대조해 보고 비교도 해 보았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논개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 허람된 전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논개가 비록 처음에는 창기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마침내에는 의(義)를 위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정의 아무런 조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 조정으로부터 마땅한 포이지례(褒異之禮)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최진한의 주장이다. 이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개의 포양(褒揚)을 경종(景宗)에게 계문(啓聞)[34]하

33) 여기서 '야담고기'란 곧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마침내 예조로 하여금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한 뒤 시행토록 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관문(關門)[35]을 보내게 되었다.

>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하게 의거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한 뒤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原文省略>)

위의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아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정에서 작은 힘이나마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확신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그녀의 순국 사실을 논의하기 어려운 까닭에 더 조사하여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관문을 보냈던 것이다. 앞의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최진한은 진주의 사인(士人)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나머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

34) '계문(啓聞)'이란 관찰사(觀察使)나 어사(御使)가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말함.

35) '관문(關文)'이란 상급(上級)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公文)을 가리킴.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세우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6]

'의암사적비'를 건립한 우병사 최진한은 그 뒤 다시 비변사(備邊司)에 신보(申報)[37]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서적(書籍)은 고금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서는 의거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한 뒤부터 영남 사람들이 명명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이 없는 데다 족속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

---

36) 이 비석은 경종 2년 4월 민관(民官)이 함께 재정을 출자하여 세운 것으로, 비문은 정식(鄭栻, 1683-1746)이 지었다. 이 비문에는 《어우야담》의 논개 순국 사실을 전제한 뒤 '이 내용은 당시의 실록 즉 《어우야담》에서 나왔으므로 지금 비문을 새김에 있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대로 (그 내용을) 비에 옮겨 새긴다.'고 되어 있다.

37) '신보(申報)'란 하급자(下級者)가 상관(上官)에게 보고(報告)하는 것을 말함.

> 며, 야담의 글은 고인(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義擧)한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을 품게 한 폐단을 풀도록 하십시오.(<原文 省略>)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도 논개의 사적에 관한 기록이 관청의 문적 가운데에는 찾아 볼 길이 전혀 없었지만 '의암'이라 새겨놓은 바위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비문이 곧 논개의 의거를 증빙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암(義巖)'이라 바위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는 논개가 순국한 뒤 영남 사람들에 의해 '의암'이라는 말만이 전해 오게 되었는데 몇 몇 선비들이 논개의 의거 사실을 애석하게 여겨 새겨놓은 것이라 한다. 그 뒤 논개가 순국한지 백여 년이 지나 자손도 없고 족속도 없어 그녀의 사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의암 위에다 비석 하나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비문의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 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의암'이라 새겨진 바위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보는 바이고, 《어우야담》은 옛 사람들의 공의(公議)에 따른 것이니 논개의 의거(義擧)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이 두 가지 내용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논개의 의거 사실을

인정 포이지전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최진한의 신보(申報)를 받아 본 비변사에서는 다시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재관문(再關文)을 보낸다.

관기 논개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에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38]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39]을 보이도록 하라.(<原文 省略)>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그 동안 조정에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최진한의 신보(申報)로 말미암아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논개의 순국에 관해 논의한 바 그녀의 자손을 찾아 그들에게 급복(給復)과 포이지전을 베풀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 재관문(再關文)을 받은 최진한은 비변사에 다음과 같은 연보(連報)[40]를 한다.

---

38) '급복(給復)'이란 세금(稅金)과 부역(負役)을 면제(免除)해 주는 것을 말함. '복(復)'은 '제(除)'와 같은 의미이다.

39) '포이지전(褒異之典)'이란 공적(功績)을 특별히 찬양하여 특전(特典)하는 일을 가리킨다.

40) '연보(連報)'란 이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의기 논개의 자손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조사하여 물었더니(查問) 지방관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41]합니다.

이 연보에 의하면 논개에 관한 칭호가 관기에서 '의기(義妓)'로 바꾸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의기 논개의 자손을 찾기 위해 해당 관청에 관문을 보내 조사토록 하였으나 논개는 원래 자손이 없었고 그녀와 관계가 있는 족속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의 관문이 경상우병사의 관할지로 보냈는지 아니면 논개가 태어나 성장한 곳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논개의 자손이나 족속을 찾아본 즉 아무도 없었기에 급복의 특전을 베풀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이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 뒤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청증직소(請贈職疏)'를 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 사실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

---

41) '첩보(牒報)'란 서면(書面)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첩정(牒呈)'과 같은 의미이다.

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해 마지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晋州)에 부임한 뒤에야 과연 촉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노(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도리켜 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에 절개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42]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낀 바위에는 '의(義)'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표(情表)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만이 탄식하고 애석해 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년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

42) 여기서 '야담(野談)'이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말한다.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전하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 업무도 복잡하고 군사를 휼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할 방도에도 겨를이 없아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43]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이 순국한 후 원한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原文 省略>)

위의 내용은 논개에게 증직해 줄 것을 임금에게 직접 청원하는 소장의 일부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표하는 상장을 내려 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마침내는 임금에게 직접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내용과 그녀에게 증직할 것을 청원하는 소

---

43) '외월(猥越)'은 '와람(猥濫)'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짓이 분수(分數)를 넘음.

(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 16년(1740) 마침내 논개에게 '의기(義妓)의 정포(旌褒)'가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22년(1798)에 이르러 우병사 안숙(安橚)이 작성한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의 내용 가운데

> 영조 16년(1740)에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다.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게 정려의 은전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1740)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개에 대한 '관기'라는 표현이 아닌 '의기(義妓)'로서의 정포를 윤허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집약하여 <의기전(義妓傳)>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44] <의기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4) <의기전(義妓傳)>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1739)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文集)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의기전>은 진주에 '의기사(정려)'가 창건(創建)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기전>의 끝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임금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기(義妓)의 정려(旌閭)를 세우라 명(命)하였는데 정려는 의암(義巖)의 북쪽 수십보(數十步) 거리에 있다. (上聞之 命立義妓之閭 閭在義巖北數十步許)'

만력(萬曆) 계사(癸巳) 6월 그믐에 왜적들이 진주성을 함락시켰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論介)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의암(義巖)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웠다. 춤이 어느 정도 이르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모든 적들이 크게 놀라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적들은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하여 달아나고 무너져 (적에게 함락되었던) 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선비들은 독서를 통해 의리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을 할 때마다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배회하며 결연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저 무지하고 한결같이 천한 창기(娼妓)가 사직을 걱정하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다. 미소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나와 승승장구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아군에게) 패잔하여 상처만 남은 데에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南方)의 수백 년의 근기(根基)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앞 옛 역사에 일찍이 있었던가? 나는 이경(李璥)과 백사림(白士霖)의 무리들을 초청하여 이를 일러주고자

한다.(萬曆癸巳六月晦日賊陷晋陽城 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喟然曰國事至此生不如死 然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酋長喜而來 遂嫣然而迎與之舞 舞將半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欲救之已無及矣. 賊喪其帥大亂奔潰城復全. 嗟乎. 士讀書講明義理平居談論莫不自許以忠臣烈士. 而及一朝遇事變未免徘徊 於死生之間不能決然於能魚之分 卒爲天下後世笑者種種焉. 彼無知一賤娼之能憂社稷扶綱常. 含笑臨江視死如歸了無讖毫顧惜之意. 而又其奇謨秘策出於人意慮不到 殲賊魁於乘勝方張之際 振士氣於敗衄殘傷之餘 損一縷而爲南方數百年忼復根基者. 此果前古史所嘗有者乎. 吾欲招李璥白士霖輩而告之)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구체화 내지는 사실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성품을 적게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윗 글에서 보면 당시의 선비들의 생활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당시의 선비들은 "아! 선비들은 독서를 통해 의리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을 할 때마다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배회하며 결연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여 선비들은 평소 의리를 배우고 익혀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면서도 실제로 눈앞에 사변이 일어나니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결연치 못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한 두 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논개는 무지하고 미천한 창기(娼妓)였지만 "사직을 걱정하고 강상을 부지하였다. 미소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설픈 선비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의리를 배우지도 않았고 평소에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지도 않았지만 국가와 백성의 안위(安危)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이르게 되자 사직(社稷)[45]을 걱정하였고 강상(綱常)[46]을 부지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한 삶과 죽음이 아닐 것인가? 마침내 그녀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

45) '사직(社稷)'이란 원래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사(祭祀)를 말하였으나 뒤에 의미가 바뀌어 국가(國家)로 쓰이게 되었다. '사(社)'는 토지(土地)의 정령(精靈), '직(稷)'은 곡신(穀神)으로 구별하나 합하여 토지의 신이라 보기도 하며 왕조(王朝)의 시조(始祖)를 제사지내는데서 비롯되었다.

46) '강상(綱常)'이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도덕(道德)이다. 삼강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리요, 오상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가리킨다.

나와 승승장구하는 왜적의 우두머리 곧 장수를 죽였으니 아군에게 패잔하여 상처만 남은 데에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의 수백 년의 근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논개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에 의한 순국은 당시 왜적의 침략을 당해 패잔의 상처와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영남과 호남에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근기(根基)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개의 순국 결과에 대하여 '앞 옛 역사에 일찍이 있었던가? 참으로 논개의 순국은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나야 할 것이 아닌가?'고 박태무는 평가하고 있다.

그 뒤 진주성 경내에 의기사(義妓祠)가 창건되었는데, 정약용(丁若鏞)[47]이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

---

47)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晋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敎) 교명(敎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 해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檗)으로부터 서학

은 것은 1780년 이후로 추정된다.[48]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인(婦人)들의 천성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 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하고 지조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의 도리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단 말은 듣지 못하였다.

(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베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48) 의기사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1780)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1726~1791)가 보수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丈人)이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충신 지사(忠臣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49]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촉석루 위에 써 붙인다.(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 矧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晋州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

49)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란 '홍화보(洪和輔)'를 가리킨다.

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恚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眇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 皦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觖 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矗石樓上.[50])

위의 글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의 의리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

50)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논개가 생장했다고 전해지는 장수(長水)에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가 세워졌다.[51]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난(國難)[52]을 당하였음에도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槪)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일진대 한갖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烈烈)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에 근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하고 감개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 하노라.(疾風板蕩 不拘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尙 況人之名 節源於天性 布

---

51)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장수현 옥(獄)거리 지금의 (현 장수읍 장수리 277번지에 헌종(憲宗) 12년(1846) 논개의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장수 현감 정주석 자신이 비문을 지었다.

52) 여기서 '국난'이란 선조(宣祖) 25년(1592) 발발했던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人之耳目者乎. 熄余六旬腐儒 終无成己之功 每於如斯人豊功義烈艷服起敬 尋常感恨无 今於義妓竪名傳 後以生平 趍走下風 願謹以書記識. <後略>)

위 비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논개의 인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이긴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위의 글에서 보면, 당시 정주석은 장수군수로 부임한 뒤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바 논개가 국난을 당하여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烈士)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갖 여자의 몸으로 대의(大義)를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겨 순국하였다는 사실과 그렇게 순국한 논개의 충열에 대하여 삼가 옷깃을 여미게 되었고, 그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이 감동하고 감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나머지 정주석은 논개가 순국할 당시를 회고해 보았는데 그녀의 "늠름한 열기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에 근원해서 사람의 이목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주석은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스스로 원하였기에 삼가 글로 그 내용을 적어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주석의 말에서 논개의 타고난 성품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절부 전주 원씨(節婦全州元氏)의 충절

절부(節婦) 원씨(元氏)은 생원 대균(大均)[53]의 딸이다. 비암(秘巖) 박이항(朴以恒)[54]에게 시집을 갔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운산(白雲山)[55]으로 피난하였다. 그런데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발 남원성(南原城)을 함락한 왜적들

---

53) 대균(大均)의 성은 원씨(元氏)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이 칭하기를 '3세 상사(三世上舍)라 하였다.

54) 박이항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호가 비암(秘巖)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현(聖賢)의 책을 읽기 좋아하였으며, 자연을 벗삼아 종적을 감추었다. 일찍이 덕문(德門)에 들어가 그 닦음이 현저하여 〈팔덕문가(八德門歌)〉를 지었다. 한편, 덕업계(德業禊)를 만들었는데, 입계(入契)한 사람 모두가 현인(賢人)과 군자(君子)들이었다. 도암(陶庵) 이경광(李絅光)과 만헌(晩軒) 정염(丁焰) 등 여러 유현들과 함께 종유 하였다. 압계사(鴨溪祠)에 배향되었다.

55) 백운산(白雲山)은 군의 서쪽 산서면 백운리에 있는데 진안(鎭安)과 경계를 이룬다. 《장수읍지(長水邑誌)》를 보면 백운산은 '옛날 원씨(元氏) 절부(節婦)가 죽음으로 절열(節烈)을 지킨 곳이다.'고 되어 있다.

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감행하였다. 이 때 원씨 부인이 피난하고 있던 백운산에도 왜적이 들어와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왜적에게 발견되어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함께 피난했던 사람들이 그녀의 순절 사실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만헌(晩軒) 정염(丁焰)이 듣고 그것을 저술하여 오늘에 전하게 되었다. 당시 조정에서 이 내용을 듣고 그녀에게 정려를 내렸는데, 산서면(山西面) 백운리(白雲里) 죽동(竹洞)[56] 마을 앞에 보존되어 있다.

다음의 글은 만헌 정염이 쓴 절부 전주 원씨에 대한 〈원씨전(元氏傳)〉 이다.

節婦元氏傳(原文)

晩軒 丁焰

節婦元氏는 儒士朴以恒婦人也이다. 朴君이 常從聞人遊坐에 輒斂膝談古講義하니 乃其雅素也.라. 然이나 拙於身謀하여 體無完衣하니 蓋其內氏之賢則輩流中有未及知者焉이라. 萬曆壬辰에 倭寇長驅하여 充斥內外하니 世族良家被其據逼者何限而其固志抗節을 守死不汚六七年間에 著稱於聞見者蓋僅有之矣.라 丁酉秋에 賊陷南原에 縱兵四出하여 搜剔山谷하니 朴君이 携家入白雲山할

---

56) 신서면(身西面)은 1912년 행정 구역 변경으로 오늘날의 산서면으로 바뀌었으며, 죽동리는 오늘의 산서면 백운리에 속해 있는 신월의 신흥, 즉 죽동(竹洞) 한글 이름 '대삿골'을 가리킨다.

새 元氏知將不免하고 念釋在死하여 謀諸所天曰與其團聚幷禍는 莫若別窴하여 以僥倖子之偸生也하라. 妾之自處已所定矣라 하고 乃夫背男하며 母掖女하여 自匿於顚木下叢竹間하니 卒小兒驚叫에 賊이 趁之하여 欲以歸에 威暴萬狀이라. 元氏病弱餒之하되 猶能自力提兒하고 挽竹罵賊하되 棲且不得하야 遂一揮殲母 及二女從行赤脚하여 與同竄獲免者로 出語其故頗詳하니 聞者莫不聳聽이라. 先是에 朴君이 語及松都節婦罵賊死하고 設遇此子汚而解我則爲之乎아. 曰是何言耶오. 只義不可受汚니 死則同死라 何可稱停輕重於其間乎리로. 至是에 其貞操義烈이 不但如前日所言而已라. 旣又徵其行則大抵待人以誠하매 孝友於家에 養繼母하니 初待之甚薄이러니 卒能底豫라 夫之兄이 乏井使臼에 以己婢與之하니 舅氏亟稱其溫惠라 朝不謀夕而預儲祭需하여 祀事不愆이라. 有嘗德夫君者睹其亡하여 饋長腰五斗甁粟이나 方罄而固辭不受하니 斯其賢矣乎저. 其他檢押이 足人聽聞者亦多라. 蓋元氏三世遊上庠에 慮或有儒家餘韻之及而朴君이 談古講義之效 未必無於閨閫之內也라. 玆表而書之하여 使處夫三綱者로 又當知所以率人者哉저. 繼之以詩曰 賊豈要他頭아 夫應我骨收라 合當如是死하니 淚亦不能流.라.[57]

다음은 위의 글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절부(節婦) 원씨(元氏)는 선비인 박이항(朴以恒)의 아내이다. 박군은 항상 학식(學識)이나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을 좇아 놀면서 옛 이야기나 의리(義理)에 대한 강의(講義)를 듣게 되면

57) 《벽계승람(碧溪勝覽)》. p. 405. 재인용.

갑자기 무릎을 단정히 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평소의 모습이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단장(丹粧)하는데는 서툴러 몸에 맡게 옷을 입는 일이 없었으니 대개 그의 아내의 현숙(賢淑)함의 도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노닐던 무리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미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 선조(宣祖) 35년(1592) 왜구(倭寇)가 쳐들어와 오래도록 (우리 백성들을) 핍박하니· 세족(世族) 양가(良家)에서 협박으로 억누름을 입은 것이 어찌 끝이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의지(意志)를 굳게 하고 절의로 항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죽음으로 지키기를 6, 7년 동안, 보고 들음에 현저하다고 칭송할만한 사람은 대저 겨우 몇 사람 있지 아니하였다.

정유년(丁酉年) 가을 왜적이 남원성을 함락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 산골짜기까지 (우리 조선 백성을) 찾아 없애버리려 하였다. 박군(朴君, 이항) 가속(家屬)들을 거느리고 백운산(白雲山)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원씨(元氏) 부인은 장차 죽음이 있을 것을 생각 면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은 하늘만이 알고 있는 바라 모여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화(禍)를 함께 하자고 이르고 만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요행히 그대들은 구차스럽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원씨 부인은 스스로 자기의 몸둘 곳을 정하였다. 이에 남편 박군은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원씨 부인은 딸아이를 양 겨드랑이에 낀 채 전목(顚木) 아래 대나무 숲 사이로 숨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놀래 울부짖으니 왜적이 달려들어 여러 가지로 위협과 폭행을 하고자 하였다. 원씨 부인은 (원래) 병약한데다 굶주림에 지쳐 있었기에 오히려 자기의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안은 채 대나무를 당기면서 왜적을 꾸짖기를 '내 살 곳을 또한 얻지 못하였노라.' 하였다. 마침내 어미를 한 칼에 죽이고 맨발의 두 딸아이도 따라 죽였다.

함께 걱정을 하다가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와 그 연고를 자세히 말하니 듣는 사람들이 귀가 먹지를 않았는데도 소리가 없었다. 이에 앞서 박군은 송도(松都)의 어떤 절부(節婦)가 적을 꾸짖다가 죽음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설령 이런 경우를 만나 당신의 몸이 더렵혀지고 내가 죽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 (그녀가) 이르기를 '이 무슨 말인가?'라 하고 '다만 의(義)롭다면 더럽힘을 받지 못할 것도 없고, 죽어야 한다면 함께 죽을 것이다. 어찌 그 가르침에 가볍고 무거움을 가히 정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이르러 그녀의 정조(貞操)와 의열(義烈)은 전일(前日)에 말한 바와 같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행동을 징험(徵驗)한 즉 대저 사람을 대함에 성의(誠意)로써 하고, 가정에서는 효우(孝友)를 다하고, 계모(繼母)를 봉양함에 처음에는 대접이 심히 박대하였으나 마침내는 기쁘게 해드렸다. 시아주버니가 지극히 가난하자 이에 자기의 비(婢)를 주니 시아버님께서 그녀의 따뜻한 은혜를 사랑하고 칭송하였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거리가 막연할 정도라. 그래서 미리 제수(祭需)를 마련 제사를 받드는데 허물이 없도록 하였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가 망한 것을 보고 항아리가 빌 것을 생각 다섯 말(斗)의 벼를 보내주면서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와 같은 행위는 그의 현명함이 아닌가? 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잡도리는 사람들이 만족해하였으며, 들은 사람 역시 많았다. 대개 원씨는 삼대(三代)를 거쳐 성균관(成均館)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가문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혹 어떤 유현(儒賢)이 나오고 가정에 여유가 있게 되면 (책읽는) 소리가 여기 저기에 미쳤다. 그리하여 박군은 옛 것을 담론하고 의로움의 효험(效驗)을 강론하였는데 집안의 안사람들까지 반드시 미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글로써 나타내 무릇 삼강(三綱)의 도리(道理)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사람을 거느리는 까닭을 알게 함이 아니겠는가? 이를 이어 시(詩)로써 이르노니

賊豈要他頭아

夫應我骨收라

合當如是死하니

淚亦不能流.라

선조 31년(戊戌, 1598) 만헌(晩軒) 정염(丁焰) 기(記)하노라.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원씨 부인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전주 원씨는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적의 죄악을 꾸짖다 왜적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는 곳 정약용의 〈의기사기〉 가운데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고 한 말이나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한 것에서 원씨 부인의 죽음이

일반 부인들의 죽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약용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인들의 천성(天性)이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죽은 것을 일컬어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과 군신간의 의리인 '충(忠)'을 지켰다는 사실에서 논개의 순국의 의의를 찾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씨 부인의 죽음에서 곧 절열과 충의를 충분히 실천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원씨 부인의 행위는 어쩌면 논개의 충절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논개의 태생지나 원씨 부인이 난을 피하다 순절한 곳이 멀지 않은 곳에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원씨 부인의 남편 박이항은 평소에 아내 원

씨 부인에게 송도의 절부(節婦)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논개의 사적도 이 때 담론으로 거론되었으리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 해주 오씨(海州吳氏)의 충절

해주 오씨(海州吳氏)의 충절(忠節)과 열행(烈行)에 관한 자세한 문헌적 기록은 없다. 다만 현재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입구 도로변 920번지에 비각 하나가 있고, 전해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이 비각 안에는 자연 석재(石材)를 이용하여 전면에 '수열평(樹烈坪)', 후면에 '임진위양사순처오씨열행립(壬辰爲梁思舜妻吳氏烈行立)'이라 각각 음각(陰刻)한 비석 1기가 세워져 있다.[58] 그러나 이 비석이 언제

58) 《장수읍지(長水邑誌)》를 보면, '군(郡)의 북쪽 25리 기산(箕山) 아래 화평(禾坪)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비석은 현재 전북 지방문화재 자료 4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장수군지》(장수군, 1997, 남원), p.1,016.에는 1988년 장수군에서 군비로 수열 마을 입구 정결한 곳에 비각을 세워 이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삼절의 고장』(장수군), ·『長水邑誌』(장수군)·『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의 내용을 보면, 조정에서는 부인의 높은 정절이 후세에 귀감이 되었기에 그녀에게 정려를 세워주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비석을 이 지역 사람들은 흔히 '수열비(樹烈碑)'라 부르는데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해주 오씨(海州吳氏)의 충절과 열행(烈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주 오씨는 당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양사순(梁思舜)[59]의 아내(妻)이다.

현재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유재란 때 남원성(南原城)을 함락시키고 북상 중이던 왜적들이 장수를 거쳐 북으로 가다가 이 마을 민가에 침입 노략질을 하는데 양사순의 집 부엌으로 달려들어가 때마침 석양(夕陽)이라 저녁밥을 짓고 있던 양사순의 아내 해주 오씨 부인의 젖을 만지며 겁탈하려 하였다. 이에 분함을 이기지 못한 오씨 부인은 부엌칼로 자신의 젖을 잘라 적에게 피를 뿌리고 내던지면서 '장차 자식을 낳아 조상의 후사(後嗣)를 이을 소중한 젖인데 더러운 손으로 만지다니.'라며 왜적을 꾸짖고 그 자리에서 절명(絶命)하였다는 것이다. 전란이 평정되자 사람들은 오씨 부인의 열행과 충절을 기리고자 자연 석재를 이용 '수열평(樹烈坪)'이라 각(刻)하여 대로변에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

59) 양사순은 조선 선조(宣祖) 때 이 곳 장수군 계내면 화음리에서 출생하였다.

4. 결 어

지금까지 살펴 본 바, 장수 지역 여인들의 충절에서 역사(歷史)란 것은 변화라는 것을 무시하고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 · 인간할 것 없이 모든 것은 항상 갱신(更新)하고 발전하며 또 붕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는 단순히 양적(量的) 변화와 같은 직선적(直線的)인 흥망성쇠의 과정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과거의 반복도 아니라 하겠다. 역사의 변화는 낡은 질적(質的) 상태에서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에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사란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서술이라 할 수 있는데, 자연계의 현상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역사적 과거는 인간 정신의 활동으로 재생(再生)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논개나 전주 원씨 부인이나 해주 오씨 부인은 역사적으로 실존(實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행한 사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못하다. 당시에는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전해들은 사람들도 많아 머리에 그녀들의 행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 말로 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격자도, 전해지던 이야기도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하나 둘 없어지면서 전해오던 이야기 마저 본래의 사적과

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나 와전(訛傳)된 것이거나 설화(說話)로 변모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문헌적 기록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대개 단순한 민담(民譚)이나 설화를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 그런데 단순한 민담이나 설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의 근거(根據)에 입각한다고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민담이나 설화가 유포될 때 점차 변형을 가져 오게 된다. 그리하여 그 변형이 나타날 때는 황당무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갈고 닦아 정밀하게 사실과 일치하거나 사실에 가깝도록 부합될 수도 있다. 앞의 세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후자에 속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의 사적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정신으로 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이지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전주 원씨나 해주 오씨의 사적을 정리해 보면 상호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즉 두 여인이 실천했던 충절과 절의는 정유재란 때 왜적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가 임진년 다음해인 계사년에 진주에서 실천한 충절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논개가 보여준 충절정신은 정유년에 다시 논개가 출생한 같은 지역 관내에서 이 두 여인에 의해 그대로 이어져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연(偶然)의 일치(一致)

라 할 수 있을까?[60]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60)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충복 정경손(忠僕丁敬孫)도 이 두 여인의 행적과 대동소이한 사적을 남겼다. 정경손의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그는 향교(鄕校)의 노복(奴僕)으로 있을 때 정유왜란을 당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였지만 그 혼자 남아 향교를 지키게 되었다. 그는 5성(五聖)의 위패를 가슴에 품어다 우거진 숲 사이에 봉안(奉安)한 뒤 전복(殿服)을 갈아입고 땅에 엎드려 적(賊)의 화살을 죽음으로 막았다. 적장(賊將)은 그의 충성심에 감복하고, 글로 신표(信標)를 만들어 주어 뒤에 오는 군사들은 이 신표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이 곳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때 호남지역의 각 향교가 병화(兵火)를 입었지만 오직 본 향교만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에게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이 있었던 것이며, 그의 위험을 무릅쓴 탁월한 절조(節操)는 전대(前代) 사람들에게 조금치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2001년 11월 20일 인쇄
2001년 11월 23일 발행

발 행 인 / 장 명 수

발 행 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인 쇄 처 / 仁文社 artCom

TEL (063)288-3002 FAX 283-3750
E-mail : inmunsa@hanmail.net

이 인쇄물은 사업비 일부를 도비 · 군비의 지원
받아 제작하였습니다.